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Edition**

No. 1027 1983년 1월 11일(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533-2361 Tuesday, January 11, 1983

JAN 1 1 1983
EAST ASIAN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명규
편 집 인 : 김운영
인 쇄 인 : 박정서
광 고 국 장 : 송광호

"시한폭탄 실려있다" 허위정보

KAL 비상착륙 소동

뉴욕발 서울행, 나리다공항서 거짓판명

제보자 토론토중국인 잡혀

승객 211명(승무원 23명)을 태우고 뉴욕을 떠나 앵커리지 경유 서울로 향하던 대한항공 소속 KAL 007 점보여객기가 비행기내에 시한폭탄이 들어 있다는 정보에 따라 동경 나리다공항에 비상착륙, 기체내를 조사했으나 폭탄은 나오지 않아 한 중국계 캐네디안이 보낸 이 정보는 거짓으로 밝혀졌다.

지난 6일 오후6시 토론토를 떠나 뉴욕·서울 경유 홍콩으로 향하던 아더·곽민웅씨는 대한항공 토론토지사장앞으로 보낸 등기우편(토론토 6일자 소인)에서 자기가 타고가는 KAL기편에 시한폭탄이 들어 있을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7일 아침 이 편지를 발견한 KAL 토론토사무소 한석송소장은 긴급히 뉴욕, 서울, 앵커리지 등으로 투서내용과 함께 투서를 보낸 곽씨가 비행기에 타고 있다는 전문을 보냈다. 이때 KAL007기는 이미 앵커리지를 떠나 서울로 향했었다. (서울도착예정시각 한국시간으로 8일새벽6시50분).

긴급전문을 받은 KAL007기 승무원들은 좌석번호 44A에 타고 있던 곽씨를 주시하면서 만일의 경우에 대비, 새벽 5시22분(동경시간) 동경나리다공항에 비상착륙했다. 이 비행기는 뉴욕과 앵커리지에서 보안검사를 마쳤었다.

사고연락을 받고 나리다공항에서 동비행기를 수색한 일본경시청은 기체와 승객들의 짐을 샅샅이 조사했으나 이상을 발견못하고 투서를 한 곽씨와 또다른 중국계 미국인의 신병을 확보, 공중납치방지법 위반으로 체포했다. 투서의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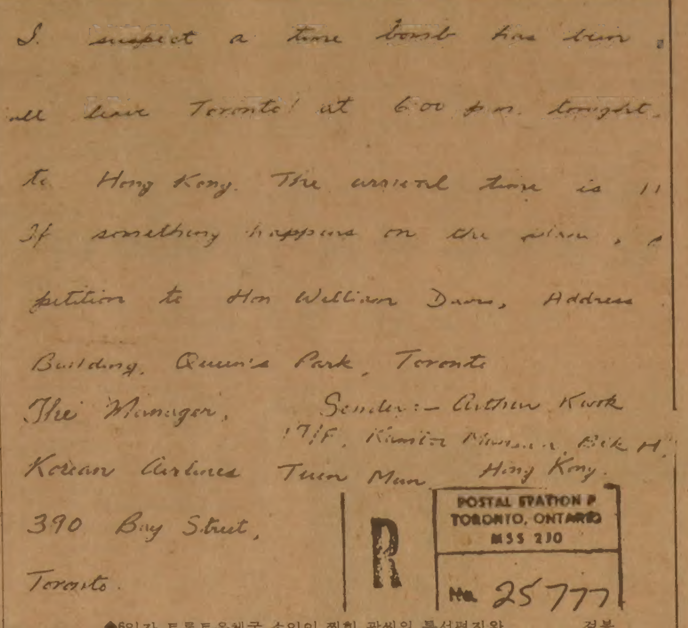
곽씨는 토론토 세이프웨이여행사에서 토론토-뉴욕-서울-홍콩의 편도항공권을 현금으로 구입했다.

곽씨는 투서에서 홍콩의 주소만 밝혔을뿐 토론토거주지나 직업을 밝히지 않았다. 영어이름을 아더(Arthur)라고 쓰는 곽씨는 만약 사고가 나면 윌리엄·데이비스 온타리오주수상에게도 알리라고 언급한것으로 보아 과대망상증환자가 아닌가 보여진다.

곽씨가 캐나다시민권자인지를 조사중인 연방경찰(RCMP)은 이와 비슷한 내용의 투고가 RCMP에도 지난 5일에 도착되었다면서 일본경시청의 협조를 얻어 사건을 조사중이라고 전했다.

동경 나리다공항에서 일단 검사를 받은 동비행기의 탑승객은 8일 하오1시10분(현지시간) 김포에 착륙했다. 동비행기에는 토론토제일여행사의 신용목씨가 타고 있었다. 신씨는 7일 유지원씨(여행사대표)와의 전화에서 "동경에 비상착륙, 검사를 받고 있으나 별 이상은 없다"고 말한것으로 알려졌다.

KAL토론토사무소의 한 소장은 10일 "무시할 수도 있는 투서였으나 안전제일이라는 대한항공의 영업방침때문에 이같은 일이 생겼다"고 말했다.


I suspect a time bomb has been ...
will leave Toronto at 6:00 p.m. tonight
to Hong Kong. The arrival time is 11
If something happens on the plane, ...
petition to Hon William Davis, Address
Building, Queen's Park, Toronto

The Manager, Sender:- Arthur Kwok
17/F, Kimiza Mansion Blk H,
Korean Airlines Tuen Mun Hong Kong.
390 Bay Street,
Toronto.

POSTAL STATION P TORONTO, ONTARIO M5S 2J0
R
No. 25777

◆6일자 토론토우체국 소인이 찍힌 곽씨의 투서편지와 겉봉투. 곽씨는 타고가는 비행기안에 폭탄이 장치돼 있다는 내용의 투서에서 "사고가 나면 데이비스수상에 알리라"고 했었다.

박순천여사 별세

숙환으로… 향년85세

(서울10일=연합)한국의 고참 정치인이자 저명한 여성지도자인 박순천 여사가 9일밤 화곡동 자택에서 숙환으로 별세했다. 향년 85세.

1898년 부산 동래에서 출생한 고 박여사는 1919년 3.1운동에 관련, 1년간 옥살이를 했으며, 45년 해방된 후 정치·사회 각분야에서 많은 직함을 가졌다.

48년 〈여성신문〉사장, 49년 한국여성협회 회장을 역임한 박여사는 자유당시절 민주당 총재에 피선되기도 했다. 또한 5선 국회의원.

그후 69년에 신민당과 통일원의 고문직을 맡기도 했으며, 80년에는 대통령국정자문위에 위촉되었다. 슬하에 3남3녀를 두고 있다.

은하 보석
란콤화장품 대리점
ROLEX
가장 믿고 살수있는
로렉스지정판매대리점
귀국선물
☎ : 534-9977 7791 620A Bloor St. W.

— 社 告 —

제2회 스키강습회

가족과 함께 스키를 즐깁시다

"스키를 하시면 겨울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눈이 오기를 기다리게 됩니다."라고들 말하지요. 사실입니다. 저희 한국일보사와 스키협회는 공동으로 작년에 이어 제2회 다운힐·스키(알파인·스키) 강습회를 가집니다. 스키강습겸 가족관광을 겸한 이 강습회에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초보자도 환영합니다.

◆ 때 : 83년 1월28일(금)출발, 30일저녁 귀가(2박3일)
◆ 곳 : 몽·트랑브랑(Mont Tremblant) (몬트리얼서 자동차로 1시간 거리)
◆회비 : 1인당 $219.00/14세미만 아동 $179.00 (왕복 대절버스편, 2박 호텔료, 아침·저녁 총 4회 식사, 환영파티, 스키·리프트(케이블·카) 사용료, 안내원 동승, 무료 스키지도 포함)
◆4인 1실 사용 원칙.
◆스키 렌트비는 별도.
◆선착순 40명
◆신청처: 한국일보사(533-2361), 스키협회(598-3732)

토론토한국일보사
한인스키협회

"구정치인 활동허용"

유 민한총재, 언론법 완화도

(서울-AP) 유치송민한당총재는 금년 여름이전에 정치활동이 금지된 구정치인 5백60명에 대한 정치활동이 허용될것으로 보인다고 7일 말했다.

이날 대구에서 열린 지구당개편대회에서 이같이 말한 유총재는 연내에 언론활동제한을 완화하고 국회법이 개정될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에는 김대중씨의 석방도미후 새해에 정치활동이 자유화될것이라는 추측이 나돌고있다.

고장난 소련 첩보위성

이달말경 지구에 떨어질듯

(워싱톤)우주공간에서 고장난 아마도 조정 불가능한 핵추진 소련 첩보위성이 90분마다 한번씩 캐나다상공을 통과하고 있다고 북미방위사령부가 7일 밝혔다.

소련은 고장난 코스모스 1402위성이 "사전 계획된 작전에 따라" 운행되고 있으며 아무런 위험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북미방위사령부는 이달말경에는 지구에 떨어질 것으로 믿고 있다.

미국 핵비상조사팀은 이 위성이 미국내에 떨어질 경우 위치를 정확히 찾아내고 방사능물질을 처리하기 위해 비상대기중이다. 이 조사팀은 다른 국가에 이 위성이 떨어질 경우라도 해당국가에서 요청만 있으면 현지로 달려갈 준비를 갖추고 있다.

오타와에서는 특별위원회가 또다시 위성이 캐나다에 떨어지게 될 것에 대비, 방위조처를 강구중에 있다.

캐나다와 미국 양국은 7일 소련으로부터 이위성의 상태와 궤도에 관한 보다 많은 정보를 얻으려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미국관리들은 우라늄 235를 45킬로그램을 싣고있는 이 고장난 첩보위성은 우주공간에서 고장을 일으켜 전원을 잃게 되었으며 소련해군과 교신이 두절되었다는 증거를 포착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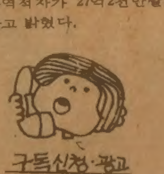
이위성은 바다에 떨어질 확률이 70%이며 또한 캐나다에 떨어질 확률은 3%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있다.

지난 8월30일 발사된 이 첩보위성은 1978년 1월24일 캐나다의 노스웨스트·테리토리스에 떨어진 위성과 유사하다.

한국무역 적자 작년47% 줄어

월스트리트저널지는 6일자에서 한국의 무역적자가 지난 82년중 47%나 감소했다고 상공부 보고서를 인용 보도했다.

이 신문은 한국의 82년도 무역적자가 27억2천만달러라고 밝혔다.


구독신청·광고
533-2361

캐나다한국외환은행
●본점: 2 First Canadian Place #1140 364-2890
●지점: 627 Bloor St. W. 533-8593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B. 536-1692
R. 245-3539

강찬영
변호사 사무실
☎ 961-2417
410 Dundas St. E.

강학수종합보험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R.S.P. 은퇴연금
B) 868-0922
B) 622-5147

드디어 판매개시!
감기는 만병의 원인! 건조한 아파트생활에 주의하세요!!
日本제 최신형원심식전자동 가습기

지방에 계신 분을 위해서 Mail order를 받습니다. 물건값+송금료를 수표로 보내주시면 즉시 보내드립니다.
가격 ——— US$79
카나다 $105 (+송금료)
(株) 日本家電
NIPPON KADEN LTD, BO.
MODEL NO. V.—57D
물용량 : 5ℓ
연속가습시간 : 14시간

가습기 원심분무식
Humidifier

* 예방보다 더좋은 약은 없읍니다!
습도가 부족한 겨울철의 건조한 실내는 누구나 쉽게 편도선(목젖)의 불편함을 느낍니다. 특히 아이들은 늘 감기가 계속되며 피부도 건성이됩니다. 필수적인 습도유지로 각종호흡기 질환을 예방하세요.

* 최신형 전자동가습기의 특징
1. 소음이 전혀없으며 실내전체를 쾌적하게합니다.
2. 고장이 전혀없읍니다. (2년간보증)
3. 켜고 끄는 번거로움이 없이 최저 습도 40%이하에서는 즉시 자동으로 켜집니다.

미도파 백화점
454 BLOOR ST. W. TORONTO, ONT.
B. 536-1692 R. 245-3539

University of Toronto
Robarts Library, rm 8049
East Asian Library
Tor On M5S 1A5

정부 3개신탁회사 접수

"국민과 투자가의 이익에 위배" 이유

온타리오 주정부는 캐딜락·페어뷰회사로부터 10,931채의 아파트와 타운하우스를 5억달러에 사들였던 3개의 신탁회사(Trust Company)를 접수한다고 7일 발표했다.

로버트·엘지 소비성장관은 이날밤 급작히 마련된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차관및 신탁회사관계 주임인 머리·톰슨씨가 앞으로 크라운, 그레이맥, 시웨이등 3개회사를 관할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들 회사의 총 자산은 15억달러정도로 알려졌다.

정부가 이들 회사를 접수한 것은 지난달 주의회에서 통과된 비상법에 의한 것으로, 이 법은 신탁회사가 국민의 이익이나 당회사 투자가및 주주, 자본가의 이익에 저촉되는 방향으로 운영해나갈 경우 정부로 하여금 해당회사를 접수할 수 있도록 돼있다.

엘지장관은 이번 조치로 3개 회사의 정상영업이 다소 지장을 받을 것이며 이들 회사에 투자한 사람들은 우선 정부의 조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1인당 최고 2만달러씩 찾아갈 수 있다고 밝혔다.

엘지장관은 머리·톰슨주임이 즉각 이들 회사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것이며 5명의 유능한 캐네디언 비지네스맨들이 돕게 될 것이라고 말하면서 이 조사작업은 2주일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연방정부도 온타리오주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뒤이어 그레이맥 모기지회사와 시웨이 모기지회사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폴·코스그로브 연방 주택성장관은 온타리오주정부의 조치와 그밖의 다른 이유로 이들 모기지 회사의 자산을 접수한다고 말했다.

◆올림픽후원회 신년파티에서 함의현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올림픽후원회 신년파티

즉석모금 $3,200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토론토 교민 올림픽후원회(회장 함의현)의 신년파티가 8일밤 올드·밀 레스토랑에서 1백여명의 교민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올림픽후원회는 이날 신년파티에서 즉석에서 $3,200의 후원금을 모금했다.

84년도에 본격활동을 개시할 올림픽후원회의 이번 신년파티는 82년2월에 창설된 이후 첫 공개행사이다.

디너에 이은 축하식에서는 함회장의 인삿말에 이어 박인순 한인회장, 박영철 부총영사의 축사에 이어 이갑 사무총장의 연혁보고, 이영현 부회장의 임원소개가 있었다.

토론토·심포니 단원 2명의 클래식기타와 플룻의 합주와 김종복과 그의 4인조악단의 연주, 소프라노 전계향씨의 독창으로, 파티는 무르익었고 특히 후원회 홍보책임자인 송관현씨의 능숙한 사회와 개그맨 김광무씨의 재치있는 유모어가 12시까지 계속된 파티의 분위기를 한결 돋구었다.

이사무총장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함회장과 이부회장은 지난해 9월 모국을 방문, 한국정부의 올림픽준비위원회및 체육부 관계자들과 만나 의견을 교환했다고 말했다.

대광중고 동창회

새회장에 백효증씨

대광중고등학교 동창회는 새 회장으로 백효증씨(빌라멜비아 장로교회성가대 지휘자)를 선출했다.

지난 12월말 연말파티에서 총회를 가진 대광동창회는 총무에 최성관씨를 뽑았다.

전 회장은 윤지용씨였다.

새로 선출된 대광동창회 임원진은 다음과 같다.

회장 백효증(624-4592)
총무 최성관
회계 오세호
서무 조덕남
봉사 함만수
체육 김의명
친교 서동헌

金聖鍾作

치정과 恐怖의 추리소설

第5의 사나이

<145>

출발

㉘

그로부터 한시간동안 그는 점성들여 변장을 했다. 머리는 잿빛으로 물들이고 코밑에는 수염을 달았다. 피부는 검게 칠했다. 거기다 금테안경을 끼자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했다.

그는 호텔을 나와 길을 건너갔다. 길 건너에는 은행이 있었다. 그는 은행으로 들어가 1만달러를 현금으로 인출했다.

다시 호텔로 돌아온 그는 젖고리만 벗고 침대 위로 올라가 눈을 감았다.

8시30분에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가방을 들고 호텔방을 나왔다.

그는 호텔안에 있는 양식집으로 들어가 한 시간 가까이 식사를했다. 그런 다음 택시를 타고 카이락공항으로 향했다.

그는 우울한 눈빛으로 밤거리를 바라보았다. 언제 다시 오게될지 그자신도 점칠 수가 없었다. 이번일이 끝나면 아무도 발견할수없는 곳에 숨어 살리라 하고 그는 자신에게 몇번이나 다짐했다.

출발 40분전에 그는 공항에 도착했다.

늦은 시간인데도 대합실에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는 대합실을 휘둘러보다가 공중전화가 있는 곳으로 걸어갔다. 5분쯤 기다렸다가 그는 박스 안으로 들어가 다이얼0 2057073을 돌렸다. [illegible] 울린뒤에 신호가 떨어졌다.

『나 황이란는 치과의사인데 예약자를 바꿔주시오.』

『아, 네…잠깐 기다리십시오.』

젊은 남자 목소리가 대답했다.

잠시후 무게있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전화 바꿨읍니다.』

『나한테 묻고 싶은게 뭐요?』

『암호…우리끼리 통할 수있는 암호가 필요합니다.』

『당신들은 처음부터 약속을 어기고있어 왜 미행을 붙여서 나를 귀찮게 하는거지?』

『그점은 미안하게 됐읍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을겁니다.』

『지금 어디 계시지요?』

『그런 건 알 필요없어. 내 암호를 말하겠다. 제5의 사나이…이게 내 암호야.』

『제5의 사나이…알겠읍니다. 이쪽은 만리장성입니다.』

『만리장성?』

그는 확인하기 위해 되물었다.

『네, 만리장성…그리고 통화시간을 정해드리겠읍니다. 통화시간은 여섯시간마다입니다. 낮12시정각, 오후6시, 밤12시, 새벽6시…이렇게 하루 네번입니다. 정각에서 5분까지는 통화가 가능합니다.』

『다른 지역은?』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암호및 통화시간은 어느 지역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소.』

『제5의 사나이…건투를 빌겠읍니다.』

그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저자들은 제5의 사나이가 내일오후1시15분 CPA편으로 출발하는줄 알고있겠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출국수속을 마치는데는 10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는 철저히 일본인 사사끼·고로(佐佐木五郞)로 행세했다. 사사끼의 패스포트는 그가 애용하는 위조품이었다. 그에게는 그것말고도 위조여권이 다섯개나 있었다. 그는 그것들을 적재적소에 써먹고 있었다.

변장한 창…"내 암호는 「제5의 사나이」"

朴男 그림

천주교총회장 교체

신임에 이석현씨

◆이석현 총회장

토론토한인천주교회(주임신부 최규식)는 금년부터 2년간 신자들을 대표할 총회장에 이석현씨(토론토 한국일보 주필·이민사자료실장, 문인협회 고문)를 임명, 9일 신·구임원 교체식을 가졌다.

지금까지의 회장은 김문고씨(코놋·래보라토리 혈액파장)였다.

이회장은 부서별 책임자및 단체장들과 함께 사목위원회(신교의 제직회와 비슷함)를 구성, 신부를 보좌하며 성당과 신자들에 관계된 일을 돕는다.

천주교회는 이날 사목위원회와 각단체 임원들을 임명하는 한편 토론토대교구장 카터 추기경의 허가를 얻어 성체분배권자로 곽준구(교육위원장), 한상복(동부지역 회장), 허대룡(중부지역 회장), 김홍량(서부지역 회장)씨의 4명을 추가 임명했다.

이들은 신부및 기존 성체분배권자인 김종욱, 이석현, 김문고, 허영식, 김지일, 권장성씨와 함께 신자들에게 영성체때 성체를 나눠주는 일을 맡는다.

영성체는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밀떡으로 영세(세례)를 받은 신자만 미사때 받아 먹는다.

교민동정

◆이재정(신부, 대한성공회 소속)=지난 8월부터 위니펙의 마니토바대학에서 현대신학을 공부하는 한편 각교회를 순회하며 목회교환을 하고 있다. 오는 6월 뉴·부른스위크주 프리드릭턴에서 열리는 캐나다성공회 총회에 참석하고, 돌아오는 길에 토론토에 들를 예정.

이신부는 서울대성당 주임, 강화성당 주임, 성공회 신학원 조교수등의 직책을 거쳤다.

◆김문고(한맘성당 총회장)=토론토한인천주교회 사목위원장(총회장)직을 2년간 완수, 지난 9일 임기를 마쳤다.

"대과 없이 임무를 완수,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니 시원섭섭하다"고 그간의 노고를 털어놓았다.

오강남씨 컬럼 〈속담풀이 시리즈〉 ③

금의환향

귀향의 윤리

「남아가 뜻을 세워 고향을 떠났으면 그 뜻을 이루기 전에는 죽어도 고향에 되돌아가지 않는다」는 옛말이 있다. 여기서 「뜻」이라는 것이 정확히 무엇을 말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옛날이었으니까 과거에 급제하는 것, 벼슬을 얻는 것, 혹은 학문에 대성하는 것 쯤이었으리라 짐작이 간다. 아뭏든 대단한 각오로 고향을 떠난 것임에는 틀림이 없다. 일단 정한 뜻이 이루어지면 그때는 금의(비단옷)을 입고 귀향하는 것이 보통이었던 모양이다.

뜻을 세우고 서울을 향해 「출향관」하는 사람도 많지만 요즘엔 외국을 향해 「출고국」하는 사람도 많다. 무슨 뜻을 세우고 고국을 떠나는 것일까? 자녀교육, 학문의 성취, 사업의 성공, 인격도야… 너도 나도 이민을 가니까 친구따라 강남가듯 따라 나선 사람도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거창하게 「청운의 뜻」까지는 안가더라도 나름대로의 꿈을 품고 태평양을 넘었으리라. 그리고는 언젠가 그 꿈이 이루어져 금의환향하겠다는 희망을 안고 왔으리라.

이민사 10여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는 이미 뜻을 이루어 금의환향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음을 보게 된다. 시대가 바뀌었으니 문자그대로 비단옷을 입고 말을 타고 출랑출랑 동네어귀로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 모두 현대식 금의환향을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의 금의환향이란 도대체 어떤 것일까? 밍크코트에 밍크목도리로 온몸을 두루 감싸고 747의 타랍을 내리는 것일까? 다이아몬드반지, 다이아몬드귀거리, 다이아몬드 코거리를 온몸에 붙이고 번쩍거리며 김포공항에 들어서는것일까? 금괴, 녹용, 웅담을 몸속에 감추고 뒤룽거리며 세관을 통과하는 것일까? 카메라, 녹음기, 영사기를 온몸에 걸치고 와그락 거리며 시내에 입성하는 것일까?

만약 이런 것이 금의환향이라면 이런식 환향은 한마디로 고향을 망치는 것이다. 고국의 경제질서를 어지럽게 하므로 경제적, 사회적 피해를 주는것도 물론 큰 문제지만, 그보다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런 식의 금의환향이 일반 국민들에게 가져다주는 심리적, 정신적 충격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런 식의 금의환향은 쉽게 말해서 무명옷 입은 사람들에게 비단옷으로 광발을 잡으려는 태도다. 일찌감치 고향을 빠져나온 내가 너희들보다 얼마나 현명하냐, 내가 얼마나 출세했는가 보라, 내가 얼마나 위대( )하냐, 배를 두들기며 나보란듯 거들먹거리려는 심사다.

이렇게 거들먹거리며 귀향하는 사람들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너희도 잘되려면 하루속히 고향을 등지라, 아직도 이런 촌구석에서 죽치고 앉아있으니 얼마나 한심한가, 하는 통의 생각을 심어주고, 고향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등인생이라는 좌절감을 강요함으로 일종의 쾌감을 맛보려는 새디즘이 심층에 깔려있는 것이나 아닐까?

이쯤되니까 금의환향 같은 통속적 개념이 오늘날에도 수납 가능한 것이냐 하는 의문마저 생긴다. 금의환향의 내면적 의미를 찾아낼 수는 없을까?

뜻을 이루라, 그리고 고향을 찾으라. 그러나 그것이 나의 경제적, 사회적, 학문적 성과같은 외부적 성공을 확대해서 나팔을 불기 위함이 아니라, 그동안 벌고 모은것, 그동안 보고 배운것, 그동안 갈고 닦은 것들 중에서 고향의 형제들, 이웃들과 나눌 것이 있으면 나누고, 나의 새로운 경험에서 비추어보아 그들에게서 얻을 것이 있으면 얻고, 그들과의 유대를 재확인하고, 서로 그리운 정을 나누고… 등등보다 깊은 차원의 목적의식, 올바른 마음가짐이 선행될때 참된 의미의 환향의 보람을 찾게 되는 것 아닐까? 이런 겸허하고 사려깊은 내면적 태도가 바로 우리가 고향을 찾을 때 입고 가야 할 아름다운 현대식 비단옷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전국실업자수 150만

야당 비상대책 주장

(오타와)캐나다는 150만명에 육박한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전쟁상태에 돌입해야한다고 신민당의 재정비평가 넬슨·리스씨가 10일 강조했다.

또한 보수당의 메이빗·크롬비 노동문제비평가도 실업사태에 대해 논평, 연방정부는 실업구제의 한 방안으로 캐나다군 훈련병 정원제를 폐지, 많은 청년층 실업자를 군인으로 받아들이라고 호소했다. 현재 약 3만3천명의 입대지원자가 기다리고 있다.

크롬비의원은 또 연방정부가 NEED 즉 정부의 최근 직장창출계획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두 야당의원의 발언은 7일 캐나다 통계국(Statistics Canada)이 지난 12월 한달동안 5만6천명이 직장을 잃어 총 실업자수가 1,494,000명에 이르렀다고 발표한데 이어 나온 것이다.

작년 해외여행

한국 24번째

한국은 82년중 미국시민이 방문하는 세계국가중에서 24번째 나라로 나타났으며 반대로 미국으로 오는 외국시민중 한국인의 수는 전세계국가중에서 15번째를 차지했다.

미여행조사협회가 82년1월부터 6월말까지 실시한 조사에서, 미국인이 한국을 최종목적지로 여행한 수는 4만3천7백90명으로 나타났다.

미국인이 82년중 가장 많이 여행한 국가는 멕시코가 1위이며 동양국가로서는 일본을 가장 많은 수가 방문했으며 그다음 필리핀과 홍콩 그리고 한국순위로 되어있다.

서울서 한·카 실무자회담

캐나다의 의류수입 감축문제

(토론토7일=연합)한국의 대캐나다 의류수출량을 줄이기 위한 양국 실무자회담이 오는 1월17일 서울에서 열린다.

외무성의 특수무역관제국장인 캠벨·스투아트씨는 금주말경에 캐나다협상팀을 이끌고 서울로 떠날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오타와 정부는 지난해 10월 캐나다의 의류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4개국으로부터의 의류수입량을 83년에 줄이겠다고 발표했다.

83년에 얼마만큼 수입량을 줄일것인지 아직 구체적으로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정통한 캐나다정부 소식통은 아마도 80년도 수준으로 줄이려할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한바 있다.

80년도에 한국은 캐나다에 7천7백49만5천달러의 의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79년도에 비해 20.6% 줄어든 숫자이다.

의류및 섬유류는 한국의 대캐나다 주요수출상품으로 총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한다.

한국은 지난해 총1억3천9백91만3천달러의 의류와 섬유류를 수출했는데 이는 80년에 비해 약 90% 증가한 것이다.

◆중무장을 했었던 뉴욕아일랜더스의 하키선수들이 홀홀 벗어버린 반면, 벗기를 좋아했던 「펜트하우스」 모델은 무장을 하고 포즈를 취했다.

MODERN FURNITUR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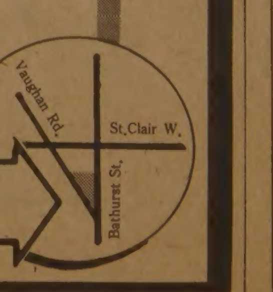
ecosys

확장이전

제1에코시
2300 YONGE ST. TORONTO
(In Yonge-Eglinton Centre)
(B) 486—0397

교민여러분 새해 복많이 받으십시요.
금년부터 저는 하기장소에 또하나 가구점을
마련하고 교민들께 보다 더 저렴하고,
격조 높은 가구를 안내하려 합니다.
2월중 open 예정이오니 더욱 애용해 주시고
많은 지도와 편달 바랍니다.
대표 김 만 구 배상

제2에코시 (B) 657—1785
1440 Bathurst St.
21VAUGHAN RD. (우편주소)



<제6회 문협신춘문예> (가작 : 수필)

과 일

김부미 (프레데릭톤 거주)

철마다 형형색색으로 바뀌며 가득가득 쌓이는 서울의 과일가게를 좋아한다.

연연한 봄빛 앵두며, 곰보 딸기며, 토마토, 복숭아, 살구, 수박, 포도, 사과, 감, 배등 빨갛고 파랗고 노란 색깔들이 동그라미 속에 곱게 펼쳐진 모양은 우리의 눈을 부드럽게 해주고, 코를 스치는 달콤한 향내는 미각을 자극한다.

그뿐 아니라, 온갖 과일들은 아름다운 추억들을 하나하나 연상시켜 주며, 이 아메리카대륙의 과일들이 상큼하고 감칠맛 나는 한국의 과일을 감히 따를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불광동 근처의 딸기밭, 소사의 복숭아밭, 시립농대 안의 포도밭, 중랑교 밖의 배밭을 차례로 계절 따라 찾아다니며 즐기던 친구들과 나를 극진히 아껴주시던, 나이 삼십이 지나 출가하신 선생님.

다정한 미소로 손짓을 하며 흘러간 장면들이 눈앞으로 다가온다.

사과처럼 동그란 얼굴에 잘생긴 눈을 가진 과일집 아들, 공부도 잘하고, 웃기도 잘했던 그녀석은 잊을 수 없는 추억을 남겨 주었다.

한창 수업이 진행될 때 한눈 팔고 있는 어떤 녀석을 향해 질문을 던졌는데, 까까머리 뒤통수를 긁적이며 열심히 설명을 했지만 그 대답은 횡설수설이었다.

그렇다고 "대답이 틀렸어!"하고 윽박지를 수가 없어서 상냥하고 조심스럽게 평가를 했다.

"알긴 아는데, 말의 앞뒤가 안섰구나."

그러자 과일집 아들녀석이 손을 번쩍 들고 일어나더니 홍옥처럼 빨개진 얼굴에 웃음을 참으며 던진 말이었다.

"선생님! 앞뒤는 안섰지만 가운데 토막은 섰어요."

"와-"하고 터져 나오는 폭소에 나도 마음껏 허리를 젖혀가며 웃었다.

가끔 교실안을 웃음바다로 바꾸어 놓는 악당, 얄개들을 난 좋아했다. 하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녀석은 그 이듬해에 학교를 그만두었다. 가게일 때문인지, 친구를 잘못 사귄 탓인지는 몰라도 등교하는 길에 다른 데로 새어버리는 「도중하차」를 배웠다는 것이다.

자전거 타고 심부름을 가던 녀석을 우연히 퇴근길에 만났을 때, 얼굴을 붉히면서도 반갑게 달려와 언제나 변함없이 웃는 얼굴로 인사를 하고, 꼭 학교에 다시 나오겠노라고 다짐은 했지만 어찌된 일인지 녀석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지금은 나이 삼십이 지나 아기아빠가 되어 있겠지만 내 추억속엔 개구장이 중학생으로 언제까지나 남아 있으면서 과일가게 앞을 지날 때마다, 빨간 사과를 볼 때마다 보고 싶은 얼굴로 떠오르곤 한다.

게다가 재치있는 그 말은 언제나 삭막해지려는 내 정서를 지탱해 주었고, 애교있는 생활의 한 부분을 만들어내는 노력을 일깨워 주기도 했다.

어느날 저녁인가, 무거운 짐을 들고 장승백이 버스정유장에서부터 집을 향해 걸어 올라가고 있었다.

"무거워 보이는데 들어다 드릴까요?"

한 청년이 옆으로 다가오며 짐을 붙들었다.

"아니, 괜찮아요."

"괜찮은 게 아닌데요. 들고 도망가지 않을 테니까 안심하세요."

그 청년은 기분 좋게 한잔 한 얼굴이었다.

"이것 들어다 드리면 차 한잔 주시겠읍니까? 아가씨 아주머니가 손수 끓이신 따끈한 차요."

"글쎄요. 하여튼 가보지요."

한 5분 걸어 올라가는 동안 장난끼 어린 농담을 걸어와 부담 없이 웃었지만 집 근처에 가선 망설여졌다. 얼른 길옆 가게로 뛰어들어가 사과를 몇개 사고는 빨간 홍옥을 꼭 한개 그의 손에 들려주었다.

"고마와요!"

어이없이 웃고 있는 그 청년의 손에서 빨간 사과는 유난히도 전등불에 빛나고 있었다.

과일을 볼 때 마음이 활짝 펴지고, 경쾌해지는 건 과일의 맛이나 매력이 심심함에 있는 탓이리라. 남자보다 여자가 더 좋아하는 것도 아름다움과 산뜻한 맛에 대한 민감한 반응을 선천적으로 타고 났기 때문이고.

흔히 남자가 여자만큼 과일을 좋아하지 않는 건 어쩌면 에덴동산의 아담과 이브 시절에 이브로부터 선악과의 유혹을 받은 원죄의식 때문일까?

「아담의 사과(Adam's Apple)」를 늘 달고 다니기에 과일에 대한 두려움이 잠재의식 속에 깔려있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할로윈때 준비했던 과자 팔십여개가 동이 나서 급히 집에 있던 사과를 내놓았었다. 사과와 과자들을 양손에 들고 나타나자, 온갖 악귀의 모습을 한 조무라기들 속에서 계집아이들은 앞을 다투어 나오며 "난 사과요!", "나두요"하면서 고사리손을 들어 올리는 것이었다.

머슴애는 불쑥 "칩스요" 하고는 뺏듯이 제 주머니 속으로 쑤어넣었고.

나도 여자인 탓에 과일을 좋아하고, 과일가게 앞을 지나다니기를 즐겨한다.

이곳에선 식품점에 들어가야 과일구경을 하지만, 서울에선 버스 타고 지나가며, 길을 걸어가면서 어디서나 푸짐한 과일가게를 을 자주 만나게 되고, 거기에 진열된 과일의 종류가 바뀌는 것을 바라보며 계절을 느끼고, 인정을 느끼고, 희비애락을 느낀다.

지금 한창 과일가게를 장식하며 감과 배와 사과가 제 맛을 낼 때인데 서울이 그립다.

제5회 신춘문예 수필 가작

입상소감

김 부 미

◆김부미씨

-김부미씨 약력-

◉1941년 서울생
◉건대 교육대학원 국어교육과 중퇴
◉교직경력 14년
※전화: (1)506-454-4549

부족한 글을 뽑아주신 분들께 감사를 보냅니다.

늘 이 핑계, 저 핑계로 게으름을 피워온 부끄러움이 새로운 힘으로 이어지기를 바라고, 낯선 이국땅에서의 수많은 장애물이 징검다리로 바뀌어지며, 고향의 아름다운 산하가 이곳에 다시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Saint John River를 끼고 달리면서 고요하고, 때로는 물결치는 수면을 바라보고, 단풍이 불붙듯 물든 산을 멀리, 또는 가까이 바라볼 때 뿌듯하게 번져오던 감격도, 마음대로 숲속을 헤집고 돌아가는 기쁨과, 바위틈으로 흐르는 차고 맑은 물속에 발을 담그거나, 출렁이는 강물에 몸을 첨벙거리던 고향산천의 밀착되어 오는 정감과는 거리가 먼 것임을 깨달으며, 허탈감으로 되돌아 가기도 했읍니다.

동과 서의 합일점이 멀고, 방향이 다른 것은 자연으로부터 타고난 정기가 본질적으로 달라서인지 모릅니다.

그들은 그들의 기질대로 생각하고 생활하고, 우리는 우리의 정서로 느끼고 받아들이지만 모든 것을 머리로 조절하고 맞추어가며 그들과는 결코 같을 수 없는 새로운 형태의 우리의 삶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숨쉬는 곳에 자연이 숨쉬고, 우리가 생동할 때 비로소 우리 주위의 모든 것이 의미있게 살아 움직일 것입니다. 또 다른 형태의 진통을 겪으며 새로운 세계를 창조해 갈 것입니다.(1983. 1. 4 낮에)

제6회 『신춘문예』 심사평

불모지에 핀 꽃 한송이

— 작품수·수준 아울러 흉작 —

이 석 현 (문협고문)

한인들의 캐나다 이민길이 좁혀지면서 문인협회의 「신춘문예」 응모자수도 대폭 줄었다. 응모자 13명의 19편.

지난 82년9월부터 12월15일까지 3개월간 북미 전역에 걸쳐 공모한 제6회 신춘문예 현상모집은 시, 동시, 단편소설, 동화, 수필, 평론, 희곡등 문학의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작품응모를 기대했는데, 전년도부터 응모자수가 줄었으며, 우수작도 전무상태이다.

특히 평론·희곡·동시는 한편도 응모가 없었으나 예년에 없던 동화가 2편이나 응모되어 관심을 끌었다. 그러나 평가될만한 수준작이 못되었음은 못내 아쉬운 일이었다. 접수된 작품은 시 4편, 소설 4편, 동화 2편, 수필 9편의 모두 19편이고, 응모지역은 메트로토론토를 비롯, 몬트리얼, 손힐, 프레데릭톤(N.B)등지였다.

응모편수로나 작품수준에서 불모작을 면치 못한 이번 제6회 「신춘문예」에서 비록 "가작"이지만 한편의 입상작을 낼 수 있은 것은 불행(?)중 다행한 일이었다.

◆입상작인 김부미씨(프레데릭톤 거주)의 수필 「과일」을 중심으로 가장 많은 응모작이 있은 수필분야를 간단히 논평하면-

어떤 응모자는 신춘문예 작품의 제목으로서 너무 평범하게 붙이는 이가 있는데, 우선 제목이 한몫 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물론 수필은 특별한 작법이 따로 없으며, 강한 주장도 수필로서는 맞지 않는다.

3편의 수필을 보내온 김씨의 작품중 「과일」은 우선 자신있게 매끈하게 엮어나간 문장력이 호감을 주며, 수필이 지니는 독특한 분위기- 즉 훈훈한 정서적 기분을 느끼게 해주었고, 작품으로서 잘 짜여져서 「입상작」이 되었다.

「과일」은 관조하는 자세로 차분히 엮었으며, "에덴"의 옛일과 "아담의 사과" 일화까지 곁들여 이브와 사과- 여성이 사과를 좋아하는 까닭을 자기대로의 상상을 붙여 풀이한 것도 이 작품의 장점으로 꼽힌다.

그런데 이 글의 무대와 주된 비중을 캐나다 현지 아닌 고국에 두었으며, 향수를 달래는 추억담같이 엮은 것이(특히 마지막 부분) 「당선」을 놓친 결정적 이유이다. 물론 강하게 파고 드는 절실감 부족과 인상적 여운이 약한 점도 현상문예 수필로서는 지적될 흠이라 하겠다.

◆응모시 4편중 「그리운 산」(장병환)은 현상시로서는 너무 가벼운 덧치. 「들비」(동)는 막연한 호칭으로 서두를 꺼냈으며, 너무 남발인 같은 말 되풀이가 식상을 일으킨다.

「가을」(유봉희)은 시에 익은 솜씨나 끝마무리가 탁 풀린 느낌을 줌은 미숙의 탓. 멋을 내려는 의욕이 앞섰고, 알맹이가 허술해져 버렸다.

본선에 오른 시 「행복」(유봉희)은 자기나름으로 행복을 응시하고 있으나, 서술에 헛점이 보인다. 끝련 끝줄의 맥빠진 여운 아닌 여운이 어색하다.

◆단편에서 「두 얼굴」(원옥재)은 장편수필처럼 축처진 평면적 서술로 긴박한 입체감이나 단편다운 극적요소가 결여되었고, 상황풀이에 그친 것이 탈.

「겨울비」(조숙영)는 사춘기 남녀의 교제과정을 리얼하게 엮었는데, 군더더기가 많고, 사건전개, 줄거리 추적이 미숙하여 작품으로 승화시키는 힘이 약하다.

「살얼음 위의 겨울비」(신익균)는 처부모의 입김이 센 이민살이에서 장모와 사위의 갈등- 특히 종교문제를 둘러싼 건너지 못할 계곡 사이에서 벌어지는 감정대립을 다루었다. 테마와 소재 다 절실한 것을 택했는데 사건전개가 느리고, 지루한 대화나열이 작품을 처지게 했다.

◆동화 「이민 속에 철수의 학교생활」(김정원)은 아동을 주인공으로 다루었을 뿐, 동화가 아니라 어른의 수기, 대화가 거의 없는 것도 흠이다.

「난 그대루가 좋아」(박영선)는 동화의 성격은 띠고 있으나 어른스런 착상과 설명으로 일관한 것이 흠이다.

◆선외수필 「어느날의 단상」(조재식)은 이민의 세모를 애상적으로 엮었으며, 넋두리에 치우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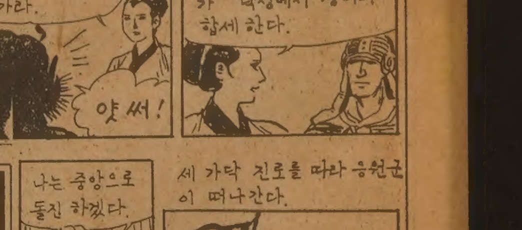
「그레이스」(김주은)는 자모의 자상한 마음씀과 백인여성과의 교분을 담담하게 정서를 담아 엮었으나 뚜렷한 촛점 없음이 탈이다.

▲어여쁜 여배우 모간·페어차일드. 미국내 가장 아름다운 여인중 하나로 손꼽히는 페어차일드는 TV극 「플래밍고·로드」등에 출연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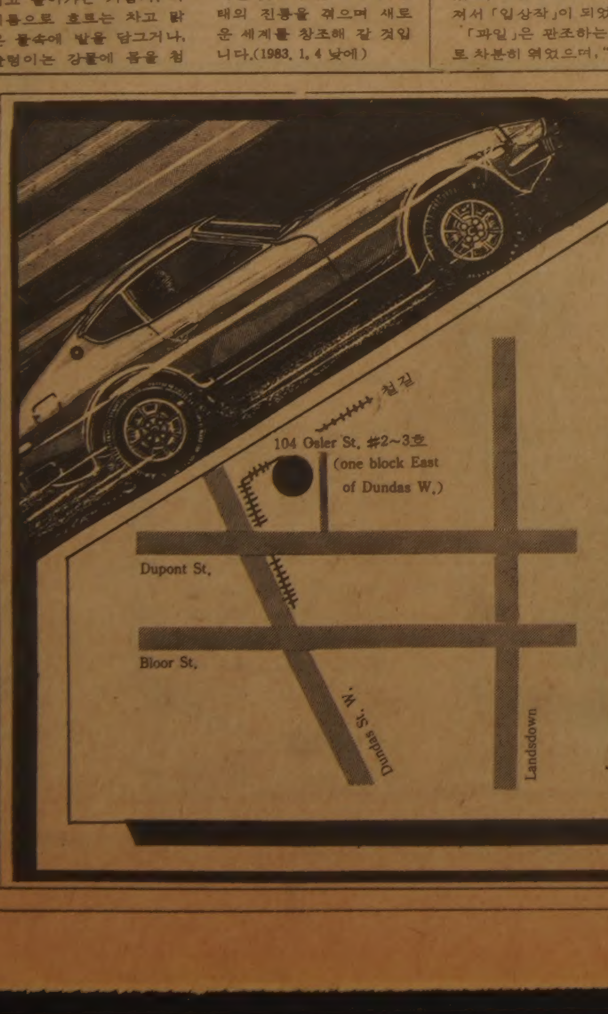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yr. $9./mo. 구독료(선금) 년$99. 월$9. ISSN 0712-1733 2nd Class Mail 5248

새로 개업한
서울식품
좋은 품질로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봉사합니다
해밀톤지점 ☎: 1-385-1485
서부지점 ☎: 243-9544

구독신청은 533-2361



한국비데오센타
- 각종 비데오테잎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 TV판매
☎ 532-0210 손 병 헌



E.J. AUTO BODY
확장이전
새해에도 교민여러분께 만복이 깃이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동안 Lisbon 오토바디를 성원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말씀드립니다.
금번 제가 새로 확장이전해서 E.J. Auto Body shop를 open하게 되었읍니다.
과거와 같이 배전의 지도편달 바라오며 1차 왕림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이 영 두 올림.
□ 수리후 일체 책임보증(1년간 보증수리서 제공)
□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수리.
□ 24시간 토잉·써비스 무료제공.
□ 수리중 New Car를 무료대여.
104 Osler St. #2-3호
(B)766-3122
(R)439-6548

利子·配當소득등 重課稅

政府、올부터 綜合課稅制 확대

租稅감면幅 단계 축소

상속·贈與稅 대폭强化

정부는 날로 늘어나는 재정수입의 확보위해 조세감면을 대폭축소하고 과세인원및 소득의 저변을 크게 확대해나가기로 했다. 정부는 능력있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한다는 원칙(應能課稅원칙)아래 이자, 배당, 부동산등 주로 고소득층에 귀속되는 재산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제도를 지양하고 종합과세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금융자산의 실명화를 유도하기위해 차등과세폭의 확대를 포함한 제도적개혁을 서둘러 86년까지는 이자, 배당, 양도차익등 모든 재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를 시행할 방침이다.

6일 재무부가 마련한 『長期稅制方向』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低物價·低成長시대로 급격하게 전환되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수요는 크게 늘어 조세수입규모는 82년의 9조4천억원에서 86년에는 23조6천억원으로 늘어나고 이에따라 조세부담률은 82년의 19.3%에서 86년에는 22%로 크게 높아지는데 현행세법구조는 조세감면폭이 너무커 직접세의 감면율은 25%, 간접세는 9.1%에 달한다.

재무부는 이같은 과다한 감면제도아래서는 필요한 세금을 거두어들일 수 없다고 보고 ①내년부터 조세감면폭을 단계적으로 축소, 86년까지는 원칙적으로 조세감면제도를 없애도록하고 ②국민개세원칙에 따라 과세인원및 소득의 저변을 확대 ③상속 증여 재산에 대한 과세강화및 ④금융자산의 실명화유도 및 이자, 배당, 증권및부동산양도차익등에 대한 종합과세제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금융자산에대한 과세를 강화하기위해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실명과 가명에 대한 차등세율을 대폭확대하고 실명제가 전면실시되기 이전에라도 금융자산에대해 종합과세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또 현행 세법은 각종 비과세 감면 혹은 특혜적 저율분리과세때문에 실효세율은 낮으면서 명목세율만 높은 실정이므로 세율구조를 시정, 명목세율은 인하하되 과세대상을 확대하며 세금을 완전징수키로 했다. 82년중 각종 세금의 실효세율을 보면 ▲종합소득세의 경우 명목세율은 6~60%인데 대해 실효세율은 13.2% ▲법인세는 명목세율 22~38%에 대해 실효세율 27.2% ▲관세는 11.6%對5%로 되어있는 것을 86년에는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이 비슷하도록 세율을 낮추되 과세대상은 크게 확대할 방침이다.

재무부는 이같은 稅制개혁 방향에따라 금년 세제개혁때부터 단계적으로 반영키로하고 우선 올해는 ▲조세감면제도를 산업별지원에서 기능별 지원으로 전환함과아울러 감면폭을 대폭 축소, 단기시한부로 운용하고 ▲예금이자및 배당소득에 대한 세율인상과 실명·가명예금에 대한 차등세율확대 ▲상속세·증여세에 대한 과세강화 ▲예금이자및 배당소득등 금융자산종과를 위해 2억원이상 예금자및 액면기준 5천만원이상 주식소유자에 대한 종합과세등을 실현할 방침이다.

韓日頂上회담議題등 논의

兩國 亞洲局長 어제 實務협의

金炳連외무부 亞洲국장은 6일상오 기우찌(木內昭胤)일본외무성 亞洲국장과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의 訪韓과관련한 양국정상회담및 외상회담의 議題, 공동성명 내용, 假調印차등에대한 실무협의를 가졌다.

이날 실무회의에서는 공동성명에 ▲經協의 원만한 타결로 새로운 韓日관계를 정립할수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일본은 경제협력을 통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하며 ▲한반도및 東北亞정세에 관한 폭넓은 대화를 통해 양국이 安保상 긴밀한 관계에 있음을 확인하고 이를 위한 공동노력을 경주하며 ▲양국의 제반 현안문제를 협의하고 이를 발전적으로 해결한다는 내용을 담자는데 대체적인 합의를 본것으로 알려졌다.

이날회의에서는 또 經協에 대한 구체적인내용도 거론됐는데 日本측은 總額중 당초 15억달러를 제시한 ODA(公共개발借款)규모를 17~20억달러線으로 上向조정하는데 동의할것으로 알려졌다.

기우찌亞洲국장은 2시간동안의 실무협의를 끝내고 이날하오 1시 JAL편으로 귀국했다.

"不可侵조약提議 검토"

레이건 年頭회견 美蘇 頂上회담도 찬성

【워싱턴=李文熙특파원】 레이건美대통령은 6일 바르샤바조약기구7개회원국이제안한 東西간 상호불가침조약체결안에대해 『검토해볼만한 것』이라고 전제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대책은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동맹국과의 협의를거쳐야 나올수있을것』이라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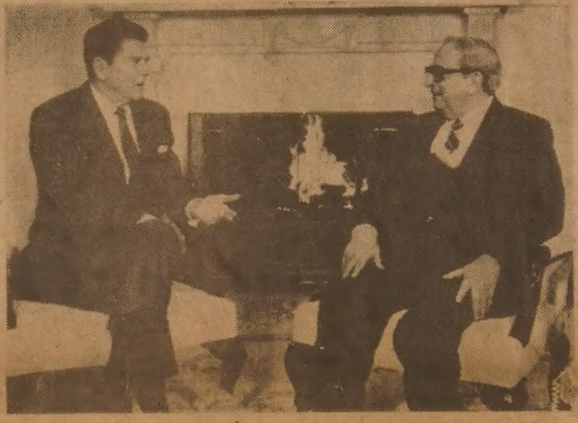
레이건대통령은 이날 상오10시(한국시간)에 가진 새해 첫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자신과 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 서기장간의 美·蘇정상회담이 필요하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한다고 말한뒤 『우리가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있다는 확신을 갖게되면 나는 美·蘇정상회담을 환영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실제로 정상회담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사전계획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레이건대통령은 자신의 재출마문제를 금년중에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으나 그 확실한 시기는 밝히지 않았다.

레이건대통령은 이어 국내 경제문제에 언급, 앞으로 美행정부의 재정적자를 줄여나가겠다고 다짐하고 그의 정부가 국방비의 지출을 지나치게 책정하고 있다는 비난을 일축했다.

그는 또 지난5월의 교황암살기도에 소련과 불가리아가 관련돼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탈리아수사당국의 발표를 확신한다고 말했다.



◇레이건 「이」大統領과 회담 레이건美대통령이 5일 백악관 집무실에서 訪美중인 이츠하크·나본 이스라엘대통령과 회담하고있다. 【워싱턴 5日 AP電=聯合】

不可侵 조약 나토에 제의

「바」機構 정상회담 閉幕

【프라하·빈=聯合】 바르샤바조약기구 7개국지도자들은 5일 미국과의 유러미사일 감축협상에서 소련의 입장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둔 정치선언문을 채택하고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대해 불가침조약의 체결을 제의했다.

유리·안드로포프 소련공산당서기장을 비롯한 7개국 黨·政지도자들은 이날 이틀간의 정상회담을 마치면서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의하고 이를 동서간의 『새로운 평화방안』이라고 강조했다.

체코관영 체테카통신을 통해 발표된 공동코뮈니케는 바르샤바조약기구의 「정치협의위원회」란 공식명칭을 가진 이번회담에 참석한 7개국 黨·政지도자들이 自國외상들에게 빠른시일내에 불가침조약체결계획을 마련하기위한 실무작업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

나토에대한 불가침조약체결 제의가 포함돼있는 정치선언문은 아직 발표되지않고 있는데 정통한 소식통들은 이 선언문이 6일에 발표될 것 같다고 말했다.

체테카통신은 바르샤바조약기구지도자들의 불가침조약체결제의가 나토회원국뿐만 아니라 세계의 모든 국가들이 참여할수있도록 개방될 것이라고 전했다.

동구측이 서방측에 대해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의한것은 이번이 세번째로 지난58년5월 모스크바에서열린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에서 이와비슷한 제안이 나왔으며 63년2월 제네바군축회담에서도 소련이 그동맹국들의 지지를 얻어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의했었다.

정치분석가들은 동구권의 이러한 제의가 나토측에 의해 거부돼왔다는 전과 동서양대진영의 긴장관계로 보아 이번의 제의도 성공을 거둘것같지는 않다고 전망했다.

3黨 대표 오늘 會同

民正黨의 李載濚대표위원과 民韓黨의 柳致松,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는 7일저녁 新年인사를 겸한 모임을 갖고 정치현안문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李民正대표의 초청으로 새해들어 처음 會同하는 3黨대표들은 1월하순에열릴 제1백15회 임시국회문제와 새해政局의 추이및 국회에 계류중인 정치議案 처리문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것으로 보인다.

社會漫評

정신좀 차리려나?!…

入試출제·定員등 學事업무

總學長協議기구서 관장

民正、文敎部와 곧 협의키로

民正黨은 현재 문교부에서 주관하고있는 入試出題,관리, 입학·졸업定員문제등 대학의 제반學事업무의 협의決定權을 앞으로 대학총학장들의모임인 「大學敎育協議會」 또는 기타類似협의기구가 관장토록하는방안을 검토중이다.

朴銓鋈정책조정실장은 6일 『지금까지 대학의 學事문제에 문교부가 일일이 간섭함으로써 대학의자율운영 과정에서 대학의자율적인 의사와 여건의반영이 다소배제되어온것이사실』이라며 『대학의 學事업무를 보다합리적으로 운용할수있도록 각대학및 교육전문가로 구성되는협의회를만들거나 既存의 「대학교육협의회」에 학사문제의 협의결정권을 移管시키는방안을 문교부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黨의 다른정책관계자도 이같은 방침에따라 協議會에서는 ▲대학入試의 前後期조정 ▲대학정원및 學科 新·增設 ▲대학간 교수交流 ▲學點교환및 상호인정 ▲대학간 시설공동활용등 대학교육제도 전반에걸쳐 각대학의 의견을종합, 결정사항을 자율적으로 시행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에따라 民正黨은 금년도 入試업무가 끝나는대로 조만간 協議會기능 활성화방안을 확정, 협의회내에 分科委등 실무를 뒷받침하기위한 기구확대를 지원할 계획인것으로 알려졌다.

全대통령、財産등록

◇全대통령

全斗煥대통령은 깨끗한 정치와 신뢰받는 公職풍토확립을 위해 올해부터 공직자재산등록제가 실시됨에따라 등록대상자 가운데 첫번째로 6일상오 총무처에 재산을 등록했다.

全대통령의 재산등록서류는 이날상오 咸秉春대통령비서실장이 총무처장관실에 제출, 朴贊兢총무처장관이 접수했다.

全대통령이 제1착으로 공직자재산등록을 마침에 따라 입법·사법·행정부등 1단계 등록대상 공직자들이 잇달아 재산등록을 할것으로 보인다.

商議人事會에 참석

全斗煥대통령은 6일 하오 대한상공회의소가 新羅호텔에서 마련한 新年人事會에 참석, 참석자들과 함께 「어려워지는 국제환경과 우리의 對應」이라는 제목의 녹화필름을 관람한뒤 환담을 나눴다.

이날 新年人事會에는 3府요인 정당대표 軍고위장성 각계대표와 駐韓외교사절등 1천2백여명이 참석했다.

民韓 全黨대회 2월中旬 전후

柳종재 밝혀

【大邱=李成俊기자】 民韓黨의 柳致松총재는 6일 『전당대회는 2월중순을 전후해 갖게될것이며 그때 대회장은 서울世宗문화회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柳총재는이날 大邱東·北區 및 南·壽城區지구당 개편대회에 참석, 이같이 말하고 『정치被규제자에대한 解禁조치가 오는 봄쯤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회의원선거법과 대통령선거법의 개정을촉구, 『이러한 兩大선거법의 개정없이 平和的정권교체는 실현될수 없으며 民韓黨은 금년말이나 늦어도 내년초까지 공청회등을 열어 각종선거제도에 대한 黨의 代案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藥大에 漢藥科신설

藥事法 개정안제출

白南基의원(新社)등 民韓·국민黨과 議政同友會소속의원 21명은 의약품과 漢藥의 정의를 명확히구분시키고 既存藥學대학내에 漢藥學科를신설, 그졸업자중 국가시험에 합격한자에게 漢藥師의 자격을주도록하는것을 골자로한 藥事法개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佛紙들 보도

미테랑 5월 訪韓

【파리=安炳璨특파원】 프랑스·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오는5월 한국을 공식방문할것이라고 프랑스신문들이 보도했다.

프랑스의 르·몽드紙는 미테랑대통령의 한국방문과 관련, 한국관계특집기사를 준비중이라고 밝히고 프랑스에 진출한 한국업체에 공한을보내 광고청탁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한편 르·몽드紙의 자매지인 월간르·몽드·디플로마티크도 한국에 관한 특별르포를 기획하고있다고 밝혔다.

9개 有故地區黨 국민당 職代임명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는 6일 18개 有故지구당중 서울 鍾路·中區등 9개有故지구당에 대해 職務代行을 다음과같이 임명했다.

▲鍾路中區=秋順植 ▲江西=崔厚集 ▲永登浦=金晃祿 ▲銅雀=高貞穆 ▲仁川中=朴鍾薇 ▲安養=金宗豊 ▲原州=元慶鎬 ▲山淸=梁甲容 ▲濟州=洪性林

島嶼·벽지電化재개

올해 2천8백家口

정부와 民正黨은 79년이래 중단되고있는 農漁村電化사업을 재개키로 하고 우선금년중으로 전국 5만7천호의 島嶼·僻地의 未電化가구가운데 2천8백가구에 전기를 가설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정부와 民正黨은 금년중 10戶이상모여있는 집단부락과 韓電의 전기가 들어갈수있는 섬으로 戶當공사비가 1백20만원이하의 마을을 대상으로 83년도 예산의 자금관리 특별회계에 계상된 30억원을 투입, 電化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地平線

80년10월10일이었다. 全斗煥대통령은 처음으로 공직자재산등록제를 검토하라면서 正義社會구현에는 『高位指導層의 솔선수범이 따라야 한다』고 강조했었다. 아울러 『正義社會가 구현될때까지 정신개혁을 국민운동으로 승화발전시켜야 한다』고도 역설했다. 요즘 한창진행중인 公職者의 재산등록은 바로 그 正義社會구현의 한방편이라 할것이다.

▼『正義』를 아리스토텔레스는 『各自가 제것을 가지는것』이라고 정의했다. 즉 모든 사람이 고루 고루 자기 分數대로 가질것을 가질수 있는 상태를 가리켰다. 東洋에서는 극히 倫理的으로 이를 파악하여 『最高善』을 지향한 행위를 正義라고 했다. 이 최고선은 萬人이 모두 이의없이 인정할수 있는 가치 목표였다.

▼公職者 財産登錄의 참 뜻도 바로 이런데 있다. 나라마다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公職者財産登錄을 실시하고 있는데서는 어떤 형태로든 公職者가 가질만큼 가지고, 차지해서 안될 몫은 차지하지 못하도록 장치한다는데에 그 실시 목적을 두고 있다. 우리가 새해들어 公職者倫理法의 발효, 실시와 함께 우선 次官級이상 대상자 7백명의 財産登錄을 실시하고 있는것도 뜻과 목적은 같다.

▼6일에는 全斗煥대통령이 行政府내 「倫理委員會」에 소정의 재산등록을 마쳤다. 이나라 국가원수로서는 처음 있는 일이며 그것도 「제1착」으로 등록을 이행한 것이다. 이 역사적 사실은 곧 改革과 正義구현을위한 강렬한 意志를 그대로 나타낸것임에 틀림 없다. 「正義」는 제5공화국의 최고지표이자 全대통령 자신의 政治哲學임을 한번더 실감케 한다.

▼지금 국가원수를 포함하여 公職者에게 財産등록을 이행케하는 特別法을 가진 나라는 세계에 상당히 있다. 美國, 自由中國, 싱가포르에서는 이法이 엄격히 시행되어 실효를 크게 거두고 있다. 하나 필리핀, 인도네시아, 泰國등에서는 별다른 效를 못보고 있다는 소식이다. 또 西歐諸國은 거의 特別法이 없지만 그래도 공직자의 부패, 부정행위는 매우 엄격히 다스려져 근절되다시피 돼 있다.

▼필리핀의 경우, 故막사이사이 대통령이 公務員부정 방지를 위해 재산을 솔선공개하여 한때 不正 행위가 줄었으나 그의 死後 다시 기강이 흐트러져 졌다는 말이 들려오고있다. 泰國에서도 단놈 首相때 腐敗防止委가 설치되어 淨化를 서둔바 있었다. 하나 기능약화와 함께 점차 부패를 묵인하는 풍조가 생겨난모양이다. 그러고보면 正義社會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거나 어떤 制度가 수립된것만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게한다. 意志와 끈기가 있어야 능히 이를 실현시킬 수 있다는 초점을 公職者財産등록에 조응하여 되새겨 봐야겠다.

한국일보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은퇴
부동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 각종보석
▲ 다이야몬드 품질보장
▲ 최저가격
▲ 뉴디자인
▲ 보석개조 교환매매
▲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한국일보 모든광고 접수합니다 533-2361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한국일보 533·2361

어디에도 비교될수없는
저렴한 가격과
아담한 분위기속에서
고객을 맞이하고있아오니
한번쯤 들려보십시요!

내고향통닭집
☎ 537-0432 매니저 배

오뎅백반	$2.95
칼국수	$2.95
우동	$2.95
짜장면	$2.95
김밥	$2.50
통만두	$2.95
곰탕	$2.95
비빔밥	$2.95
불백	$4.95
갈비백	$4.95
생선찌게백	$3.75
두부찌게백	$3.25
만두국	$2.95
떡국	$2.95
떡만두국	$2.95
된장찌게백	$3.25
순두부찌게백	$3.25
통닭	$4.95
1/2 닭	$2.95

658½ BLOOR ST. W.

日나까소네首相 訪韓의 背景

국민次元의 깊은 理解로 韓·日「새方向」뚜렷이

日처음으로 積極자세 외교적 유연성의 調和

【東京=宋孝彬특파원】日본정계는 나까소네(中曽根)수상의 訪韓이 전격적이고 은밀히 결정된데대해 놀라움이 가시지않고있다.

5일상오두나라정부에의해 나까소네수상의 방한이공식발표된뒤 야당은「철새內閣」「일하는內閣」이란 풋말을 달고 출범한 나까소네내각의 첫나들이가한국이란데 놀랐으며 그방문시기가 訪美일주일전 이라는데 또한번 놀랐다.

아스까다(飛鳥田) 사회당 위원장은 나까소네수상의 방한이 전격적으로 결정된것은 韓美日 군사동맹관계를 강화하려는데 그목적이 있다고 비난하기도했다.

어쨌든 나까소네 수상이 訪美전 訪韓을 결정하게 된것은 수상자신의 적극적인 결단에 의한것이긴 했지만 한국의 개방정책에의한 외교적 유연노선이 조화된 결과였음이 틀림없다고 이곳 외교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나까소네수상 訪韓의 직접적계기는 작년11월30일 나까소네수상이 취임인사차 全斗煥대통령에게 전화회담을 한데 있었다.

나까소네수상은 그때「기회가 있으면 全대통령을만나고싶다」고 수뇌회담을 제의했고 이에대해 全대통령이「韓日관계를 보다높은차원으로 끌어올리기위해 相互 협력하고싶다」고 대답한것이 韓日수뇌 회담을 발전시킨 직접적인 계기가 된것이다.

全대통령과 나까소네수상과의 전화회담을 기점으로 경제협력문제가 급진전되었고 나까소네수상의 오른팔格인고또오다(後藤田)관방장관과 民正黨의 權翊鉉사무총장이 한국과 東京을번갈아 왕래하면서 최종마무리를 지었다는게 수뇌회담성사의 裏面이다.

나까소네수상은 당초 아베(安倍)외상이 經協타결차 한국을 방문하겠다는 제언을하자「내가 직접 가는것이 어떤가」고 방한의사를 밝혀 韓日수뇌회담의 성립을 위해 적극적자세를 취했다는 것이다.

한국측도 작년 12월30일 李範錫외무장관이 마에다(前田)駐韓일본대사를 불러 원칙적으로 수상의 訪韓을 받아들이는 한편 經協조기타결을 통고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나까소네 訪韓이 확정됐다.

이와같은 韓日간 긴밀화에 대해 自民黨은 韓日간의 새로운 전기라고 긍정적 평가를 하고있으나 사회당을비롯한 야당들은 韓美日의 안보강화를 강조하는것으로 경계해야 할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각 야당은 나까소네내각이 은밀히 추진한 韓日수뇌회담은 韓美日 군사동맹을 추진하려는 정치적 시도이며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것이라고 주장하고있는것이다.

이들 야당은 나까소네수상의 訪美전 訪韓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으며 은밀한 외교교섭의 결단은 日본부담을 가져오게됐다고 비난하기도했다. 그렇지만 나까소네수상은 이번기회에 일본수상으로서는 한국을 처음으로 공식방문, 韓日수뇌회담을갖고 처음으로 韓日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공동성명의 내용은 일본의 과거에대한 반성과韓日우호협력을 재확인하고 東아시아의 평화와 안전을 위해 한반도 평화유지가 중요하다는점을 재강조할것으로 보인다.

韓日양국은 지난65년2월 국교정상화에 앞서 공동코뮈니케를 발표한바 있으나 수뇌회담을 통한 공동성명 발표는 없었기 때문에 이번에 채택되는공동성명은 새로 전개될 韓日관계의 내용과 방향을 뚜렷이 제시한다는점에서 큰 변혁이 아닐수없다.

◇西方결속과 自衛강화를 결의한 나까소네… 【日本朝日신문】

韓半島 평화유지 중요성 強調 "經協통해 韓國발전기여" 제시

6일현재 전해진바로는 이번의 공동성명에서는 과거의 관계를 유감과 깊은반성을 표시한 65년공동코뮈니케정신을 바탕으로 ▲국민차원의 이해를 깊이함으로써 새로운우호관계를 발전시킨다는점을 강조하고 ▲韓日두나라가 안전보장상 긴밀한관계에있음을 확인하며▲經協을 통해 일본이 한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결의를 밝히는것으로 되어있다.

일본이 그들자신의 과거에대해 明文化했던 사실은 65년의 코뮈니케에서『과거의 관계는 유감스러웠으며 깊이반성하고있다』는 내용과 지난해8월 일본교과서 歪曲사태때『과거에 있어서 일본의 행위가 한국, 中國을 포함한 아시아국민들에게 큰고통과 손해를 주었다는점을 깊이자각하고 이같은 일이 두번다시 되풀이되지 않도록한다는 반성과 결의를 밝힌다』고했던 내용들이었다.

어쨌든 이같은 일부야당측의 비난과는 달리 방한일정발표 하루뒤인 6일字 일본의 5大일간지들은 일제히 社說을 통해 나까소네의 전격적 訪韓이 냉각된 韓日관계개선에 새로운 국면을 열게할것이라고 이를 환영했다.

요미우리(讀賣)신문과 산께이(産經)신문은 나까소네의 訪韓을 계기로 韓日양국수뇌가 가벼운 마음으로 왕래할수있는 분위기가 성숙되기를 바라며 民間은 국민적교류로 韓日우호친선에 새로운 기반이 구축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일본의 정객및 언론계 일부에는 안보문제에 대한 일본국민의 알레르기반응등을 감안, 이번에 채택될 공동성명에서 일본측은 가능한한 안보관계에관한 표현을 완곡하게 할것으로 보고있는가운데 외무성의 한소식통은 나까소네수상이 방한때 全대통령의 日本방문을 초청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나까소네수상의 방한이 전격적으로 발표된데대한 각계의 놀라움속에 그간의 경위가 밝혀지고 시간이흐름에따라 이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대부분의 일본국민들은 이번기회에 두나라사이의 장벽이 깨끗히허물어지고 새로운 발전의계기가 되기를기대하고있다.

의혹짙은 "宣傳戰"

—바條約機構의「不可侵 제의」속셈

유럽등 西方「反核운동」에 편승 나토分裂·새核배치 취소 노려

체코의 수도 프라하에서열린 바르샤바 조약기구 7개국정상회의가 5일 이틀간의 회의를 마치고 폐막됐다. 동유럽 공산7개국 정상들은 폐막과 함께 발표된 정책선언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회원국들을 향해 불가침조약체결을 제안했다.

이번 바르샤바 조약기구정상회의는 동구권의 종주국인 소련에서 유리·안드로포프체제가 출범한이후 처음 열린것이어서 서방국가들에게 비상한 관심의 대상이되어 왔다.

비록 불가침조약 체결제안이 새로운 제안은 아니지만 지난해말 소련건국60주년기념연설을 통해 안드로포프가 서방에대해 핵무기감축을 제안한데 이은 또하나의 對서방 평화공세란는데서 눈길을 끌고있다. 이번회의가 철저한 비밀회의였던 만큼 정확히 어떤 내용들이 논의되었는지는 알수없다.

폐막성명은 동구의 지도자들이『복잡한 국제상황과 관련, 유럽에서의 여러 사태들을 재검토했으며 기타 국제문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지극히 애매한 투로 시작되어『핵전쟁을 피하고 무기경쟁의 중단, 데탕트(화해)의 유지강화, 안보의 공고와, 정치체제가 다른 국가들과의 협력증진등을 위한 조처들을 논의했다』고 그윤곽만을 비치고있다.

불가침조약체결에 관한 공동성명의 내용은『동구정상들이 자국외상들에게 다음번 정기외상회의에서 불가침조약체결을위한 작업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표현돼있다.

체코의 관영 체테카통신의 논평기사는『대량의 파괴수단을 갖고있는 동서간에 불가침조약이 체결되면 치명적인 전쟁의 위협은의심의여지없이 감축될것이다. 만약 나토국가들이 그들이 늘 주장하듯 전쟁의사가없다면 조약체결을위한 협상에 즉각응하지않을 이유가 없을것이다』고 한껏 부추기고있다.

이번의 불가침조약 체결안은 소련에의해 제안된것으로 보아 무방하다. 소련의 안드로포프는 지난달 소련은 동구에배치한 핵미사일을 영국과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와 같은수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철거하겠다고 제안했다. 그의 이같은제의는 유럽에서 소련의 核우위를 계속유지하기위한 속셈에서 나온것이라는이유로 미국등 나토회원국들에의해 거부됐다.

안드로포프의 제의가 뜻하는 것은 나토의 새로운 미사일배치계획을 취소시키자는 것. 나토회원국들은 금년안으로 유럽에 5백72基의 중장거리 크루즈및 퍼싱Ⅱ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다. 이것은 소련의 최신형SS20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소련은 3백33基의 SS20핵미사일을 동유럽에 배치하고 있으며 이중 3분의2는 서유럽을 겨냥하고 있다.

미국은 소련이 이미 배치하고 있는 이 미사일을 철거하지 않은채 유럽배치미사일을 현수준으로 동결하자는것은 소련이 核우위를 누리겠다는 얘기가 될뿐이라고 맞서고 있다.

따라서 소련이 기존의 미사일을 먼저 철거하지 않을경우 미국도 核미사일배치계획을 밀고나갈 방침이다.

이같은 서방측의 반응에대해 소련은 미국이 핵미사일배치계획을 강행할 경우 그것은 유럽에서 미국의 核우위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소련으로서는 이를 좌시하지않겠다고 다짐하고있다.

이같은 동서간의 엇갈린주장을 협의하기위해 이달말께 제네바에서 美蘇핵무기감축협상이 재개된다.

일단 기선을 제압하고있는 소련으로서는 맘껏 對서방평화공세를 펼수있는입장이다.

이같은 宣傳戰을통해 소련은 나토동맹국간의 분열, 미국과 유럽의 이간등을노리고 있다. 소련의 평화공세는 또 미국의 유럽에대한 미사일배치를 반대하고 미국내의 핵무기를 동결시키려는 유럽및 미국내의 평화운동에 초점을 맞추고있다.

안드로포프는 바르샤바 조약기구정상회담후 체코의 공산당기관지 루데·포라보와의 회견을 통해『나토동맹국들의 전쟁준비를 관심있게검토했다』고 밝히고『동구국가들은 이같은 위협에대처하기에 충분할이만큼 강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동구권지도자들이 동유럽의 안보를 점차 강화하고 세계의 정치정세를 개선하기위해 충분한 善意와 決意를 갖고있다』고 어조에 적절히 強穩을 구사했다.

나토동맹국들은 소련이 취하고 있는 일련의 평화공세에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불가침조약체결제안에대해서도『제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밝혀질때까지 기다려보겠다』는 조심스럽고 차분한 반응을 나타냈다.

서독의 한스·디트리히·겐셔외상은 이제안을 신중히검토하겠지만 소련은 이런 제안에 앞서 아프간에서의 무력사용을 중단하고 다른 공산국들에대해 간섭을 하지말아야 할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있다.

안드로포프의 평화공세는 최근 아프간사태를 둘러싸고 그가보여온 태도와 관련, 이미 서방측으로부터 의혹의대상이 되고있다.

그는 당서기장 취임초 아프간사태에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였다가 한달도안돼 강경자세로 표변, 그의 眞意와 선회는 물론 그의 권력기반에대해서조차 의혹을 사고있다. 【林鍾乾기자】

◇바르샤바조약기구의 首腦들 5일 프라하에서 폐막된 바르샤바조약기구 정상회담에 참석한 7개회원국 수뇌들. 왼쪽으로부터 야노스·카다르(헝가리)、토도르·지브코프(불가리아)、니콜라이·차우세스쿠(루마니아)、보이체흐·야루젤스키(폴란드)、유리·안드로포프(소련)、구스타프·후사크(체코)、에릭·호네커(東獨)。【프라하5日UPI聯合】

메아리

술내기

내기를 걸었다.

올 학력고사에서, 3백점이상의 고득점자가 몇명이나 되겠느냐」。

학력고사가 막 끝나고, 3백점이상이 작년의3배 2천4백명은 되리란 보도가있은 얼마뒤다. 내기상대는 입시사정을 익히 알만한 동료였다.

그는 신문에 난 대로가 맞으리라고했다. 나는 6천4백명을 걸었다. 지나가는 말처럼,『술내기야』『좋아』이렇게해서 내기가 성립되었다.

내기는 물론 내가이겼다. 6천3백78명이란 숫자를 보며 그는 [illegible] 한마디 했다. 무슨 시험이 이래?

따지고 보면, 내가 내기를 이긴것은 나이 탓이다.

나이가 들면서, 주변에 大入또래 자녀를 둔 친구가 늘어 난다. 늘은 정도 따라서 많아진다. 시험이 끝난뒤에는「家庭問安」전화도 걸게 된다.

그러노라니, 고득점 사태가 쉬 짐작간다. 학교마다 고득점자가 작년의 몇배가 되느니, 班마다 몇등까지가 3백점이상이라느니 하는 말이 들리는 것이다. 그런 말에서 어림 짐작되는 倍數가 7~9。그 중간을 잡아 8×800=6400。

이렇게 공술은 따 놓았으나, 씁쓸하기는 나도 마찬가지」。신문들을 보자, 나도 모르게 말은 많이「敗者의 辯」과 같았다. 무슨 시험이 이래?

도대체가 시험은 학력을 재자는 것이다. 문제가 너무 어려워도 안되고, 너무쉬워도 안된다. 누구의 말처럼「쉬운출제」라야 고교교육이 정상화 되는 것도 아니다.

예년의 일이지만, 수석 합격의「英雄」들은 남달리 공부를 많이 한 학생이 아니다. 적어도 신문에는 그런투의 체험담이 실린다. 올에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고2까지 고3과정을 모두 떼다. 나머지 1년은 오로지 입시를 위한 복습기간이다. 그들은 아침 7시께 등교하여 자습한다. 방과후에는 밤10~11시께까지 학교도서실에 남아 공부한다. 하루 13~14시간의 강행군이다. 대단하다 싶지만, 결코 平均이상은 아니다.

문제는 平均에 가까운 이 시험공부의 強度다. 작년 여름 문교부가 쉬운 출제를 예고하고 그대로 실천했는데도 이러니,「쉬운 문제」로 고교가 정상화된 것같지는 않다. 그렇다고「더 쉬운문제」를 내면 무슨 수가 날까.

「쉬운 문제」는 시험공부의 양상을 바꿀지 모른다. 그러나 그 強度를 떨어뜨리지는 못한다. 그 결과로 희한한 全科目滿點에다 고득점이나量産하고, 입시창구의 우왕좌왕만 더한다. 그리 되면 고교교육은 지금대로 인채, 학력고사의 선발기능만 엉망이된다. 뻔하다면 뻔한 일이다.

그래서 아쉽기는「쉬운문제」가 아니라「바른 문제」다. 그것은「어려운 문제」이긴하지만, 풀기가 아니라 출제하기가「어려운 문제」다.

우리 학력고사와 비슷한 미국의 大入適性시험(SAT)도 출제가 바른지의 시비가 따른다. 그 시비중 두드러졌던 것이 시험공부—課外지도로 득점을 10점이상 올릴 수 있다는 학계일각의 연구보고였다. 시험을 주관하는 敎育試驗서비스(ETS)의 反論으로 시비는 가라앉았지만, 이논쟁은「바른 문제」가 무엇인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시험공부가 통하지 않는 문제이면서, 선발기능을 다하는 문제다.

이 適性시험에 얽힌 또 한가지 시비는 문제의 공개여부였다. 소비자단체에서 들고 일어나고, 여러州의 州法이 공개를 요구해도 ETS는 막무가내. 이유인 즉 문제를 공개하자면 더 많은 문제를 마련해야 하는데, 그 추가비용이 엄청나기때문에 民間베이스인 ETS로선 감당할길이 없다는 것이었다.「바른 문제」를 내자면 그만한돈과 품을 들여야 한다는 얘기다.

바로 SAT는 아니지만, 나도 ETS의 시험을 치본 경험이있다. 그때 점수와 관계없는 문제지가 따로 나왔다. 實驗문제였다. 문제가 適正한지, 쉬운지, 어려운지를 시험해 두자는 것이다.「바른 문제」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한 준비와 연구가 있어야한다는 예증이다.

고득점 사태를 보면서 생각하는 한가지는「바른문제」의 어려움, 그리고 문교부가「풀기쉬운 문제」와「출제하기쉬운 문제」를 혼동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그렇지 않고는 문교부의 제2인자가 시험성적을 발표하기도 전에, 내년에는「더 쉬운 문제」를 낸다고 豪言할리가 없다.

제대로 하자면, 시험출제의 適正여부는, 大入절차가 다 끝난뒤 대학별 지원상황과 그 경향을 다 보고, 바람직한 학업성적까지 추적조사 해 보고나서야 제대로 평가할수가있다. 그것도 전문적인 연구를 거쳐야 옳다. 그런줄은 다 알텐데, 고득점사태·同點恐怖로 가슴철렁한 학부형들 들으란 듯이, 앞질러「더 쉬운 문제」를 들고 나올 까닭은 무언가. 이러니「바른 문제」를 기대하기는 글렀다.

하긴 그런 입시행정 덕에, 나는 공술을 얻어 먹게 되었다. 그래서만은 아니지만, 내년에도 또 내기를 걸 작정이다. 지금 생각같아서는, 다음 내기는 全科目滿點이 몇명이나 되겠느냐」가 적당할듯하다.「더 쉬운 문제」를, 낸다고 하는 입시행정이니까。

金昌悅 〈編輯委員〉

海外토픽

개 구하려다 慘變

★파도휩쓸려 5명희생

영국북서부의 휴양지인 블랙풀의 앞바다에서 5일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개한마리를 구조하려다 경찰관 1명이 익사하고 여자경관1명을 포함, 3명의 경찰관과 1명의 민간인이 실종된 희귀한 사건이 발생.

사건은 개를 구하려고 바다에 뛰어든 개주인이 폭풍우로 곤경에 처하면서 발생했는데 이를 발견한 경찰관들이 악천후때문에 구명정을 띄우지 못하고 개주인을 구조하기위해 역시 용감하게 직접 바다에 뛰어들었다가 모두 거센파도를 헤어나지 못하게 된것.

이곳 해안구조대 대변인은『너무나 악천후라 생존자가 있을 희망이 거의없다』고 말했는데 이날 저녁무렵부터 헬리콥터까지 동원돼 계속 수색작전을 펴고있다. 【블랙풀=AP】

대처아들 출연희망

★이스라엘 映畵제작자

메나헴·골란이라는 이스라엘의 한영화제작업자는 사하라사막을 가로질러 경주하는 자동차경주를 소재로한 영화에 대처영국수상의 아들인마크·대처군(29)을 주연으로 출연시키기를 희망하고있다.

영국의 일간 미러紙는 골란씨가 대처수상으로부터 대처군의 영화출연승낙을 얻어낼 심산으로 최근 이스라엘로부터 영국에 급거 입국했다고 보도했다.

1천만달러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이 영화는『젊은이의 우상』으로 불리는 미국의 인기여배우 브루크·실즈양이 주연으로 출연하는데 5일부터 이스라엘에서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런던=AP】

廣東省등 포르노붐

★中共, 重刑으로團束경고

중공당국은 포르노(도색물)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앞으로 포르노를제작, 밀반입 판매하는사람에게 중벌을 내리고 이를 보는 사람에게도 최고 3천元(1천5백달러)의 벌금형을 내릴것이라고 경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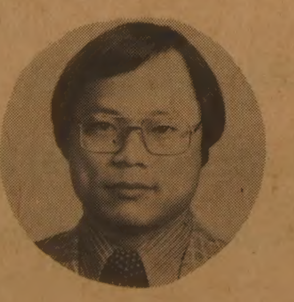
중공당국에 따르면 포르노물 제작·운송·판매하는 사람들은 외설물 단속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것이며『범죄를 구성하지않으나 죄가있는 사람들』은 농장에보내져 재교육을 받게될것이라고하는데 중공에 포르노가 가장 범람하는 지역은 홍콩과인접한 廣東省이라는 것. 【北京=AP】

◇80년 미스월드 산토스孃… 愛人은 悲觀자살

1980년 미스월드 킴벌리·산토스孃(21·사진)의 애인인 프랑스와·레이즈君(26)이 4일 킴벌리양과 떨어져 지내게된 것을 비관한 나머지 총을 쏘아 자살했다. 프랑스 수영대표 선수이기도 했던 레이즈군은 현재 하와이대학에서 수학중인데 일본에서 모델로 활약중인 킴벌리양이 휴가를 마치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게 된것에 낙담하고 있었다는 것. 【檀島=UPI】

엄마 말이 맞구나!

"괜찮아요. 그냥 갈래요."
"얘는……혹시 비가 올지 아니? 귀찮더라도 우산 가져 가렴. 비가 오지않더라도 준비는 해 둬야해!"



조 규혁
(R)745—8236

강 경범
(R)279—7774

☎ 233～6236

- R.R.S.P(연금보험)
- WHOLE LIFE
- TERM LIFE INSURANCE
- 양로보험
- 모기지보험
- 자동차보험
- 상점·주택 화재보험

SOVEREIGN LIFE ASSURANCE COMPANY
A MEMBER OF THE CASCADE GROUP
Cloverdale Mall - Office Area
250 The East Mall,
Islington Ontario

大入학력考査 高得點사태에 大學들도 苦心

각종 奬學金확대·同門시켜 誘致작전

同點者 처리규정에 새조건 5~6개추가

우수학생확보…未達방지…同點者처리

대입학력고사 사상 최고로 상위권득점자가배출되자전국의 전기대학들이 우수학생확보와 미달방지、동점자 처리등에 크게 부심하고있다.

각대학들은 상위권득점자 (2백50점이상) 가 지난해에비해 무려3·6배에 달하고 동점자가 많기때문에 수험생들사이에「눈치 또는 배짱지원」현상이 크게 늘어날것으로 보고 있는것이다.

이에따라 서울大、高大、延大、西江大、梨大、淑大등비롯한 전국의 전기 대학은 장학금 규모를 확대해 우수 학생 유치책을 펴는가하면 학력고사성적 (내신포함)과 면접등 2가지 기준에의해 사정했던 동점자 처리규정도 올해에는 크게 늘려 재수여부、지원학과와의 관련과목성적、 면접등을 추가、5~6가지나 마련해놓고있다.

또 일부대학에서는 전국순위 1천등이내의 학생들이 지원할경우 무두 장학금을 주겠다는 조건을 내걸기도했으며 동문、선후배등을 동원、우수학생확보를 위한 새로운 홍보작전에 들어갔다.

서울大의경우 우수학생확보에는 문제가없다고 보고있으나 지난번눈치 또는 배짱지원으로인한 미달과 발생방지에 부심하고있으며 동점자처리규정도 새로이 마련해놓고있다.

그러나 여타대학들은 지난해의경우 3백점이상 고득점자중 91·7%를、2백90점이상자중 85·7%를 서울大에 뺏기고 중위권내지 중하위권의 학생들은 미달사태까지 빚었던 쓰라린경험을 되풀이하지않기위해 안간힘을 쏟고있다.

지난해 2백95점이상의 고득점자가 5명에 불과했던 高大는 올해 재학생들로하여금 출신고를 찾아 학교를 소개하는식으로 우수학생유치에 나서고있다.

지난해 입시에서 인기학과인 경영학과와 의예과의 예상커트라인이 50점이나 떨어졌던 延大도 교수와 동문을 활용、우수학생을 지원시켜줄것을 호소하고 있다.

成大는 우수학생 유치를위해 각종장학금의 수혜폭을 대폭늘리기로했다.

外大는 또旺門장학금、外門장학금、龍仁캠퍼스입학상에 한해 전국순위 3만등 이내의 수험생에게주는 旺山장학금외에 2년간면제、1년간면제등 각종장학제도를 마련해놓고있다.

漢陽大도 학력고사 전국순위 1천등이내 학생에게 입학금과 등록금을 면제해주고 4년동안 매월25만원씩의 생활장학금까지 지급하는 특별장학생제도등 모두 7가지의 신입생대상 장학제도를 마련、우수학생확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한편 서울大는 입학사정에서 동점자의경우 ▲제1지망 ▲학력고사성적 ▲내신성적 ▲면접성적 ▲연소자등의 순으로 선발키로 확정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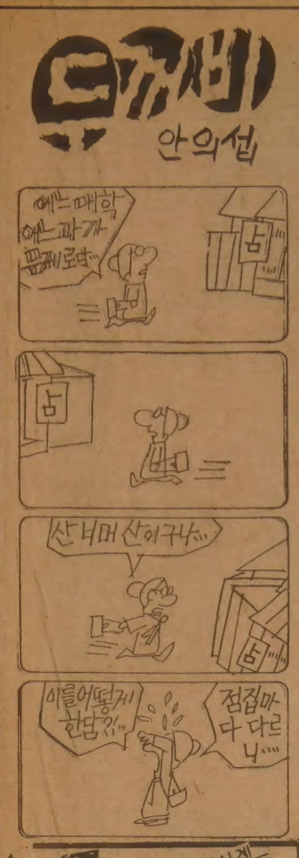
西江大는 82학년도를 기준으로 ▲면접성적과 ▲관련과목의 성적을 우선으로 동점자중 신입생을 선발할 예정이고 淑大는 ▲학력고사수석자 ▲학력고사동점시 자연계우선 ▲연소자순으로 선발한다.

慶熙大도 예년의 동점자처리규정인 ▲학력고사성적 ▲실기성적 ▲내신성적 우선선발외에 ▲고교최근 졸업자 ▲연소자 우선을 추가했으며 外大도 ▲학력고사성적 ▲고교출석성적 ▲연소자를 우선으로 동점자를 선발키로 했다.

漢陽大도▲학력고사성적우수자▲연소자우선으로 선발하되 특기생의 경우▲실기▲학력고사▲연소자순으로선발하고 弘益大는▲학력고사▲일반계열은 고교내신、미술계열은 실기성적▲연소자의 순으로 뽑기로 했다.

高大와 延大는 동점자사정원칙을 극비사항이라고 밝히지않고 있으나 원서마감전에 교수회의를 열어 우수학생을 선발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鄭在龍기자】

◇일선敎師 大入 작전회의 7일의 학력고사개별통지를 앞두고 일선교사들은 전략회의를 여는등 대입작전에 부심하고있다. (6일상오11시 培材고교)



트럭動員 소도둑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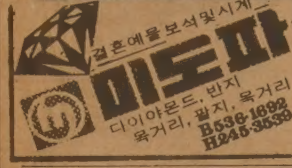
咸安등 3곳서 값오르자 30여가구 피해

【馬山】최근 소를 사육하는 농가가 크게늘어나고 소값이 오름세를 보이자 트럭까지동원한 소도둑들이 날뛰고 있다.

지난3일밤과 4일새벽사이에 경남咸安郡郡北面小浦里 김쌍석씨(52)의 4년생 암소 2마리 (싯가3백만원)가 도난당한것을비롯、咸安郡내에서만 지난해12월이후 소를잃은농가가 10가구에 15마리나되며 義昌郡에서도 7가구에 7마리、宜寧郡내에서는10여가구가피해를입었다.

이소도둑들은 주로 야간에 타이탄등 소형트럭까지동원、절단기로 축사문을 부수고 소를 끌어내 트럭에 싣고 고속도로를통해 도주하는 수법을 쓰고있다.

유축농민들은 고속도로등 주요도로에서 통행차량의 단속을 강화하는등 소도둑 예방조치를 취해줄것을 경찰에 요망했다. 【聯】



버스·택시충돌 6명死亡

沃川 언덕굴러 8명 重輕傷

【沃川】6일 상오 8시20분 忠北沃川郡東二面 細山里경부국도에서 大田을 출발 永同으로 가던 大田통신교통 소속 충북5아3304호 직행버스(운전사 柳志雨·33)가 마주오던 충북 1바7740호 개인택시(운전사 金在鳳·39)를 들이받고 그대로 끌고가다 2m 언덕아래로 떨어지면서 택시를 덮쳤다. 이사고로 金씨와 승객김차랑씨(42·충북沃川郡伊院面伊院里)를 포함 모두 6명이 그자리서 숨지고 버스승객 8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날 사고는 버스운전사柳가 앞지르기를 하려고 과속으로 차를몰다 15도가량의 커브길에서 급브레이크를 밟는순간 차체가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반대편차선으로 들어서 가로수를 들이받고 맞은편에서 오던 택시를 받아 일어났다.

사고버스가 개인택시를 들이받은순간 개인택시가 버스밑에 깔리면서 30m가량을 끌려가다 높이2m가량의 언덕으로 떨어졌다.

부상당한 버스 승객 입게

◇택시를 밑에 깔채 언덕아래로 떨어진사고버스. 택시는 형체를 찾아볼수도없다. 【沃川=聯】

"최저生計費 보장을"

勞總 획일적 賃金인상률결정 무의미

한국노총 (위원장 金東人) 은 6일 근로자의 최저생계비확보와 한계이하의 저임금상을위한 기본방침을밝혔다.

한국노총은 최저생계비에 미달되는 저임금근로자에 대해 우선적으로 최저생계비를 유지할수있는 수준까지 임금을 인상해주고 10만원미만인 한계이하의 저임금근로자에 대해서는 단신근로자의 최저생계비에서 주거비를 제외한 10만원이상으로 임금을 인상조정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임금인상은 물가상승을 감안、실질소득이 보장되도록해야하고 이와별도로 생산성향상에 따른 정당한분배가 실현돼야하며 학력간、남녀간、생산직과 사무직간의 임금격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한편 한국노총은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측이 밝힌 5~6%임금인상 주장에 대해『현재의 임금구조에선 획일적인 임금인상 결정은 무의미하다』고 말하고 노사간의 자율적인 교섭을통해 업종、업체의 실정에따라 인상폭이 조정돼야한다고 주장했다.

給料등 滯拂후도주 4개會社대표 手配

【浦項】노동부浦項지방사무소는 근로자들의 급료와 퇴직금을 체불하고달아난 동신삼규석광산대표 최기천、신우공업대표 정은택、태일기공대표 방찬호、조일산업대표、송선대씨등 4명을 근로기준법 위반혐의로 전국에수배했다.

6일 노동부 浦項사무소에 따르면 동고삼규석광산(蔚珍郡西面三斤里58의31)은 근로자65명의 4~5월분 급료 5백36만원、신우공업 (迎日郡大松面虎洞61)은 1백2명의 11월분 급료와 퇴직금등 모두 2천4백만원、태일기공 (浦項市龍興洞259의50)은 40명의 8~11월분급료 5백84만6천원、조일산업 (盈德郡江口面烏浦洞613)은 1백24명의 11월분 급료 2천3백만원을 각각 체불、해결이 어렵자 모두 달아났다는 것이다. 【聯】

"敎職者자녀 大入특혜 없애라"

文敎部 지시

문교부는 그동안 대학입시에서 교직자 자녀들에게 주어오던 특전을 없애도록 하라고 전국대학교무처장에게 지시했다.

문교부의 이같은 조치는 졸업정원제실시에 따라 모든 수험생이 엄격한 입시절차를 거쳐 대학에 입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교직자녀라는 이유로 특혜를 받는것은 입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난다는 여론에 따라 취해졌다.

示威주동한 女大生 집행유예 2년宣告

서울형사지법 沈明洙판사는 6일 전 梨花여대생 崔貞心피고인(22·사학과4년)에게 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위반죄를 적용、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崔피고인은 지난해 9월22일 정오께 교내 C동511호실 창문간에서 일본의 교과서 왜곡사건에 대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는 내용등의 유인물 1백여장을 뿌리며 시위를 주동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었다.

朱昌均피고 刑확정 어음사건 上告취하

李哲熙·張玲子부부어음사기사건과 관련、항소심에서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을 선고받고 상고했던 朱昌均피고인(61·전日新제강회장)이 구랍 24일 상고를 취하、형이 확정됐다.

"納稅者에 告知書안보내면 稅金부과는 無效"

서울高法 판결

서울고법 제2특별부(재판장 尹永哲부장판사)는 6일 이동호씨(충남 扶餘郡窺岩面 窺岩里130)가 서울東大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부가가치세등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납세 의무자가 전화통보나 독촉장으로 세금부과 사실을 알았더라도 세무서에서 직접 납세의무자가 살고있는 현주소로 세금고지서를 보내지 않아 이를 직접받지 못했다면 그세금부과는 무효』라고 밝히고『東大門세무서는 李씨에게 부과한 세금 3백64만원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李씨는 지난75년 2월부터 서울東大門區 淸凉里洞에서 진양상사라는 인삼제품업체를 경영하다 79년2월 사업부진으로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고 폐업했는데 李씨로부터 사업을 양수한 李편식씨가 세무서로부터 세금부과사실을 통고받아 이를 李씨에게 전화로 연락해주었으나 李씨는『납세고지서를 직접 송달받은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국세기본법에『납세고지서는 등기우편으로 납세의무자의 현주소지 또는 영업장소로 보내야하고 현주소나 영업장소가 바뀌었을경우엔 주민등록표를 추적、바뀐장소로 직접 송달해야한다』고 규정돼있어 문제의세금 부과처분은 무효』라고 밝혔다.

소요관련 서울大生 작년2백64명 징계

지난82년 한해동안 서울대학교에서는 소요사건과 관련、제적등 각종 학사징계를 받은 서울대생은 모두 2백64명인것으로 밝혀졌다.

6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학사징계내용은 ▲제적32명 ▲무기정학22명 ▲유기정학17명 ▲지도휴학26명 ▲근신1백67명등이다.

제적학생을 단과대학별로 보면 ▲사회대13명 ▲공대9명 ▲자연대3명 ▲인문대3명 ▲법대2명 ▲사대2명이고 소요시기별로 보면 82년1학기 7명、2학기16명、81년 전민련 무림사건과 관련된 9명등이다.

10代남녀2명 자취방서變死

【龜尾】6일상오8시께 龜尾市飛山洞102의 임선씨(28)집에서 자취를하던 구미 공단東明플라스틱직원 박하용군(19)과 애인 이희자양(16·龜尾市新坪2洞)이 박군의 자취방에서 숨진시체로 발견됐다.

경찰은 박군의방에서 극약을발견、이들이 자살한것으로 보고있다. 【聯】

麗川선 버스끼리충돌 死亡5·負傷31명

【麗水】5일 하오4시30분께 전남麗川郡雙鳳面鳳溪里月山마을앞 麗水-順天간 국도에서 麗水시내버스인 동양교통소속 전남5자1628호 버스(운전사 黃鶴奉·36)가 맞은편에서 오던 麗水여객소속 전남5자2039호 시내버스(운전사金正昌·34)와 정면충돌、승객 鄭基哲씨(55·麗川郡三日邑猪島里1774)등 5명이 숨지고 31명이 중경상을입고 麗水시내 차외과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琴湖호텔사건 朴씨 火災10일전 다녀가

【大邱】大邱琴湖호텔방화를 자백한 朴長壽씨(23)에 대한 증거보강수사를 펴고있는 大邱中部경찰서는 6일 朴씨가 琴湖호텔에 불을지르기10여일전에 이호텔을 다녀간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 호텔 주방장 김규원씨(49)가 얼굴에 상처가있는 젊은 안경을 낀 남자가 푸른색 상의와 모자를 쓴 전공차림으로 지난달 15일에서 20일사이 하오2시께 호텔1층 화장실입구 공중전화박스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는 진술에따라 朴씨와 대질신문한 결과 동일인임을 확인했다.

경찰은 이밖에도 朴씨가호텔방화당시 사용했다는 라이터기름통 판매처를 밝혀낸데 이어 신문지 5장은 朴씨가지난달 27일하오5시30분께 大邱市壽城區泛魚1洞82 범어천주교회 주일교실에서 훔쳐 상의안주머니에 넣고다닌 사실도 밝혀냈다. 【聯】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2361

博施

延世大 의무부총장 梁在謨박사

"삶의質위한 가족계획사업 本格化"

『길은 없다. 길은 인간이 걸어감으로써 만들어진다』고 한국의학의 거목인 梁在謨연세대의무부총장 (62·사진) 은 늘 후진들을 가르친다. 남이 많은「길」에 안주하려는 젊은이들에게 실험정신과 도전정신을 불어넣으려는 사자후다. 그가 후진들에게 뜨겁게 어필하는 이유는 그자신이 우리나라 보건의료계에 수많은 새로운「길」을 만들어왔기 때문일 것이다.

『시혜는 넓어야한다 (博施)』는것이 그의 일생을 지배해온 의료철학이라고 할수있다. 그는 60년대초에 사회보장제도의 시안을 보사부에 제출했었다. 그가 우리나라 의학계에서 선구적 역할로서 도입한 예방의학、국민의료、지역사회의료의 理想들은 모두다 이「博施」의 철학위에 기초한 것이었고 이 理想들은 지금 우리나라보건의료정책이 나가야할「길」로서 방향잡혀져있다.

그러나 梁부총장은 요즘 어렵고 험난한 또하나의「길」을 뚫어내려 하고있다. 그것은 그가 20여년간 이끌어온 가족계획사업을 본격화시키는것이다.

그는 61년 선진각국의 사회보장실태를 시찰하고 돌아온후 보건·의료·사회사업분야의 인사들을 규합、대한가족계획협회를 창설、지금까지 그 회장직을 맡아오고있다. 인구 증가를 둔화시키지 않고서는 사회보장도、의료보험도、경제건설이나 환경보전이나 어떠한 사회·경제정책도 성공적인 결실을 거둘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던 것이다.

가족계획이라면 피임기구를 보급하고 월경주기를 따지는등 말하기 거북스러운 노릇으로 아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梁부총장에게는「生命과 生活의 質을 수호하기 위한」숭고한 싸움이다. 生命의 質을 지키기위해 生命의 수를 제한함으로써「博施」의 理想에 접근할수 있으리라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梁부총장의 성품을「보스형」으로 평한다. 그의 영향으로 연세대 예방의학교실의 學統이 형성되어왔고 수많은 보건관리、보건학자들이 배출되어「博施」의 理想을 간직한 인맥을 이루고있다.

『일은 조직이나 예산으로 하는것이라기보다는 인간의 정성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梁부총장의 지론. 그는 후계자를 양성하는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결론짓고 있다. 【宋大洙기자】

Happy Holiday Season

韓國料理의 傳統을 이어

韓國的인 멋을 겸비하게 된 토론토의 명물

한국관

※이미 일류요리사 유숙명씨(중화요리 전문)가 일을 하고 있읍니다.

5주년 개업기념 봉사

83년 3월말까지 (단 토·일요일은 제외)

짜장면 $3.25
곰탕 $3.25
냉면 $3.25
비빔밥 $4.00
육계장 $4.00

영업시간 : 오전10시—새벽1시까지

년말파티 예약 접수중 ,동창회,결혼피로연,
환갑잔치등 각종모임, 단체손님 대환영

대표 나 옥녀

628 BLOOR ST. WEST, TORONTO

531-0277

17일 300일 強訓돌입

종합訓鍊계획 확정 27개종목 5백22명 참가

88서울五輪대비 新人 5천명 발굴
弓道훈련장·다목적 體育館등 신축

대한체육회는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 86년 아시안게임, 88년 서울 올림픽에 대비한 종합적인 강화훈련계획을 6일 확정했다.

특히 84년7월로 박두한 LA올림픽에 대비, 1월17일 부터 3백일간 집중강화 훈련을 실시한후 내년5월 대표선수를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올해 3백일강화훈련에 참가하는 종합훈련단규모는 27개 종목 5백22명 (임원71 남자선수3백4·여자선수1백47)이다.

대한체육회는 구체적인 훈련방안으로 LA올림픽, 서울아시안게임, 유니버시아드에 대비하기위해 대표1진의 훈련을 체육회가 직접관장하고 서울아시안게임을 위한 2진 훈련을 중앙경기단체가, 서울올림픽에 대비하여 5천명의 신인선수를 발굴, 별도기구를 구성하여 훈련을 관장키로 했다.

또한 경기력향상을 위해 해외전지훈련을 적극 실시, 83년에 8개종목 1백2명의 선수를 해외에 파견한다.

이밖에 육상 수영 체조등 기본종목과 LA대회유망종목인 궁도 레슬링 복싱 역도 유도, 지역예선 통과가 가능한 종목을 중점육성할 방침이다.

체육회는 금년훈련을 단계별로 실시, 1월17일부터 2월하순까지는 단련기, 3월초부터 3월하순까지 1차조정기, 4월초부터 6월하순까지 숙련기, 7월초부터 8월중순까지 2차조정기, 8월중순부터 10월중순까지는 전문기술과 전술의 1차완성기로 잡았다.

대한체육회는 지도자의 자질향상을위해 육상 수영 체조등 기본종목, 복싱 레슬링 역도등 중점종목과 핸드볼 배드민턴등 8개종목에서 11명의 해외 우수코치를 초청하고 마라톤 체조 유도 복싱 지도자를 해외에 파견키로 했다.

체육회는 금년안에 궁도훈련장과 핸드볼 배구 농구훈련을 할수있는 다목적 체육관을 신축하고 泰陵선수촌 숙소 2개동을 새로짓기로 했다.

◇훈련참가종목및인원

구분	종목	임원	남자	여자	합계
기본종목	육상	6	18	15	39
	수영	3	12	12	27
	체조	4	9	9	22
중점종목	레슬링	5	32	—	37
	복싱	4	20	—	24
	유도	4	20	—	24
	역도	3	18	—	21
	궁도	2	6	6	14
구기종목	축구	2	20	—	22
	배구	4	15	15	34
	농구	4	15	15	34
	핸드볼	4	18	18	40
	하키	2	—	19	21
기타종목	사이클	3	13	3	19
	펜싱	2	8	4	14
	테니스	2	6	6	14
	사격	4	12	6	22
	조정	2	8	7	17
	승마	1	5	—	6
	요트	1	3	—	4
특별훈련	배드민턴	2	6	6	14
	탁구	2	6	6	14
	태권도	1	10	—	11
자체훈련	근대5종				미정
	카누				〃
계	25종목	67	280	147	494
동계종목	아이스하키	2	20	—	22
	스키	2	4	—	6

◇해외전지훈련종목및인원

종목	임원	선수	목적지	기간
궁도	2	14	미국	20
유도	1	8	유럽	30
복싱	2	10	미국	30
레슬링	2	16	〃	30
농구(남)	2	15	〃	30
농구(여)	2	15	〃	30
핸드볼(여)	2	18	서독	20
마라톤	1	6	뉴질랜드	40
수영	1	2	미국	30
계	15	102		

姜義錫·河亨柱도 銀

東京 大學유도 朴長烈도 銅에 그쳐

【東京=宋孝彬특파원】세계대학생 유도 대회에 출전한 한국의 姜義錫(쌍용)은 6일 東京에서 열린 대회 최종일 엑스트라·라이트급 준결승서 프랑스 선수에 판정승을 거둔후 결승서 日本의 기다에 효마를 빼앗겨 분패, 은메달에 머물렀다.

한편 朴長烈(한체대)은 하프·라이트급 준결승서 패했으나 패자부활전서 日本계 브라질선수인 오노무라를 물리쳐 동메달을 차지했다.

무제한급에 출전한 河亨柱(동아대)는 결승서 日本의 사이또에게 패해 은메달에머물렀고 라이트급의 安炳根(유도대)은 동메달을 차지했다.

한국은 이 대회서 모두 은메달3개, 동메달5개를 따냈다.

스포츠短信

江陵高 야구감독에 朴仁煥씨 柳文植씨는 永東中 감독으로

◆…朴仁煥씨(前 야구협회심판위원)가 江陵高 야구부감독으로, 柳文植씨(前 高麗商 감독)가 永東中 야구부감독으로 취임했다.

조 규 혁
종 합 보 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리듬體操 대회 6월에 연다

國內최초… 보급 본격화

84년 로스앤젤레스·올림픽에서 처음 정식종목으로 채택되는 리듬체조의 국내보급 활동이 본격화되고있다.

대한체조협회는 83년 주요사업계획의 하나로 오는 6월 서울에서 국내최초의 리듬체조공식대회를주최, LA올림픽을비롯한 국제리듬체조대회에 대비키로했다.

국내리듬 체조는 지금까지 신체조, 현대체조, 리듬체조등으로 용어의 정립조차 되지 못한채 대학체육의 과외연구활동으로 소개, 보급 되어왔다.

대한체조 협회는 대회에 앞서 2월중 리듬체조강습회를 실시, 리듬체조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경기규정을 확정하는등 금년한해에 리듬체조 분야에만 약2억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 새종목 개발에 힘쓸 계획이다.

국제체조연맹(FIG)의 리듬체조(리드믹, 스포츠, 짐내스틱스)분과위원회가 관장하고있는 리듬체조는 현재 볼, 후프, 줄, 리번, 곤봉등 5개종목 경기로 구성되고 있으며 개인4종목별, 개인종합 단체등 6개부문으로 나뉘어 세계선수권대회가 실시되고있다.

新人王戰 준결 8일부터 열려

82년도 프로복싱 신인왕전 준결승전이 8·9일 이틀간 문화체육관에서 열린다.

지난해12월열린 예선전에서 2백47명의 신인들이출전, 11체급 44명의 준결승진출선수들을 가려냈었다.

◇각체급준결승대진

▲주니어플라이
金政賢(주승)—乭石(인천슈퍼)
張昌永(극동서부)—朱榮浩(동균)

▲플라이
孫鍾國(대원공작)—李在浩(청소년)
朴光求(광무)—金熙石(삼원)

▲주니어밴텀
金惟玄(삼우두꺼비)—盧壯鎬(극동중앙)
金浩鉉(영등포)—金熙鳳(주승)

▲밴텀
鄭癸來(극동중앙)—金容雨(현대칼라)
崔鎬善(청소년)—高鐵男(현대)

▲주니어페더
李應璣(준호)—張相仁(금성)
柳阜京(인천동아)—李貞澤(상원)

▲페더
金賢泰(롯데)—尹哲熙(동원)
金成洙(원진)—鄭義中(주승)

▲주니어라이트
金正煥(극동중앙)—尹東烈(동아)
金炳俊(롯데)—朴奭中(중앙)

▲라이트
金鍾浩(극동중앙)—吳泰日(주승)

▲주니어웰터
申興植(극등서부)—朴永在(광무)
朴良求(와룡)—黃珉夏(동아)
文秀鎬(중광)—徐炯沃(동아)

▲웰터
李相鉉(동신)—太塡鉉(부산극동)
宋和永(덕흥)—柳寶錫(롯데)

▲주니어미들
金哲鉉(극동)—鄭張榮(불광)
金基赫(원진규철)—金殷坤(신도)

蹴協회장出馬 否認

金宇中씨 밝혀

대우그룹의 金宇中회장은 대한축구협회장 출마의 뜻이 없음을 분명히했다.

해외출장을 마치고 5일밤 귀국한 金宇中씨는 6일상오 金容元대우사장을통해 자신은 전혀 축구협회장출마의뜻을 표명한적이 없다고밝혔다.

金宇中씨를 대신해 이날 대한체육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金容元사장은 『金회장은 1년이면 3백일 가까이 해외출장을 해야하는 바쁜일 때문에 축구협회장직을 감당할수 없다』고 전제한후 『평소원로축구인들이 축구협회장 출마를 권했으나 이를 수락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한편 金宇中씨의 축구협회장 출마설이 갑자기 퍼진것은 최근 大宇축구팀의 고위관계자들이 의도적으로 낭설을 퍼뜨려 평지풍파를 일으킨것이라고 축구계에서는 말하고있다.

崔允喜 퇴원

서울大 부속병원서 복부수술을 받았던 崔允喜(수영)가 수술8일만인 5일하오퇴원했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11>

朴婉緖 作

부드러운 겨울 ㊲

이런 극심한 갈등에서 잠시라도 빠져나올수있는 방법은 자신을 육체적으로 혹사하는수밖에 없었다. 수지는 사람을 구하는 일을 쉽게 단념하고 하루에도 몇차례씩 병원과 산동네 사이를 왕복하며 병자 시중, 아이들 치다꺼리를 함께했다.

한데 부엌에서 아이를 업고 밥을 짓고 연탄을 갈고 얼어붙은 수돗가에서 똥기저귀를 빨고 시장을 보았다. 밤새도록 보채는 아이를 업었다 안았다하면서 외풍 센 단칸방에서 밤을 밝히기도 했다. 계집애들의 더러운 내복과 양말을 벗겨 빨고 새것을 사입히기도 하고, 공중탕으로 몰고가 몸의 때를 벗기고 헝클어진 머리를 감겨 빗겨주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오목이가 그녀를 필요로 할때는 언제나 그 곁에 있으려고 했다. 그녀는 마치 몸을 두개로 쪼갠것 처럼 병원과 산동네에서 동시에 바지런을 떨었고 그러기 위해서 자가용과 천기사를 긴하게 이용했지만 그밖엔 아무의 도움도 받지 않았다. 그녀는 막연히 그 고행을 끝까지 밀고가면 구원의 실마리가 있을 것처럼 믿었다.

큰 병원에서 며칠을 걸려 내린 진단도 변두리 병원에서 하루만에 내린 진단결과와 다르지 않았다. 다만 죽어 가고 있다는걸 확실히 하기 위해 그렇게 자주 피를 뽑히고 X레이를 찍히고 더러운 가래와 소변을 모아야 했단는데 수지는 분노했다. 그러나 그런 기억조차 하기 싫은 온갖 진단방법이 환자가 죽어 가는 일을 한시도 늦출수 없었던 것처럼 그녀의 분노 역시 오목이가 죽어 가는 일을 막을순 없었다. 의사는 진단하고, 환자는 죽어가고, 가족들은 울부짖을 따름이었다.

그러나 아직도 오목이의정신은 또렷또렷해서 막내를보고 싶어 했고 일남이가 쏘시개탄 믿고 연탄 갈 시간을 놓칠까봐 걱정했다.

며칠이나 더살겠느냐고 물었더니 지금까지 살아있다는게 이상할지경이란는 주치의의 대답까지 변두리 병원의사의 말과 일치했다. 그런환자가 겨우 쏘시개탄 헤프게 쓸까봐 걱정하고있었다. 사람이 미물보다 더 보잘것없어 보였다.

더 딱한건 자기 자신이었다. 마지막 기회를 놓치려하고있는 자신에게 수지는 다시 조바심을 시작했다. 다시는 기회가 없는 자신은 상상만으로도 정이떨어져 견딜수있을것 같지가 않았다.

며칠동안의 극심한 과로도 실은 마지막기회를 놓친후에도 편안함을 얻으려는 교활한 계산이었던것 같은 생각이 들면서부터는 몸을 혹사할 신명조차 나지않았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어둡고 진저리나는 기억으로부터 놓여나는 일은 그 일의 진상을 말해버린는 일이었다. 오목이는 용서해 주겠지. 그대신 다섯아이를 내 어깨에 떠넘기고 편안히 죽어가겠지. 그녀의 혼란은 결국 다섯아이와 죄의식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원점으로 돌아와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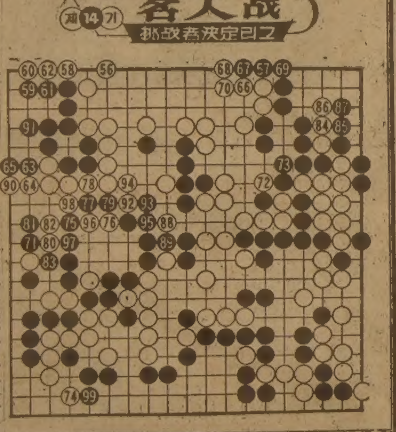
아이가 둘만 돼도, 아니 셋까지만 돼도 이렇게 망설이지않고 그어두운 죄의식대신 아이들을 책임질수도 있으련만. 이렇게 저울질에 이골이 나면서 섬광처럼 희한한 생각이 하나 떠올랐다. 왜 진작 그 생각을 못했던가. 오목이의 실질적인 동기간은 나말고 또 있거늘.

수지는 수철이도 마땅히 다섯아이의 반이상을 책임져야한다고 생각했다. 오목이를 내다버린것은 그이었지만 그후 그로말미암아 재산상의 이익을 톡톡이 본건 수철이란 야비한 생각도 함께했다. 그녀는 살벌하게 긴장해서 오랜만에 친정집으로 오빠를 찾아갔다.

名人戰 제14기 挑戰者決定리그

第6局 第10譜 156~198

白(4段) 崇 勳 〈2勝〉
黑(7段) 盧永夏 〈2敗〉
(각5시간·덤5집반)



초반부터 시간을 물쓰듯이해온 崇4단은 이무렵 나머지 6분밖에 안되고 얼마후 초읽기에 몰리기 시작했다. 그런데도 이미 기울어진 판세는 도무지 호전되지 않고있다. 뒤늦게나마 때라도 써보고싶었는지 그런기분을 白56에서 볼수있다.

억지에 가까운 최강의수。

그런데 나중의일이지만 崇4단은 이수에앞서 먼저 우상귀쪽을 白69로 끊어젖혀있고 다음 좌변을 83자리로 끊어내는끝내기를 선수한 연후에 56에 선착하는것이 최선이었다. 그리고 이렇게 두었더라면 白도 승기를 잡을수있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白、追擊無爲 憤敗

한편 盧7단은 승리를 확신한 때문에 白의 맹추격을 부자 몸조심적으로 구슬리고 있다. 黑59이하 65가 바로 그것인데 초읽기에 몰린 崇4단은 오히려 기세를 올리며 물고늘어진다.

좌중앙 白76이하 88에서92, 그리고 96등의 끝내기는 한말로해서 「妙의극치」. 실로 경탄할만한 것이어서 그토록 냉철했던 盧7단도 진땀을 마냥 흘렸다는 고백이다.

그러나 때가 너무 늦었다. 이와같이 멋진 끝내기를 구사했어도 역전시키지 못하고 아깝게도 4집반을 패했으니 崇4단으로서는 천추유한이었으리라.

白100이하는 총보로 미룬다. 【그림】

우편요금이 바뀝니다.

이 표를 잘라두셨다가 필요하실때 참고로 하십시요.

1월15일

1983년 1월15일부터 다음과 같이 카나다및 국제우편요금이 변경됩니다.

새 우편요금표 내용은 지역 우체국에서 얻으십시요.

캐나다국내편지

특별 우편
보증우표* $1.06
등기우편* $1.96
속달우편* $1.06
*추가 적용되는 우표

소포(30kg 까지)
국내배달(2Kg) 1급 $2.60
소포우편 $1.38
뱅쿠버에서 위니펙(2Kg) 1급 $4.77
소포우편 $1.91
할리확스에서 몬트리올(2Kg) 1급 $3.60
소포우편 $1.70
오타와에서 토론토(2Kg) 1급 $2.97
소포우편 $1.59

표준형아닌 편지요금(0~30g) .... 37¢
이 요금은 정규편지규격이 아니거나, 우편번호가 없는 편지에 한해 적용됩니다.
모든편지는 우표및 모든규격편지에 우편요금이 32센트가 될때 2월15일까지 30센트가 됩니다.

미국으로 가는 배달우편
편지, 엽서및 연하장 (0-30g) 37¢

외국으로 가는 배달우편
항공우편, 봉함엽서및 일반엽서 (0-20g) 64¢
봉하지 않은 연하장-항공편 (0-20g) 48¢
봉하지 않은 연하장-배 편 (0-20g) 37¢

모든 변경되는 우편요금은 우편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당신은 지역우체국장이나 판매부장에게 연락해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볼 수 있읍니다.

2월15일

다음우편은 1983년2월15일부터 적용됩니다.

일반우편
1종우편(0-30g) ....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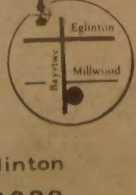
CANADA POST CORPORATION
Canada

● 백학같이 우아한 미!
● 미래를 수놓은 고상한 꿈

웨딩드레스

⊙웨딩·드레스 매매 또는 렌트.
⊙파티용등 스페샬 드레스 완비.
⊙꽃 어레인지먼트 및 사진틀.

◀영업시간▶
월—목 : 오전8시~오후8시
금—토 : 오전8시~오후9시
일 : 12시~오후6시



1503 Bayview Ave.
(베이뷰×밀우드)south of Eglinton
☎ : 485-9419 488-0639
(MILLWOOD FLOWER SHOP)——— 실비아·윈

300點이상 6,378명

2백50點이상 7萬餘

中上位득점層 넓어져

大入學力考査 성적분포발표

여자 3백점이상 高得點도 작년의 2倍

98개 4年制大 모집人員해당 2백14점

62개 前期大만은 2백24점…29點높아져

문교부는 5일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결과 3백점이상 고득점자가 당초예상 4천명선보다 대폭 늘어난 6천3백78명이라고 공식발표했다. 지난해의 3백점이상 고득점자는 8백27명이었다. 이와함께 2백50점이상은 3배가 넘는 7만5천8백70명으로 최종집계됐으며 수험생의 평균점수는지난해보다10점정도높아졌고 중상위득점자층이 두꺼워진 반면 중간층이 엷어져 1백점이상 2백점사이의 하위권은 오히려 17%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문교부는 이번의 성적분포를 대학입학인원과 단순비교할때 98개 4년제대학 입학인원 20만2천3백97명에 해당하는 등위의 점수가 2백14점으로 지난해 1백88점보다 26점이 높아졌고, 교육대 전문대를 포함한 전체모집인원 32만7천17명의 해당성적은 1백88점으로 지난해보다 25점이 높아졌다고 밝혔다.

특히 62개전기대학 모집인원 16만여명에 해당하는 등위의점수는 2백24점으로 지난해보다 무려 29점이 높아져 이날부터 접수하기시작한 전기대 입시에서는 고득점자퍼레이드를 벌이게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학력고사에서전국수석은 인문계열에응시, 3백40점만점에 3백39점을딴 서울高麗高 洪承釰군(19)이, 여자수석은 3백34점을딴 서울培花여고 閔裕淑양(18) 이 각각 차지했다.

성적분포를 계열별로 보면 예년과같이 자연계가 인문계보다 약간씩높아 2백72점(1백점만점 기준80점)이상이 자연계는 전체의 5·55%이나 인문계는 4·52%로나타났다. 그러나 3백점이상은 역시 인문계가 높은 분포를 보였다.

남녀별로는 3백점이상 고득점자 층에서 여자의 진출이 두드러지게 늘어 6천3백78명의 20%에 가까운 1천1백52명으로 지난해 9·8%의 2배가 된다.

한편 이번 대입학력고사의 예체능 특기자 실사에서합격한 수험생은 ▲음악60명▲미술9명▲체육 2천3백3명 등 모두2천3백72명으로 확정됐다.

내點數로 어느大學갈수있나 <10면>

人民公社 본격 解體

中共、新年들어

【東京=聯合】약 4반세기에 걸쳐 중공형 사회주의의 대명사로 특징지어졌던 중공의 인민공사 제도가 신년에들어서면서부터 본격적으로 해체되기 시작했다고 일본신문들이 5일 보도했다.

일본신문들은 이날 北京발기사에서 인민일보사설을 인용, 중공江蘇省에서만도26개의 인민공사가 올들어 해체됐다고보도하고 특히 중공농촌의 전형적모델로 알려졌던 北京시黃土彊인민공사의경우 해체되는대신 경제조직으로서의 새로운 공사(기업)가 새로설치돼 정경분리의 실현을 보게됐다고 전했다.

이들 신문들은 중공의 이같은 인민공사제도폐지는 지난해말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채택한 신헌법에 따른 첫번째의 개혁작업이라고 지적하고 이로써 중공인구의 80%이상을 차지하고있는 인민의 정치·경제조직은 토지개혁농업합작사 인민공사에이어 정경분리라는 역사적 전환기를 또다시 맞게됐다고 덧붙였다.

外務部임명

本部근무 安煐哲씨
敎授部長 金泳燮씨

정부는 安煐哲외교안보연구원교수부장(외교직1급)을 외무부本部근무로、金泳燮본부대사(외교직2급)를 외교직1급으로 승진시켜 5일字로 외교안보연구원교수부장으로 각각임명했다.

정부는 또 朱東雲정보문화국장직무대리를 외교직 2급으로승진、정보문화국장에임명했다.

10일께 첫總務會談

年頭國會소집 논의

李鍾贊 民正·林鍾基 民韓·李東鎭 국민당총무는 오는 10일께 금년들어 첫 총무회담을갖고 年頭국회(제1백15회임시국회) 소집 문제와 국회의원의 재산등록 문제등을 협의할것으로보인다.

李 民正총무는 5일『제1백15회 임시국회는 25일을전후하여 하루만 열리게될것』이라고 전망한후『이번 회담에서는 국회사무처 職制개정안 처리문제와 계류중인 政治議案 처리문제등도 논의의 대상에 포함될수있다』고 밝혔다.

社會漫評

11일 訪韓…

◇레이건、戰略軍委창설 서명 — 레이건美대통령이 3일 白堊館각의실에서 고위관계자들이 지켜보는가운데 전략군위원회(CSF)의 창설문서에 서명하고 있다. 좌로부터 와인버거국방장관、스코크로프트 CSF위원장、레이건대통령、브라운前국방장관、리드前공군장관、아트킨스CSF사무국장.【워싱턴4日AP=聯合】

나까소네日首相 11일 訪韓

이틀동안 首腦회담… 40億弗經協 타결될듯

취임후 첫外國나들이…아베外相등 수행

◇全斗煥대통령

◇나까소네日首相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曽根康弘) 일본수상이 全대통령 초청으로 오는 11일부터 12일까지 1박2일간 한국을 공식방문한다고 5일 서울과 東京에서 동시에 발표됐다.

나까소네 수상은 訪韓중 全斗煥대통령과 수뇌회담을 갖고 東北亞지역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와 양국간의 우호증진및 협력관계등 공동관심사에 관해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라고 靑瓦臺대변인이 밝혔다.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에는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 외상등이 수행한다.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으로 이뤄질 양국 首腦회담에서는 지난2년간 양국의 최대현안인 경제협력문제가 완전타결될 것으로 보여 양국관계 정상화에 획기적인 轉機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首腦회담에서는 또 韓半島를 둘러싼 東北亞정세등 양국의 공동관심사에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가질예정이어서 東北亞의 안정과 평화유지에 크게 기여할것으로 관측된다.

韓日양국의 최대현안인 經協문제는 그동안의 실무접촉을 통해 公共차관 40억달러에는 합의했으나 차관조건이 유리한 公共개발차관(ODA) 규모에는 아직 異見을 보이고있어 이번 수뇌회담을 통해 어떻게 타결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수상취임후 첫 외국방문인 나까소네수상의 이번 訪韓은 65년 양국의 國交정상화후 일본수상으로서는 최초의 공식訪韓이다. 그동안 일본수상으로서는 67년과 71년에 사또(佐藤)수상、74년에 다나까(田中)수상이 訪韓했었으나 朴正熙대통령의 취임식과 故陸英修여사장례식에 참석하기위한 것이었다.

외교전문가들은 나까소네수상의 이번訪韓이 미국방문에 앞서 이뤄지게 됐다는 점에서 일본의 새정부가 韓日관계를 重視하고있음을 뒷받침하는것으로 풀이하고있다.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은 역사교과서문제가 일단락 되고 일본의 새內閣출범을 계기로 양국이 頂上級간의 의견교환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한데다 지난해 11월30일 나까소네수상이 全대통령과 가진 전화 취임인사때 가능한 빠른시일내에 양국수뇌의 會合필요성을 밝혔고, 또 12월20일韓日의원연맹 합동총회에 참석한 한국측대표단접견때 訪韓의사를 표명함에따라 이뤄진것으로보인다.

이에따라 한국정부는 4일 李範錫외무장관이 마에다(前田利一) 駐韓일본대사를 불러 나까소네수상에 대한 정부名義의 訪韓초청書翰을 전달했었다.

나까소네訪韓 兩國 동시發表 全文

나까소네·야스히로(中曽根康弘) 日本수상은 대한민국정부의 초청으로 1983년1월11일부터 12일까지 대한민국을 공식방문한다.

나까소네수상은 訪韓중 全斗煥대통령과 회담을 갖고 東北亞지역정세를 포함한 국제정세에 관한 의견교환과 韓日양국간의 우호증진과 諸般協力관계등 공동관심사에 관한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나까소네수상의 한국방문에는 아베·신따로(安倍晋太郎) 外相등이 수행한다.

"友好노력에 報答"

日首相 全대통령招請계획

【東京=宋孝彬특파원】나까소네(中曽根) 일본수상은 5일 열린 첫각의에서 訪韓문제에 대해『한국이 대승적견지에서 우호적인 노력을 보인데 대해 경의를 표하며 이에 보답해 나갈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외무성은 나까소네수상이 오는11일과 12일 양일간 한국을 방문, 全斗煥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진뒤 공동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며 나까소네수상이 全대통령의 訪日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또다(後藤田) 관방장관은 각의후 기자회견을 갖고『互惠정신으로 한일양국이 경제협력문제를 타결케 됐으며 개발차관과 수출입은행차관의 비율등 구체적인문제는 방한후 결정될것』이라고 말했다.

다께시다·노보루(竹下登) 일본藏相과 야마나까·사다노리(山中貞則) 通産相은 각의후 가진 기자회견에서『對韓경협의 구체적인 내용에대해서는 말할수 없으나 양국간에 이문제에관한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까소네수상이 한국을 방문하게된 것』이라고 강조함으로써 경협문제가 사실상 타결됐음을 공식으로 시인했다.

各黨、환영聲明

民正·民韓·국민등 주요 정당은 5일 상오 나까소네(中曽根) 일본수상의 訪韓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民正黨金璐泰대변인=나까소네수상이 취임후 첫방문국으로 한국에 오게된 것은 제5공화국의 정치 경제의안정과 외교역량의 성과이다. 이번 韓日정상회담을 계기로 1년여에 걸친 경제협력문제의 타결은 물론 양국우호친선의 새로운 정신적기조가 다져지기를 기대한다.

▲民韓黨 金珍培 대변인=나까소네 수상이 취임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하게된것은 경제협력문제를 비롯한 현안문제를 타결할수있는 좋은 기회로서 큰 성과가 있기를 기대한다.

진정한 가까운 이웃으로서의 역할을 분담하는 새로운 차원을 마련하기를 바란다.

美서도 환영

【워싱턴=聯合】미행정부관리들은 4일 나까소네·야스히로 일본수상이 오는11、12일양일간 한국을방문 全斗煥대통령과 회담할것이라는 보도에 환영의뜻을 표했다.

이관리들은 나까소네수상의 이번 한국방문이 한일양국간의 유대관계를 더욱 강화시켜 극동및 아시아지역안정과 평화에 크게 기여할것이라고 말했다.

韓·日頂上 상호방문日誌

▲1948년10월19일=李承晩대통령, 맥아더極東 駐屯美사령관초청으로 渡日。맥아더장군과 極東의 反共태세강화등을 협의하고 20일귀국。日要人과 접촉없었음。

▲1950년 2월16일=李承晩대통령, 맥아더장군 초청으로 2차渡日。日요인들과 접촉없었음。18일귀국。

▲1953년 1월 5일=李承晩대통령, 클라크사령관 초청으로 3차訪日。韓日국교 재개용의있음을 성명。6일에 요시다(吉田) 日本수상과 韓日현안문제를 놓고 회담。

▲1961년11월11일=朴正熙국가재건최고회의의장, 케네디美대통령의초청으로訪美중 비공식訪日。東京영빈관서 1泊하고 12일 이께다(池田)수상과 對日청구권문제, 經協문제등을 논의。

▲1967년 6월30일=사또(佐藤) 수상, 朴대통령취임식(제6代) 참석차 訪韓, 朴대통령과 회담。

▲1971년 7월 1일=사또(佐藤) 수상, 朴대통령취임식 (제7代) 참석차 訪韓, 朴대통령과 회담。

▲1974년 8월19일=다나까(田中) 수상, 故陸英修여사장례식에 弔問사절로 참석차 來韓, 朴대통령과 회담。

日亞洲局長 내한 經協조건등 通告

나까소네(中曽根) 일본수상의 訪韓에앞서 일본외무성의 기우찌(木內昭胤) 亞洲국장이 韓日經協문제의 실무적인협의를위해 5일하오來韓, 외무부의 金炳連亞洲국장과 약40분간 요담했다.

기우찌국장은 이자리에서 양측이 합의한 40억달러의 經協규모내용에 관해 公共개발차관(ODA) 17억달러、수출입은행자금 23억달러로 年利평균 6%조건으로 앞으로 7년간 제공한다는 일본정부의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地平線

대입 학력고사 사상처음으로 0점이 나왔다. 選多型 OX문제이기때문에 연필을 굴려 동그라미를 몇개만 쳐넣어도 점수가 조금은 붙을텐데 총점이 0이 되기는 거의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하겠다. 아마 수험생이 自포자기한 탓이든지、아니면 답안작성요령을 그르쳤던지 한 결과일것같다. ▼한데 그 0을 〈떨어질零〉으로 보는것과 출발점=제로(Zero)로 본다는것과는 뜻에 상당한 거리가 생길수있다. 零落、零細는 떨어지는 경우이지만 零度、零時는 기점을 말한다. 그뿐아니라 각부처의 예산을 모두 제로에서 다시 사정하는 제로베이스에도 쓰이고、세금과 복지예산의 十一=0을 말하는 제로·섬 사회이론에도 제로는 쓰인다. 쉽게봐서 漢字의 零은 떨어지는뜻이 강하지만 아라비아숫자의 제로=0은 기점、비약을위한 位數인 것이다. 우주선을 발사할때도 카운트다운 제로때에 발사하게 돼있다. ▼漢字에서는 一、十、百、千、萬으로 十進法이나가지만 아라비아 숫자에선 1에서 9까지의 숫자에 0의 기호로 수를 얼마든지 늘려나갈 수있다. 현대와 같이 천문학적인 숫자를 많이 쓰게된 사회에서 0이 없으면 얼마나 불편할까 누구나 실감할수 있다. 하나 0의 발견은 문자가 생긴후 수천년이 흘러야만했다. 고대 이집트、희랍、로마시대에도 주판은 많이 쓰였지만 0은 인도사람에 의해 발견되었다는 것이 정설로 돼 있다. 어떤 수에 0을 곱해도 그 수는 0이고 어떤 수에 0을 가감해도 변화는 0이라는 편리한 셈의 개념이 인도에서 비로소 발견된 것이다. ▼오늘날 아라비아숫자라고 하지만 인도에서 생겨난 것을 아라비아상인들이 퍼뜨렸기 때문에 아라비아숫자라고 불릴 뿐. 정확히 말하자면 인도숫자라 해야 더 옳은 것이다. 0의 개념은 인도의 絶對無의 철학사상을 받아 7세기쯤 처음 생겼다고 한다. 그리고 이 제로기호 0은 처음엔 點(빈돈)이었던 모양이다. 인도시엔 〈그 여인 이마의 빈돈은 그녀의 아름다움을 10배로 보이게 한다〉는 유명한 귀절까지 남아있다. ▼매일같이 쓰는 제로=0기호개념 하나만해도 인류의 문자가 생긴후 몇천년이 흐른후에야 발견된 것이다. 무심히 넘겨보는 모든 사물에 과학적인 탐구정신이 번뜩여야 우리사회도 더 전진할수있다. 0점을 맞은 수험생에겐 딱하지만 0이 좋은 시발점이 될수있고 비약을 위한 位數라는것을 인식할때 그 수험생의 장래도 밝아질지 모른다. 아니 우리사회 전체가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한번 씨름해야 더 발전할지도 모른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 (416) 532-2727

경영회계사
이 영 철
344 Bloor St. W
Suite 304
921-1294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저금
교육·은퇴
부동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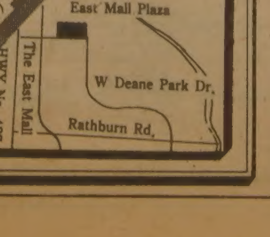
김종조
535-0028
535-7200

YOUNG SOOK'S
보석상

▲각종보석
▲다이아몬드
품질보장
▲최저가격
▲뉴디자인
▲보석개조
교환매매
▲보증서
215 YONGE ST.
368-7961(B)
690-5217(R)

주택,토지,기업체
부동산 매매
Paul Kim 김 평
Sales Representative
Canada Permanent Trust Co
1560 Bayview Avenue Toronto
(B)488-2444 (R)759-45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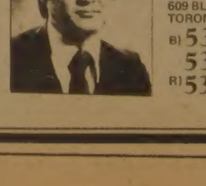
한인식품
SUN'S FRUIT MARKET
□도매업(감자·계란·각종 채소·화분등)
□토론토 전지역 주문배달
◎가주미 스페샬 $16.95
●친절 봉사
●저렴한 가격
●철저한 신용
Tel: 622-2643
15 West Dean Pk. Dr.
(East Mall Plaza)



맛 사 지

(near airport)
MISSISSAUGA

이대환 不動產
주택/건물/프라자/아파트/사업체
매매 알선



전문지식과 오랜 경험으로
친절히 봉사합니다
(올게지 상담)
609 BLOOR ST. WEST
TORONTO, ONTARIO
B) 535-1251
535-1260
R) 536-4250

털코-트
원하십니까?
Paul Magder FURS
※밍크외 각종 털제품 3000점이상을 준비하고 있읍니다.
※한국말을 하는 점원이 여러분을 도와 드립니다.
※ 스파다이나 208번지에는 지점이 있읍니다.
※언제나 저렴한 가격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있읍니다.
신품 $150부터
중고 $99부터
※ 보험 세타 스토레이지(차게 보관), 수리 추레이드인(Trade-ins)
※ 밍크외 각종 털코-트, 자켓 모자 칼라 스톨 남성모피
<영업시간>
12:00~5:00 일요일
9:00~6:00 월, 화, 수, 토
9:00~9:00 목, 금
202+208 SPADINA AVE.
☎: 363-6077

Mrs. 전

무역逆調시정 重點논의

나까소네 訪韓계기 經協시기·절차도 마무리

66년후 赤字2백37億弗

關稅장벽 완화촉구키로

선진技術·電子공업 分業체계도 모색

정부는 나까소네(中曾根)일본수상의 訪韓을계기로 별도로 열릴 李範錫외무장관과 아베(安倍)일본외상간회담 및 이틀동안 열릴 예정인 韓日무역실무회담을 통해 經協의 도입시기, 절차등 구체적인 문제의 타결과함께 양국의무역逆調시정문제를 일본측과 협의할 방침인것으로 알려졌다.

관계당국에 따르면 65년韓日국교정상화 이후 66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對日무역赤字는 2백37억달러로 같은기간중 우리나라의 對外무역赤字 3백39억달러의 70%를 차지하고 있는것으로 밝혀졌다.

정부는 일본이 自國의산업보호를위해 高率關稅를 부과하고있는 신발 衣類 섬유류등 輕工業제품과 농수산식품에대한 關稅장벽을 완화하고 그밖에도 수입數量制限制, 수출자유규제, 행정지도, 수입사전협의제등의 각종규제를 받고있는 生絲 견직물 해태 참치등에대한 非關稅장벽을 철폐해줄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의 한 소식통은 나까소네수상이 한국의 장기적인 안정에 협력할 생각이라고 밝힌이상 양국협력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경협타결과함께 근본적인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對日무역逆調의 구체적인 시정방안에는 ▲대규모 소매업자의 直去來추진 ▲對韓重化學제품의 수입증대 ▲선진기술의 對韓移轉 ▲기계電子공업등 양국간 分業체제모색 ▲제3國진출을 통한 상호협력체제강화 ▲韓日간附品공업의 개발협력 ▲민간경제협력활동의 지원등이 포함될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번 외상회담에서는 이밖에도 在日동포의 法的지위향상등 양국의 현안과 韓日정기각료회의의 개최문제, 韓日간의 문화교류확대 문제가 협의될것으로 보인다.

◇레바논 回敎민병대원의 폐허된 거리순찰 정통파회교도 민병대 2명이 지난6일동안 親·反시리아회교도들의 치열한 전투가 벌어진 레바논 트리폴리시의 발모히지역을 순찰하고있다. 【트리폴리5日AP=聯】

蘇 核첩보衛星 곧 추락

月末께 民間거주지역 放射能파편 위험

美국방성 발표

【워싱턴AP=聯】 미국방성은 오는 1월말께 지구로 낙하할것으로 보이는 소련核추진 첩보위성을 「예의 감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 첩보위성이 민간거주지역에 떨어질 경우 방사능파편등에 의한 사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5일 경고했다.

미국방성은 이날 공식성명을 통해 소련첩보위성이 어떤 고장을 일으켰는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으나 『통신장비를 위해 원자로를 장비한 것으로 믿어지는』이 첩보위성의 일부분이 1월말께 지구대기권으로 재돌입한다고 말했다.

이성명은 이어 소련위성의 일부분이 대기권으로 재돌입할 경우 그 시간은 정확히 예측할수 없으며 낙하지점도 알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익명을 요구한 美정보소식통은 소련의 大洋감시위성이 낙하도에서 고장을 일으켰다고 밝히고 이 위성이 지구에 도달하기 10시간전까지는 낙하지점과 시간예측이 불가능하다고 전했다.

영국의 인공위성전문가인 제프리·페리씨는 코스모스1402호로 믿어지는 이 위성이 민간거주지역에 낙하할 경우 『매우 위험한』사태가 발생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 글렘프主敎 2월에 樞機卿서품

【바티칸시티AP=聯】 교황요한·바오로2세는 5일 폴란드 가톨릭교회지도자 요제프·글렘프주교(53)를 추기경에 서품하고 오는 2월2일 추기경서품식을 갖는다고 밝혔다.

교황은 이날 주례 일반접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글렘프주기경은 폴란드노동소요사태와 이에따른 계엄기간동안 폴란드공산정권과 협상을하는등 어려운 시기를 보내면서 폴란드가톨릭 교회를 이끌어왔다.

파키스탄 內戰위기

【카라치 (파키스탄) UPI=聯】 정치적으로 점차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있는 수백만의 무장 아프가니스탄인들의 존재때문에 파키스탄은 내전의 위협에 직면해있다고 파키스탄의 한 고위인사가 5일경고했다.

현재 활동이 금지돼있는 中道 國民民主黨(NDP)의 창설멤버인 알룰·왈리·칸씨는 이날 카라치 프레스·클럽에서의 연설을통해 파키스탄은 아프간 게릴라들에대한 주요무기공급처가 되고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아프간 저항세력이 보유중인 무기전체의 25%를 파키스탄내의 푸칸난민들이 장악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그같이 경고했다.

나토 非核무기 劣勢

로저즈司令官 "蘇 단숨에 西歐정복가능"

【파리AP=聯】 소련은 총탄한발 쏘지않고도 서유럽을정복할수도 있는 유리한 고지에 도달해 있다고 버나드·로저즈 유럽주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군 총사령관이 5일 말했다.

로저즈장군은 이날 프랑스의 르·몽드지와의 회견에서 서유럽이 모스크바의 정치적 경제적 갈취의 희생물이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와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동서세력불균형이 지난70년대의 서방의불리함에서 비롯된것이라고 지적하고 소련은 연례적인 군사력증강을통해 80년대말까지 이같은 군사력우위를 지속하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로저즈장군은 동서세력 불균형이 아직까지는 서방이감수할수있는 수준에 머물러있다고 말하고 그러나 나토가 소련에 1대2의비율로 뒤지고있는 非核무기의 증강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것이라고 강조했다.

左心室없는 新生兒 美서 새治療法개발

【보스턴AP=聯】 인간의 심장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위인 左心室이 없이 태어나는 어린이들을 성공적으로 치료할수 있는 방법이 美보스턴 메디컬센터의 윌리엄·I·노드박사팀에 의해개발됐다.

노드 박사팀은 1개의심실만으로도 정상적인 혈액공급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혈관을 재조정함으로써 심장분야에서 또 하나의 의학적개가를 올린것.

左心室은 허파에서 산소를 공급받아 깨끗하게 걸러져들어오는 피를 대동맥을 통해 전신으로 다시 내보내는 기능을 맡고있는데 지금까지 아기들의 약 8%가 좌심실이 없이 태어나 태어난지 2~3주일내에 대부분 사망하고 있다.

노드 박사팀이 개발한 치료법은 수술을 통해 우심실을 둘로 나누고 심장에서 폐로 들어가는 동맥의 부분을 사용해서 대동맥을 재건해줌으로써 1개의 심실 (右心室)만으로 해결한것.

記者의 눈 — 日首相의 첫 나들이

나까소네(中曾根康弘)일본수상이 수상취임불과 45일만에 우리나라를 공식방문한다. 전격적으로 추진된 그의 訪韓은 외교전문가들의 풀이대로 수상취임후 최초의 해외나들이이며 특히 미국방문에앞서 이뤄진다는 점등에서 나까소네정부가 韓日관계를 얼마나 重視하고 있는것인가를 反證하는것으로 볼수있다.

거꾸로, 이는 한국이 일본의 隣近國으로서, 또국제사회의 一員으로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커졌다는 사실을 實證하는것이기도 하다. 달리말해 제5공화국출범후 다져진 우리의 외교力量과 안정이 그의 訪韓을 가능케했다고도 볼수 있다.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으로 당장 관심을 끌고 있는 것은 지난 1년9개월동안 서로 밀고 당긴 經協문제의 타결일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타결되지 않았으나 經協의 총규모에 있어서 40억달러선으로 일단 마무리된것같다. 40억달러라는 규모는 당초 우리가 제시한 액수에 비해 미흡하나 65년國交정상화 당시 받아낸 無償3억, 有償 2억달러와 지난 70년이후의 對韓公共개발차관(ODA)총액이 불과 7억6천9백만달러에 그쳤다는 점을 고려하면 작은 규모는 아니라는 견해도 없지않다.

애당초 經協액수의 제시는 韓半島가 차지하고 있는 전략적인 위치, 일본이 東北亞안보에 기여해야할 역할등 제5공화국정부의 東北亞정세와 관련한 정치적 결단이었던 까닭에 經協의 타결은 그만큼 일본정부의 안보인식이 우리와 같아졌음을 보여준 것이다.

나까소네수상의 訪韓, 經協의 타결은 새로운 韓日관계의 章을 여는 시작임에 틀림없다.

韓日관계를 가리켜 흔히 一衣帶水의 관계라고 하나 그것은 地理的인 관계에서일뿐 마음과 마음의 관계에서는 큰벽이 가로놓여있는것과 다름없었던게 지금까지의 韓日관계였다. 일본의 침략을 막겠다며 北月城郡앞바다에 묻힌 新羅文武王의 水中陵에서도 찾아볼수 있다. 또 가깝게는 36년간의 우리나라 強占, 최근에 빚어졌던 역사교과서문제등 숱한 역사에서우리민족의 응어리진 對日감정은 쉽게 풀리지 않고 있다.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하는 나까소네수상의 訪韓을 맞아 우리가 바라는 것은 그의 訪韓이 經協의 타결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응어리를 풀게하고 양국관계를 진정한 이웃의 관계로 발전시킬수있는 계기가 되도록 해야한다는 점이다.

양국관계의 그늘진 곳을 없애고 진정한 이웃으로발전시켜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일본측의 對韓인식의 변화가 뒤따라야 할것이다. 互惠정신과 同伴者的정신에 입각한 새로운 對韓인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측에서도 감정만을 앞세울것이 아니라, 그 감정을 內燃시켜 國力으로 직결시키는 노력을해야 할것이다. 나라와 나라의 관계는 감정의관계가아니라 힘의 관계인 까닭에서이다.

韓日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때, 그만큼 우리가 차지하고있는 東北亞지역에서의위치는 물론 안보力量이 강화될것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李國榮기자】

社說

값을 내리게하는 努力 —새해 民間企業의 進路와 國民念願

오랜 宿願인 民間主導경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인 스스로가 企業의 사회적 責任을 통감하고 그에 상응한 일련의 努力을 행동으로 實證해 보여야 한다.

全經聯회장단은 4일 記者회견을갖고 앞으로 민간업계는 物價안정과 국제경쟁력배양을 위하여 올해의 工産品出庫가격을 작년 수준으로 凍結시키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동시에 올 賃金수준은 기업별로 勞使협의를 거쳐 조정키로 하되 5~6%인상 정도선에서 결정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민간업자체의 賃金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우리경제운영에 있어 해마다 민간경제부문이 차지하는 比重이 높아지고 있음에 비추어 비록 任意단체이기는 하나 국내민간대기업들을 망라한 경제단체대표가 기자회견을통해 공산품출고가격을 인상치않겠다고 공약한것은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이는 우리기업인들이 스스로의 責任을 느끼고 국민경제의안정·발전에 이바지하겠다는 決意를 표시한것으로 보여져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싶다. 실상 오늘처럼 국민경제규모가 커지고 그에따라 生産·流通영역에 걸쳐 多樣한 활동을 하고있는 민간기업인들의 意思결정 向背를 모르고서는 지금의 경제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 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進路를 가늠하기란 더구나 불가능하다.

물론 국민경제운영이 아직도 정부의 政策意志와 그에 바탕을둔 시책조치및 수단에 크게 支配되고있는점 또한 부인할수는 없다.

하지만 비록 官主導를 완전히 벗어나지못한 상황속에서나마 민간기업인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려는지를 究察한다는것은 그런대로 필요한것임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開放경제체제아래서 自由무역을 표방하고 국제경쟁을 헤쳐가야할 우리처지로서는 민간기업의 보다 創意的이고 생산적이며 責任性있는 기업활동자세가 요구되고있기때문이다.

그런뜻에서 민간기업부문에 아직적지않게 잔재한 부정적요소와 고쳐져야할 事案들을 들이켜 年初 반성의 한소재로 삼아 마땅할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무엇보다도 기업倫理觀에 바탕을둔 사회적 責任感과 自律의식의 缺如를 성찰해야할것으로 본다.

기업合理化에 의한 코스트절감이나 기술혁신을 통한 品質·性能의 향상으로 관련산업의 原價를 낮추게 만들어 국제경쟁력 향상에 이바지해야 할것이고 동시에 소비자보호에도 留意하는바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

競爭原理를 옳게 받아들여야생산성향상을 통한 기업체질의 강화와 재무구조개선에 注力해야할것 또한유념돼야하며 정부의 지나친산업보호정책이나 金融·稅制같은 지원시책에만의 존하려는 舊習과 타성도 속히 벗어나야 할일이다.

기업을 私物視하여 資本과 경영을 分離치못하고 勞使협조의 필수조건으로 간주되는 원만한 人間관계를 소홀히하는 처사는 없어야한다. 종업원의 후생복지나 소비자를위한 사회환원을 등한시하는일 역시 마찬가지다.

기업활동의 公益性에 비추어 존경받는 기업인이 적지않은 반면, 아직도 謀利·奸商의 허물을 벗지못한 위인도 없지는않다. 脫稅따위 불법적인 蓄財와 재산의 海外逃避등, 용납할수없는 범법행위를 하는일없도록 늘 스스로 경계해야한다.

또 기업과 정부 그리고 기업과 국민사이의 橋梁役割을 해야할 경제단체들이 官僚化되는 폐단을 시정함으로써 기업위주의 대변기관이나 官追從기관으로 타락하는것을 서로방지했으면 한다.

새해 우리기업인은 이런 미흡점을 바로잡으면서 국민경제가 요구하는바 정당한 민간기업의 位置를 되찾도록 노력있길 바란다. 그런뜻에서 工産品出庫價凍結에 그치지 말고 국제原油價나 原資材價의 下落傾向에 맞추어 출고가격의 引下까지 다짐해야될 계제를 맞은것은 아닐까. 평균임금인상수준을 정하는것도 좋지만 그에앞서 職責別임금수준을 고르게하고 생산성향상범위내에서 보다탄력적으로 조정기준을 결정함이 타당스러울것 같다.

민간기업이 감은바 責任을 다하면 새해 우리경제는 한결 밝아질것이다. 또 기업인에대한 존경심은 절로 일어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解氷의 봄은 올것인가. —美蘇의 熱띤 年頭平和攻勢를 보며

83년은 美蘇가 각기 自國의 힘優位에 바탕한 이른바 平和攻勢를 활발히 전개하는 해가 될것같다.

79년말 소련의 아프가니스탄侵攻으로 美蘇간의 70년대 데탕트가 사라진 후 80년대의 국제정세는 不透明, 不確定, 不安定한것이 될것으로 예견되어왔다. 지난해 11월 브레즈네프死亡으로 소련에 안드로포프新指導체제가 들어서면서 美蘇관계의 不透明性은 더욱 부각되었다.

하지만 안드로포프는 權座에 오른후 한달남짓후부터 西方국가들의 분열을 겨냥한 일련의 소련식 平和攻勢를 끈덕지게 펴오고있다.

작년12월 蘇聯邦창설60주년을 맞아 안드로포프黨서기장은 미국과 나토友邦이 83년말로 예정된 5백72基의 퍼싱Ⅱ 중거리미사일과 크루즈미사일을 유럽에 배치하지않으면 소련은 新型SS20미사일을 영국과 프랑스가 유럽에 배치한 數와 동등하게 감축할수있다고 제의했다. 소련에 유리한 核군축평화공세를 안드로포프는 재빨리 보여 선전공세를 편것이다. 지난연말에는 한 미국신문과의 회견을통해 안드로포프는 레이건미국대통령에 美蘇頂上회담을 제의해왔었다.

새해와 더불어 안드로포프는 또한 4~5일 프라하에서 열린 7개국바르샤바조약기구 頂上회담 폐막성명을 통해 바르샤바조약기구와나토간의 不可侵조약체결을 제의했다.

힘優位에 입각한 소련의 이러한 일련의 平和攻勢는 西方분열을 겨냥하고, 미국의 對蘇방위력 증강노력을 좌절시키는데 뜻을 두고 있다는게 일반적인 관측들이다.

이에대해 레이건미대통령은 5일의 기자회견에서 새내용은 없으나 단수높은 안드로포프의 선전적 平和攻勢를 신중성있게 받아들였다.

美蘇頂上회담 개최와 不可侵조약 체결의를 레이건 미국대통령은 우선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여유를 보였다. 레이건은 미국과 나토동맹국간의 협의가 필요해 질 것이라면서 不可侵조약체결 제의가 『검토되어야할것』임을 밝혔다.

또 美蘇頂上회담개최제의에관해 레이건대통령은 작년 여름에 자신이 먼저 故브레즈네프서기장에 이를제의한 사실을 상기시키고, 頂上회담에서 『무엇인가를 성취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되면 이 회담을 환영하겠다』는 유연한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레이건의 逆平和攻勢는 소련국내의 어려운 여건을 눈가림하고 외교선수를 잡으려는 안드로포프의 저의를 꿰뚫어 본데서 나온 여유있는 자세로 평가된다.

안드로포프가 일련의 위장平和攻勢에서 노리는바는 한두가지가 아니겠지만 그 초점적목표는 미국의 퍼싱Ⅱ와 크루즈미사일을 西歐에 배치시키지않게하는데 있는것이 명백하다. 소련은 西歐一角에 일고있는 평화무드를부채질하여 나토가 이미 합의한 퍼싱Ⅱ미사일 配置를 한사코 저지하려는데 온갖 힘을 기울이고 있다.

비록 안드로포프가 소련식평화를바닥에깐 위장평화공세를 펴고있지만 미국과의 과도한 군비경쟁을 지탱해가기 어려운 국내경제곤란에서 核군축을 원하고 있다는 일면도 전연없지않은것으로 로니 美제네바군축협상대표는 믿고있다 한다.

美蘇가 83년벽두부터 核군축및 東西관계문제를 놓고 각각 平和攻勢를 펴고있는 바탕에는 세계평화의 기본軸이되는 核군축협상에서 自國에 유리한 타결을 끌어내기 위해 밀고당기는 戰略이 깔려있다고 풀이할수있다.

미국과 나토동맹국이 소련의 이같은 위장평화공세를 단합속에 좌절시킨것이 바로 西方식의 참된 평화로 이르게하는 지름길일 것이다. 그런 平和의 나래가 올해에 널리 펼쳐 졌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당분간 農水畜協 조합장 任命制로

정부와 民正黨은 農水畜協임원의 선임방식을 고치지않고 현행법의테두리안에서 그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黨의 한정책관계자는 6일 『현행의 조합장 임명제도를 야당의 주장처럼 直選制로 성급하게 바꿀경우 적지않은부작용이 생길 소지가있어 일단 현행제도의 테두리를 유지하면서 점진적으로 선임방법을 개선해가기로 정부측과 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현행 임명방식에 의해 추진위원회의 複數추천에 의해 임명하는 과정중 後順位추천자가 임명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제, 『앞으로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한 先順位추천자가 임명되도록 할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결정은 지난해 12월 與野가 임기가 만료되는 單位조합장부터 시범적으로 間選토록한다는데 의견을 보았으나 당측은 이들의 直選을 골자로하는 관계법 개정안및 폐지안을 국회에 제출해놓고 있다.

水稅납부 한달延期

정부와 民正黨은 지난해 秋穀수매가 농가의희망대로 이루어지지않아 현금사정이 좋지않다고 보고 82년도 農地改良組合費(水稅)납부 마감일을 당초 82년12월15일에서 83년1월15일로 한달간 연기토록 조치했다.

黨의 한관계자는 6일이와관련, 『농가사정완화를 위해 농지개량조합비 납부마감일을 연기해주도록 정부에 건의했다』면서 『이로써 해당농가79만6천호가 1월15일까지 납부하면 과태료를 부담하지않아도 될것』이라고 말했다.

公共요금 延滯料 5%로 引下촉구 民權黨

民權黨은 현재 도시稅金 각종공공요금등에 延滯料가 10%나 부과되는것은 그근거가 모호한 것이며 정부는 이를 즉각 5%로 내리고 加算金도 延滯일수에 따라 累進率로 差等賦課해야한다고 6일 촉구했다.

政局往來

李民正대표 "權총장 渡日說 추측은 시간이 365일은 틀린것같다"

◆3黨대표會同 답답한 會食될것

李載瀅民正黨대표위원은 6일, 7일로 예정된 3黨대표會同과 관련, 『지난 연말 忘年모임도 갖지못해 연초에 한번쯤 만날 생각을 갖고 있었다』면서 『한국(金鍾哲국민당총재)에는 7일쯤 만나면 어떻겠느냐고 연락이 되었으나 다른당(柳致松民韓黨총재)은 아직 연락이 되지않은 상태』라고 설명.

그는 이어 『이번會同은 무슨 안건을 주고받는 모임이 아니라 단순한 會食이될것』이라고 강조.

그는 또 나까소네 日本수상의 訪韓과 관련, 『여러분들이 추측하고 있는 權翊鉉사무총장의 渡日說은 시간이 틀려도 많이 틀렸다. 적어도 3백65일은 틀린것같다』고 時差를 들어 간접적으로 否認하기도.

◆改革의지 좌절되면 냉혹한심판

釜山에서 馬山으로옮긴 民正黨의 慶南도지부 黨舍현판식에 참석차 6일하오 李鍾贊총무 尹碩淳사무차장 金珞泰대변인과 함께 이곳에 내려온 權翊鉉사무총장은 『83년은 改革의 내실을 기하는데 전력을 다하는해가 되어야할것』이라고 강조했다.

權총장은 『개혁의지가 좌절된다면 85년總選에서 국민들의 냉혹한 심판을 받을것』이라며 『우리가 저항세력에 승복한다면 꿈도 희망도 없는 한낱 집권유지단체로 전락하게될것』이라면서 개혁의지의 확산을 거듭 역설.

權총장은 이자리에서 『새해에는 외국資客도 잇따라 찾아와 우리의 국제地位를 향상시킬뿐 아니라 成長단계에 들어선 경제와 和合하는 정치가 이루어져 曙光을 밝게 해주고있다』고 말했다.

權총장일행은 이어 馬山지구당 (위원장 趙正濟의원)·昌寧·密陽지구당 (위원장 申相式의원)에 차례로 들러 새해인사를 교환했는데 7일에는 釜山市支部 移轉式에 참석할 예정. 【馬山=李以春기자】

◆攻防의 발언 續出…熱氣가득

6일의 民韓黨 大邱東·北區(위원장 睦堯相의원)와 南·壽城區(위원장 申鎭洙의원) 개편대회에는 柳致松총재를 비롯한 38명의黨소속의원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전당대회를 겨냥한 발언들로 熱氣가 가득.

柳총재는 치사에서 『11代 국회는 상임위원장은 마치 국민학교담임선생, 국회의장은 교장선생과 같은파행국회』라고 말하고 『그러나 2년동안 民韓黨은 참된 민주주의뿌리를 내리고 평화적 정권교체의 바탕을 마련하기위해 혼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自評.

그는 이어 『일부 국민들은 民韓黨이 적극적인 투쟁을 못했고 기라성같은 의원들을 가지고서도 用兵을 못하고있다는 비판을 하고있으나 주어진 與件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말했다.

이어 劉沃祐부총재는 『柳총재를 頂點으로 결속하자』 柳漢烈사무총장은 『서로의 我執을 버리고 衆智를 모으자』고 黨의 단합을 호소.

그러나 辛相佑前사무총장은 『眼橫鼻直』의 故事를 인용, 『지금 우리는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기에 앞서 국민들이 보내는 핀잔의 눈길을 直視해야 할때』라고 自省論을 제기했다.

그는또 『民韓黨은 정부로부터 칭찬을 받기보다 국민으로부터 칭찬을 받는 새로운 자세를 정립해야한다』고 지도부의 자세를 비판하면서 『야당이 제기능을 발휘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때 길거리정치도 없어지며 정국도 안정을 가져올수 있다』고 거듭 주장. 【大邱=李成俊기자】

◆국민, 위원장職代임명놓고논란

18개事故지구당의 처리문제를 논의한 6일하오의 국민당당무회의는 조직강화特別委가 마련한 위원장직무代行體制를 놓고 論難.

이날 金鍾哲총재는 『이번 職代임명은 다음 선거의 공천과는 별개』라고 但書를 붙이며 職代를 발표하자 李東鎭총무를 비롯, 金鍾河 李成一 趙炳鳳의원등이 『전당대회를 위해 대의원의 선정이 필요하고 당조직活性化를 위해 職代체제는 잘된일』이라고 찬동.

그러나 李鍾聲 趙一濟 金遺腹의원등은 『85년총선을 앞두고 많은인사를 迎入하기위해서는 職代체제운영이 조직의 二元化를 가져올 우려가있기때문에문제가있다』고 반대.

이에 金永光의원이 『유능한 인물迎入도 좋으나 지구당 관리책임도 막중하다』면서 仲裁에 나서 一段落됐다.

83년도 신세계 단체관광계획

	성지순례	구라파관광
출발	1983년5월6일(금)	1983년7월23일(토)
귀환	5월19일(목)	8월 8 일(월)
기간	14일	17일간
방문지	성지 7박8일 에급 2박3일 로마 3박4일	8개국 영국, 화란, 서독, 오지리, 이태리, 모나코, 스위스, 불란서, 이태리
요금	$2,250(2인1실)	$1,960(2인1실)
신청	1983년3월31일 잔액불입	등록 : 1983년5월31일 $300불입 마감 : 6월25일 잔액지불
기타	한국인 안내자 동반 교황알현 알선	한국인 안내자 동반

■ 상기요금은 토론토 기준이며 타도시에서도 합류 가능합니다.

여행을 즐기십시요.

「신세계」는 여러분의 여행을
가장 추억에 남도록 도와드리겠읍니다.

IATA

신세계 봉사와 개척의 여행사
NEW WORLD TRAVEL
712 Bloor Street West, Toronto M6G 1L4
536-2155·2156 김 창 범
R) 492 - 7525

도깨비 안의섭

결혼예물 보석및시계
미도파
다이아몬드, 반지, 팔지, 목거리, 목거리
B536·1692
H245·3539

대낮 아파트에 殺人강도

釜山 갓난아기 목졸라 살해 엄마重態

【釜山】5일하오2시40분께 부산南區門峴3洞331 우성아파트 나동305호 金洪坤씨(49·부산상협연쇄점관리부장)집에 흰마스크를한 30대가량의 괴한이 침입, 金씨의 생후8개월된 딸보선양을 목졸라숨지게하고 김씨의 부인 정모씨(29)의 목과팔등2곳을 흉기로찔러 중상을 입힌뒤 달아났다.

이같은 사실은 한집에사는 金씨의 여동생 길모양(25)이 외출했다가 하오3시께 집에 돌아와 발견, 경찰에신고했다.

중상을입고 大淵洞 차경환신경외과에 입원중인 정씨는 『어떤사람이 金부장이 부도로 경찰에 입건됐다』는 전화를 집으로 걸어와 딸보선양을 업고 남편회사로 막나가려는데 문앞에서 범인이 『나는 강도다 돈을내라』고 위협한후 업고 있던 아기가 울자 목을졸라 숨지게한뒤 주방에있던 흉기로 자신의 목과 팔을찌르고 장롱을 뒤진뒤 달아났다고 말했다.

경찰은 피해품을 조사하는 한편 살인강도사건으로 보고 門峴파출소에 수사본부를 설치, 신장 165㎝가량에 반코트와 청바지를입은 범인을 찾고있다.

들먹거리는 두부값

지난연말 한때 50%까지 기습引上

두부값이 들먹이고 있다. 한모에 1백원씩하던 두부값이 지난크리스마스를 전후 50%나 슬그머니 기습인상돼 1백50원씩 팔리기 시작했다가 뒤늦게 이사실을안 경제기획원이 조정에나서 지난 4일부터 다시 종전가격으로 내려갔다.

두부값의 기습인상에 대해 연식품공업협동조합측은 국내콩값은 1가마당 5만7천원이고 수입콩은 1만7천원선으로 훨씬싸 수입콩이 제대로 공급되어야 현재가격이 유지될수 있는데 수입콩의공급이 달려 불가피하게 가격을 올렸었다』고 말하고 정부로 다는 약속을 받고 값을환원시킨것이라고 해명하고 있다.

연식품조합측은 그러나 83년도 필요물량인8만톤의 수입물중에 1만톤만을 농수산부에서 수입가를내줘서 앞으로 계속 물량이 확보되지않으면 가격을 올릴수밖에없다고 주장하고있어 멀지않아 두부파동이 불가피할것같다.

지난해연말 시중에서는 콩나물콩 1가마당 5만7천원에서 6만원으로 올라 콩나물값도 오른다는 소문이 퍼져있다.

岩刻바둑판 발견 三國시대 것인듯

삼국시대 새긴것으로 보이는 암각바둑판이 충북中原郡 老隱面 公耳洞에서 발견됐다.

檀國大 박물관팀이 지난연말 충주댐 수몰지구 발굴조사중 남한강유역 한 계곡옆 교실만한 넓은 바위에서 찾아낸 이 바둑판은 가로세로 똑같이 54㎝, 19줄간의 길이 3㎝의 크기다. 【聯合】

수험생도 學父母도 敎師도…

進學방향못잡고 당황

◇한산한 接受창구 대학입학 원서교부및 접수가 시작된 5일 각대학창구에는 모집요강을 사가는 학생과 학부형이 눈에띌뿐 원서를 접수하는 경우는 거의없어 한산했다. 【사진은 延世大정문수위실에 마련된 입시요강교부창구】

마감 臨迫 눈치作戰 더 심할듯

科別선호도 변화·資料없어 혼란

일선高校 정보·戰略얻기에 부심

83학년도 대입학력고사의 성적분포가 발표되자 학부모와 수험생자신은물론, 다년간 진학지도를 맡아온 일선고등학교의 진학담당교사들까지도 「대학선택기준」을 찾지못해 크게 고심하고있다. 이유는▲3백점이상 고득점자가 대입사상 최고인 무려 6천3백78명으로 지난해 (8백27명)에 비해 8배가량되고▲입시경쟁에서 영향력을 가장많이 행사하는 2백50점대 이상도 7만5천8백79명으로 지난해보다 3배정도늘어나는등 상위권과중상위권 득점자가 폭발적으로 늘었기때문. 게다가▲2개대지원에서 금년처음 1개대지원으로 바뀌었으며▲71년부터 실시한 계열별모집이 점차 둔화되다가 올해에는 대부분의 대학에서 과별모집을 택해 선택의폭이 좁아든데다 동점자가 많고 내신성적이 합격·불합격의 변수로 등장함에따라 입시관계인을 모두가 혼란을 당하고있다는것.

일선학교실무자들은 이번 학력고사결과가 빛은 모든현상과 학생들의 과별선호도, 눈치작전등이 복합적으로 작용, 이번 입시작전이야말로 사상유례없는 혼란과 눈치작전이 예상된다고말하고있다.

결과가 발표된5일 서울시내 일부고교에선 비상대책회의를여는등 암중모색을 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을찾지못한채 정보수집과 전략수립에 부심하고있다. 또 진학방향을 잡지못한많은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전화를걸거나 직접 찾아와『어느대학을 가야하느냐』고 상의하고있으나 지도교사들도 걱정만앞세우고 있는모습이 많았다.

진학지도교사들은 이런 혼미속에서 방향을잡으려 대학입시전문학원들을 찾아 참고자료를 구해 나름대로의 배치기준마련에 바빴다.

東星高3학년 담임 鄭起澤씨(33)는『사실상 진학지도교사들은 백지상태나 다름없다』고 털어놓고『개인별 성적이 발표되고 학교마다나름대로의 배치기준이 마련되는 7일이후에야 겨우 진학지도에 임할수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금년에는 많은 대학이 계열별모집에서 학과별모집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학과별자료가 없고 60년대의 학과별모집때 과별 선호도에도 변화가 있어, 학과선택에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같은 어려움을 덜기위해 汝矣島高등 많은 학교에선 별도로 학생을 대상으로 학과별선호도를 조사, 나름대로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기도 하다.

이학교 진학담당교사는 선호도조사에 따라 각대학학과별합격선을 선정, 6일하오에야 배치기준을 마련해 본격적인 진학지도를 펼방침인데 접수기간이 6일밖에안돼 학생에게 충분한 상담을해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 대부분의 학교에서 원서를 1장만쓰게돼 신중을기하고 그때그때의 접수현황에 따라 원서를 낼방침을 세우고있어 접수마감일인 12일에 임박해서는 극심한 눈치작전과 배짱지원등 비교육적인사태가 일어날것이 예견되고있다고 점쳤다.

진학지도의 어려움은 사립학교보단 공립학교에서 더욱 심하다. 공립학교에선 고3담임교사가 1년마다 바뀌어 한교사가 4~5년씩 고3을 맡는 사립학교에 비해 그만큼 진학지도에 애를먹고 있다. 공립인 S高의 金모교사(35)는『고3을 맡은지 1년밖에 안되는데다 이번 학력고사의 성적분포가 전례없는것이어서 갈피를 잡지못하고있다』고 털어놨다.

학생들의 초조도 대단하다. 京畿高3년李敎國군(19)은『지금상태로는 갈을 잡을수없다』며『진학지도 대로 학과를 먼저선택한후 배치기준에따라 대학을 지망할생각이나 아무래도 안전위주의하향지원현상이 두드러질것 같다』고 예측했다.

城東기계공고 3년 朴成德군(19)도『생각보다 고득점자가많아 내신성적의 비중이 그만큼 높아질것같다』며『학교에 문의해도 며칠기다리라고말해 현재로선 대학을 정하지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方政俊기자】

前期大원서접수 시작

入學전형 14일·합격자發表 21일

전국전기대의 83학년도 입학원서교부및 접수가 5일부터 각대학별로 시작됐다.

그러나 대입학력고사성적이 예상밖의 득점분포로 첫날은 지원기준을 정하지못해학생들은 원서와 입시요강을사가기만할뿐 접수창구는 한산했다.

전기대원서접수는 오는12일 마감되며 입학전형은 14일, 합격자발표는21일이다.

史上첫 0點수험생 이름만쓰고 白紙내

83학년도 학력고사에서 사상처음으로 0점을기록한 수험생은 이름·수험번호등 일체가 알려지지않고있는데 체력장에 결시한데 이어 학력고사에도 응시는 했으나 1·2교시에는 이름과 수험번호만 쓰고 백지를 냈으며 3·4교시는 결시, 0점 처리됐다.

學力고사 首席3명 具교육감이 장학금

具本錫 서울시교육감은 5일 낮12시 이번 학력고사에서 전체수석을한 洪承勳군(18·高麗高3년)과 여자인문계수석 閔裕淑양(18·培花여고3년) 여자 자연계 수석 金賢娥양(18·祥明여고3년)등 3명을 시교위로 불러 장학금을 주었다.

2백86點이상이 1等級

檢定고시出身 內申성적

문교부는 검정고시 출신자의 학력고사 성적에 따른 내신등급을 확정, 5일 발표했다.

이등급에 의하면 학력고사 2백86점이상 득점자는 내신성적 1등급, 2백69점이상 득점자는 2등급, 1백46점이하 득점자는 15등급의 내신성적을 각각 받게된다. <10면별표참조>

物證·목격자못찾아 琴湖호텔 放火사건

【大邱】속보=大邱琴湖호텔방화사건을 수사중인 大邱中部경찰서는 5일 범행을 자백한 朴長壽씨(23·부산影島區新仙洞1街209)에 대한 증거보강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방화사실을뒷받침해줄 물증이나 목격자를 확보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있다.

경찰은 朴씨의 자백만으로는 공소유지에 어려움이 있을것을 우려, 방화에 사용한 라이터용 기름과 신문지 섬낭등에대한 구입처및 출처와 朴씨가 방화후 도주시 호텔앞에서 승차했다는택시운전사에 대한 탐문수사, 방화이후 호텔을 빠져나온당시의 목격자등을 찾기위해 집중적인 수사를 펴고있으나 날상오 현재 뚜렷한증거나목격자를 찾지못하고 있다. 【聯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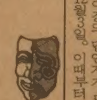
20代범인 검거 슈퍼마킷 殺人사건

【浦項】浦項市海島洞 한 슈퍼마킷 강도살인사건을 수사해오던 浦項경찰서는 5일 절도전과 金歆五씨(22·주거부정)를 경기도 抱川郡 抱川邑 도동리 자매식당에서 [illegible]잡았다. 金씨는 지난해 12월25일 하오10시50분께 浦項市海島洞85의14 한아름 슈퍼마킷에 손님으로 가장해 들어가 가게를 보고있던 차중회씨(39·여)으로부터 사과1개를 사고 과도를 빌어 사과를 깎아먹다가 갑자기 차씨를 위협하며 현금을 요구하다 이에 반항하는 차여인의 고함소리를 듣고 방안에서 뛰쳐나오던 차여인의 아들 韓昌泰군(15·浦項高1년)의 가슴등 여섯군데를 찔러 현장에서 숨지게하고 차여인에게 중상을 입히고 달아난혐의다. 【聯合】

「大入 採點官」

컴퓨터 "判定不能"도 3%나…

科技處 電算센터 崔榮和실장



대학입시는 영락없는 「홍역」이다. 수험생은 물론 학부모까지 몸살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데 한국과학기술원부설 전산개발센터 제3연구실장 崔榮和씨(36·사진)는 수험생도 학부모도 아니면서 매년 입시철만 되면 약방의 감초처럼 끼어들어 병고를 함께 치른다.

올해도 예외는 아니었다. 모두들 연말연시라고 흥청거렸지만 崔실장에게는 먼나라 이야기였다. 학력고사가 끝난 지난해 12월2일부터 답안지속에 파묻혀 오히려 더 바쁘게 지냈다.

2백68만여장의 답안지가 모두모여진것은 12월3일. 이때부터 직원 26명과 서울교대생 60명을 동원, 작업에 들어갔다. 우선 결시자를 점검하고 수험번호나 이름의 오기및 누락여부확인, 선택과목 표기의 오기여부, 수성사인펜을 사용하지않아 컴퓨터의 판독이 불분명한 답안지를 찾아냈다. 컴퓨터에 판독불능으로 나온 답안지가 전체의 3%나됐다. 고선택과목을 쓰지않았거나 잘못쓴것이 5백여건이나 됐다. 이런 답안지도 일일이 찾아내 채점을해주었는데, 매년 컴퓨터가 이상하다고 항의하는 학생의 90%가 이런답안지를 낸 사람이다.

채점은 학생의 일생을 좌우하기 때문에 정성을 다해야 하지만 또하나 신경을 써야하는것이 보안이다.

崔실장은 지난76년 이일을 담당해온 이래 보안때문에 많은 홍역을 치렀다. 4년전엔 수석합격자가 발표전에 누설돼 담당직원이 연구실을 떠났고 지난해에는 학력고사 누가 분포표가 새어나가 한달동안 문교부에 불려다녔다.

그러나 가장 큰 시련은 채점정확성 시비일것이다. 81년엔 4백여명의 학부모가 정부종합청사로 몰려와 할수없이 학부모,수험생,관계자들이 입회한가운데 컴퓨터의 과실이 없다는것을 입증해 내야만 했었다.

『오얏나무아래서 갓끈을 바로 매지않고 참외밭에서 신발끈을 매지않는다는 자세로 작업을 했읍니다』

학부모들의 담담한 심정은 충분히 이해한다지만 애써 일하고 항의받을 때의 섭섭함을 감추려하지 않는다. 그러나 어쨌던 그의 벼력은 날이갈수록 화려해질것이다. 교육열이 남다른 사회이니 어쩔도리가 없다. 【鄭在龍기자】

태창목재 倒産 月末에 門닫아

【釜山】국내굴지의 합판제조업체인 태창목재가 2백90억원의 빚을갚지못해 오는31일 문을 닫는다.

합판수출실적 수위를 다투던 태창목재는 지난79년 막대한 시설투자와 경기불황으로 빚더미에 눌리기시작, 지난81년10월 도산위기에 놓였으나 종업원들의 상여금반납등 구사운동으로 한국상업은행의 법정관리기업으로 넘어가 폐업의고비를극복했었다.

그러나 은행측은 계속 늘어나는 금리부담때문에 지난해 연말 태창목재를 정리할 방침을 세우고 현재 확보중인 수출물량의 생산을 위해 이달말까지만 공장을 가동시킨뒤 오는 31일 문을 닫기로 결정했다고 5일 회사측에 정식통보했다. 【聯合】

溫山송전탑 불 工團 斷電소동

【蔚山】5일새벽1시35분께 경남蔚州郡溫山面華山里溫山변전소 송전탑 애자부분에서 원인모를 불이나 溫山공단관내 기업체들로 들어가는 전류차단기(옥차단기)가 고장, 1시간여동안 고려아연을 비롯한 9개기업체에 전기공급이 중단돼 모두 6천여만원(회사추산)의 재산피해를냈다.

불이나자 울산소방서는 화학차2대등 모두 6대의 소방차량을 동원,발화 1시간10분만인 새벽2시45분께 진화했다. 【聯合】

5行뉴스

◆食水難76개섬 年內해갈 내무부는 5일 금년중에 7억6천4백만원을 들여 식수사정이 나쁜 76개섬가운데 45개소에 지하수를 개발하고 58개소에 저수탱크, 4개소에 간이상수도를 설치하며 급수선 4척을 건조하기로했다.

◆새마을號에 자동출입문 철도청은 자동출입문, 화장실에 에어타월을 설치한 새마을호 특실객차 10량을 6일부터 경부선에 연결운행한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2361

거구장

결혼·회갑·생일잔치·동창회및
각종 피로연 예약환영
■박소영과 그 악단
목,금,토,일 저녁
월 화 수 : 오전11시~새벽1시
목 금 토 : 오전11시~새벽2시
일 : 오후2시~새벽1시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고향의 맛
서울 하우스
한식, 중국요리
— 각종 국수 전문
일요일도 영업합니다
주7일 Open
영업시간 오전11시—새벽1시
615 BLOOR ST. W.
532-0602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현재 주류면허 신청중.

Grant Brown
GM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잘 정비된 각종 USED CAR
1575 WESTON RD.

이 한 구
☎ : 247-7161

여성교양생활지
주간 女性
판매처· 각한국식품점
지방구독자·3불 (우송료포함)
구독신청· 한국일보사
533·2361

佛光寺 법회안내
장 소 : 불 광 사
지도법사 : 석 광 옥 스님
법회안내 : 일요일 오전11시~12시(일반법회)
(청년회 교리연구)
일요일 오후7시~9시(좌선 : 참선지도)
주 소 : 288 Hownslow Ave. Willowdale, Ont
(Yonge & Finch)
전 화 : 223-9152

1회 國際학생柔道대회 개막
13개국出戰 한국 優勝후보
東京서

【東京=뉴】全日本학생유도연맹과 日本 요미우리(讀賣)신문사가 공동주최하는 제1회 국제대학생유도대회가 한국을 비롯하여 日本·蘇聯·프랑스·中共등 13개국 88명의 선수가 참가한가운데 5일 도오꾜(東京)武道館에서 개막됐다.

이번 대회에서는 6일까지 이틀간 나라별대항 단체전과 8종목에 걸친 개인전이 벌어지게되는데 한국·日本·프랑스가 유력한 우승후보국으로 지목되고있다.

대회첫날인 5일에는 단체전에 이어 86kg, 95kg, 95kg이상급의 3체급에대한 개인전이 벌어졌다.

한국은 단체1회전에서 프랑스와 맞붙게되며 여기서 승리할경우 日本—中共의 勝者와 준결승진출을위한 일전을 벌이게된다.

◇한국선수단명단

▲엑스트라·라이트급=裵龍(?)(용인대) ▲하프·라이트급=朴勝(?)(한체대) ▲라이트급=朴昶烈(한체대) ▲라이트·미들급=安炳根(유도대) ▲미들급=黃鍾鎬(용인대) ▲하프·헤비급=?秉?(유도대) ▲헤비급=趙容澈(유도대) ▲무제한급=金東?(동아대)

金煥珍을 KO로 도까시끼 장담

【大阪=뉴】프로복싱 WBA(세계권투협회)주니어플라이급 챔피언인 日本의 도까시끼·가쓰오(渡嘉敷勝男)는 9일 한국의 金煥珍과 오는 4일 오오사까(大阪)에서 가질 4차방어전에 앞서 인상적인 3라운드 스파링을 가졌다.

日本복싱논평가들은 도까시끼가 2명의 日本人파트너를 상대로 벌인 스파링에서 빠른 왼쪽잽과 조화있는 강타를 구사했다고 말했다.

지난81년12월 金煥珍으로부터 타이틀을 빼앗은 도까시끼는 「10회전 안에 金을때려 누이겠다」고 장담했다.

한편 金煥珍은 이날 스파링을 가지지 않았다. 감기를 앓고있는 金은 루전 오오사까에서 가진 3라운드 스파링을 시종 침울한 모습을 보였었다.

裵錫哲 세계挑戰 혼선
WBC서 "21일 오로노와對戰" 벼락發表

◇라파엘·오로노

◇裵錫哲

裵錫哲의 세계도전을 둘러싸고 혼선을 빚고있다.

베네수엘라에 본부를둔 WBC(세계권투평의회)는 WBC 슈퍼플라이급 챔피언 라파엘·오로노(베네수엘라)가 오는 21일 카라카스에서 한국의 裵錫哲과 타이틀1차 방어전을 가질것이라고 5일 발표했으나 裵錫哲의 매니저 柳和龍씨는 『오로노측과 타이틀매치 협상을 벌여온것은 사실이나 이렇게 서둘러 대전날짜를 발표할줄은 몰랐다. 시일이 너무촉박하므로 게임을 한달이상 늦춰야 경기에임할수있다』고 밝혔다.

현재 방위병으로 복무중인 裵錫哲(23)은 연습이 부족한 상태에 있는데 81년9월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WBA주니어 밴텀급 챔피언 자리를 놓고 구스타보·바야스와 맞서 8회TKO패했었다. 전적은 17승(8KO) 1무1패.

오로노는 지난해 1월 金喆鎬를 KO시키고 WBC슈퍼 플라이급 王座에복귀했다.

金始眞, 三星팀入團
張孝祚와 같은待遇

82년 아마추어 야구최우수선수 金始眞(24)이 5일프로야구팀 三星 라이온즈에입단했다.

82년 실업야구에서 최다승(8승), 최우수방어율(1·66), 최다구원(5게임)의 3부문을 휩쓴 金始眞은 『프로데뷔 첫해의 개인목표는 최다승, 팀우승』이라고 말했다.

金의 입단조건은 계약금 4천만원, 연봉2천4백만원으로 張孝祚와 같은수준이다. 金始眞은 2월제대후 팀에 합류하게 된다.

MBC 李在煥코치 코칭스탭不和 辭退

한편 프로야구팀 MBC 靑龍의 李在煥코치가 코칭스태프간의 의견이맞지않아 코치직에서 사퇴했다.

야구協 林光廷회장 辭意

林光廷대한야구협회장(63)이 갑작스럽게 사의를 표명했다.

林회장은 5일 협회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자청, 일신상이유로 회장직을 사퇴할 의사를 분명히 했다.

林회장은 지난79년10월 9대회장으로 취임, 82년 제27회세계야구선수권대회를 서울에서 개최했으며 82년2월 아시아야구연맹(BFA) 회장으로 피선되었었다.

야구협회는 林회장의 사퇴로 오는13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후임회장을선출케됐다.

林회장은 이날 상무이사에게도 알리지않은채 기자회견을 자청, 사퇴발표를 하려다 신년인사차 들렀던 부이사들의만류로 신년인사만을하고 퇴장했으며 대신 朴峻圭전무이사가 林회장의 사의를 표명한 배경을 설명했다.

한국일보
구독 신청은
TEL : (416)533 · 2361

축구元老 閔丙大씨

대한축구협회부회장과 국가대표팀 감독을역임한 원로 閔丙大씨가 숙환으로 지난 4일 하오8시5분 자택(서울 종로구 효제동 45의14)서 별세했다. 향년65세.

축구협회는 고인의 장례를 축구협회장으로 엄수키로 했으며 6일상오11시 효창구장앞 광장에서 영결식을 올린다.

閔丙大씨는 48년 런던올림픽을 비롯한 각종 국제대회에 대표팀 FB로 출전, 맹활약했으며 현역은퇴후에도 실업축구연맹회장, 실업팀 감독등을 맡아 한국축구와 더불어 살아왔다.

유족으로는 미망인 宋在英여사와2남2녀. 장지는 경기도김포군 하성면선영. 연락처 ⑫6230.

曺 五輪委사무총장 중계료협의차 向美

曺相鎬서울올림픽조직위원회(SLOOC) 부위원장겸 사무총장은 88서울올림픽의 중계료협의등 중요현안을 협의키위해 6일 美國으로 떠난다.

亞洲농구 巡廻경기 말聯구상, 韓·日등

【콸라룸푸르=뉴】말레이지아 농구협회는 아시아게임 남자농구우승국인 한국을 비롯, 日本·필리핀·홍콩·말레이지아등을 포함하는 아시아농구순회경기를 구상중에 있다고 콸라룸푸르의 뉴·스트레이츠·타임즈紙가 4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그러나 이 순회경기계획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아시아농구순회경기계획은 오는 11월 홍콩에서 아시아농구연맹(ABC)선수권대회가 열릴때 ABC에 제출돼 승인을 받아야 한다.

趙名人, 加藤9단에 不計…2연승

일본서 활약중인 趙治勳名人은 제7기 棋聖戰도전자결정 3번기 제2국에서 가또·마사오(加藤正夫)天元을 물리침으로써 2연승으로 도전권을 획득했다.

東京의 日本기원에서 열린 이날 대국에서 흑을쥔 趙名人은 초반부터 대세를 리드하여 이날밤 11시21분 187수만에 불계승을 거두었다.

이로써 趙名人은 日本최대의 타이틀인 棋聖位를 두고 후지사와·슈꼬(藤澤秀行)棋聖과 도전7번기를 갖게 됐다. 도전7번기의 일정은 확정되지않았으나 내년1월12일께에 시작될것으로 예상되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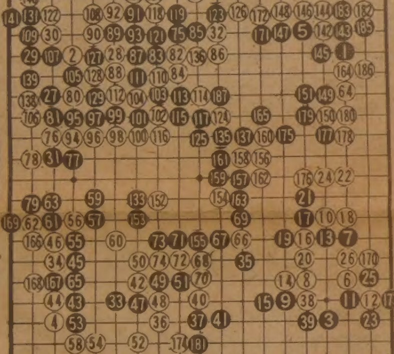
이날 趙名人은 제1국과는 달리 1·3수를 소목에 두고 天元은 2·4수를 화점과3·3에 두는등 실리와 세력의 조화를 꾀했다.

흑은 초반 23수로 많은것이 완착으로 고전했으며 77수부터는 초읽기에 몰렸다. 그러나 白은 108수로 이은것이 의문수로 이 수를 4의 一에 두었더라면 흑이 시간부족으로 어려웠을것으로 지적됐다.

이 바둑을 시종 지켜본 후지사와棋聖은 趙名人이 초읽기에 몰리면서도 정확히 응수한데 감탄하면서 가또天元이 큰 대국에임해 정신적으로 위축된것같다고 평했다.

◇趙名人

【東京에서=趙祥衍五段記】



◇제7기 棋聖戰 도전자 결정전
3번승부 제2국 總譜(1～187)
黑 名人 趙 治 勳 9단
白 天元 加 藤 正 夫 9단

제14기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6局 總譜 293手完

(각5시간·덤5집반)

白(4段) 姜 勳 〈2勝1敗〉
黑(7段) 盧 永 夏 〈1勝2敗〉

盧7段 첫勝利

【黑4집반勝】올해는 꼭 도전권을 따내겠다고 절치부심하던 姜4단은 이바둑을 분패함으로써 일단 기세가 꺾였다. 다만 지금까지의 예로보아 나머지 3국을 전승하고 5승1패가 되면 혹시 동률 재결승도 바라볼수 있을것이니 조급하게 실망할 필요는 없을것 같다.

盧7단은 이것으로 겨우 1승을 올렸으나 2패한부담은 아직도 크다. 역시 앞으로는 단1패도 안할결심으로 분발할것을 바라는 바이다.

제법 파란이 많았던 이바둑을 예에따라 대충 훑어보기로한다.

白은 포석초기 22, 24가 방향착오였다. 22로는 黑23자리를 갈라칠 시기였는데 소극적으로 삭감하는 바람에 포석에서 상당히 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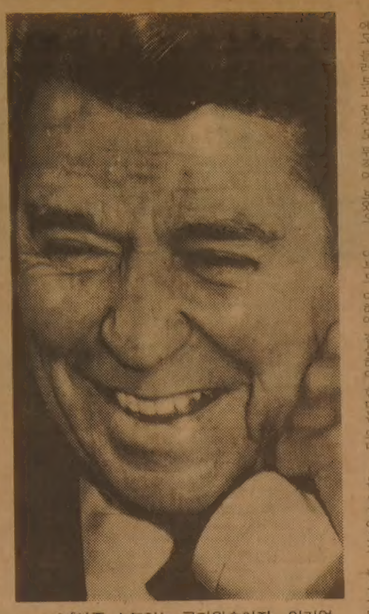
또 좌상 黑27이하의 절충에서 白34는 178자리를 잇고 회돌이하는것이 유리했으며 다음 좌변 白36이하의 전투는 黑49까지 필연이기는 하나 白은 黑귀를 유리한 대신 48까지의 白대마가 미생마로되어 불만스러운 결과였다.

우변 黑63의 침입으로 白은 한때 고전에 빠졌다가 82까지 귀는 수습했지만 白66 한점을 잡긴 손실이 컸다.

이뒤 白은 우변을 90이하로 유리한 성과로도 대세를 호전시키지 못했고 끝내기 단계에서는 최강최선을 다했지만 역전에 실패했다. 黑으로서는 시종 공세를 취하여 착실히 승리한 가작이라하겠다.

209…4。267…134。291…202。293…218。【一凡】

對內外 가장 집스러운 해
世界를 움직이는 '83主役들 ①
레이건 美大統領


◇「아주 人氣있는 국가원수이자 인기없는 정부책임자」라는 評을받고있는 레이건美國대통령。새해에 그는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나갈것이며 국내의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갈것인지。

레이건대통령은 대중설득에 솜씨있는 사람으로 정평이 나있다. 백악관에서의 회견이나 TV회견에서 그는 어떤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도 조크나 익살섞인 답변없이 넘긴적이 거의 없다. 그런 그의 익살이 퇴색했다고는 말할수 없지만 지난해 연말의 어느 주말 정례 라디오 기자회견에서 연설을 끝낸후 기자들의 질문에서는 좀 감상적인 답변을 했다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었다.

「나는 때때로 철창안의 새같은 느낌을 갖는다. 펜실베이니아 거리(백악관앞거리)를 창문을 통해 내다 보며 저 거리로 걸어 나가 군중이 가게에도 들러보고 잡지도 뒤적여 보았으면 하는 생각을 하기도 한단」 이런 구절은 그후 신문에도 인용되었고 레이건의 최근 심경을 가장 잘 나타낸 구절이란 주석이 붙기도 했다.

카터에 대한 실망과 자신의 개인적인 설득력이 겹쳐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레이건은 그의 재임기간의 중반, 정확히 말해 지난 11월의 중간선거를 고비로 시련기를 맞고 있다.

失業대책·再出馬 단안

10.8%라는 실업등 국내문제와 對소련, 중동에서의 대외문제까지 겹쳐 1983년은 그에게 가장 짐스러운 해가 될것이고, 1984년의 재출마 여부도 이해에 결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더욱 그렇다.

레이건은 천성적으로 낙천적이다. 산적한 문제들을 앞에 놓고도 그는 역대 미국대통령가운데 가장 백악관에 적게 있는 대통령으로 기록될만큼 주말이면 거의 예외없이 캘리포니아의 목장으로 날아가 말을 타거나 하며 휴일을 보낸다.

보좌관들이 휴일마다 워싱턴을 떠나는것을 만류해도 막무가내, 자연 특히 들과 산을 좋아하는 그의 개인소유목장 델·시엘로는 캘리포니아 일대에서 손꼽히는 목장으로 되어있다.

중간선거개표때인 지난해 11월2일 저녁 공화당이 하원에서 대패하리라는 TV예고가 나오고 있을때 레이건은 어김없이 10시반 잠자리에 들었다. 잠시후 수석보좌관 제임즈·베이커에 의해 나온 코멘트는 「공화당이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적게 의석을 잃은데 대해 안도한다」는 것이었다.

이점 고민을 안고자는 카터와는 아주 대조적이라고 사람들은 말한다.

백악관의 보좌관중 가장 오랜 친분을 갖고 있는 미첼·디버에 의하면

힘바탕 協商·脫不況 계속
輿論適應등 變化도 예상

레이건은 그러나 조심스런 구석도 많다. 레이건의 인기가 81년1월 취임을 기점으로 줄곧 하향勢였지만 「선의를 가진 대통령」이란 국민들의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그의 지지자들은 믿고있다.

레이건은 몇가지 원칙같은 것을 가지고 시작했다. 어떻게보면 이것은 거의 확신같은 것이다. 이 확신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의 급변하는 사태에 대한 적응력, 즉 융통성은 없어진다. 그리고 이 융통성없는 확신이 정책으로 되어 나올때 미국 안팎에서 비판의 소리는 거셌다.

레이건의 기본원칙이란 이미 널리 알려진것처럼 미국의 재건, 즉 힘으로 강하고 경제적으로 부유한 미국을 다시 회복시켜 보자는 것이며, 다음으로 보다 개인의 활동영역이 더 크게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訪問 가능성 높아

그럼 이런 원칙내지 확신들이 새해들어 어떤 정책으로 형태를 갖추어 나타날 것인가. 보좌관들은 그의 보수적생각에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하면서도 그러나 그의 사태에 대응하는 적응력면에서는 많은 변화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레이건의 새해과제는 국내,국외로해서 몇가지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우선 국내적으로는 그의 지론인 예산과 세금삭감, 작은 정부의 실현, 失業극복에 의한 경기부양책이며 군비증액에 힘입은 국방력강화가 될 것이다. 이에 기초하여 국외적으로는 對蘇군축협상및 경제제재의 계속, 유럽미사일배치문제, 레바논평화방안의 추진, 보호주의경향에 따른 세계교역의 원활화등으로 집약할 수 있다.

레이건은 행정부 밖에는 물론 안에서조차 숱한 비판을받고있는 소위 레이거노믹스라고 일컬어지고있는 그의 경제정책의 대원칙, 즉 연방지출예산삭감과 세금부담삭감이 궁극에는 구매력으로 나타나 인플레를 자극하지 않고 미국을 불황으로 부터 건져낼것이라는 정책기조를 그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시사한바 있다.

이런 원칙은 구체적으로 재정결손을 각오한 축소예산편성과 복지예산삭감, 조세감면, 공무원 감원에의한 정부규모축소등의 시책으로 나타났으나 그때마다 적지않은 부작용을 동반함으로써 지난2년간의 정책은 결과적으로 성공을 거둔것이 없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레이건은 새해에도 이런정책기조를 바꾸지 않을 것이지만 경기부양을 위한 몇가지정책에서는 의회및 일반국민의 여론에 상당히 적응하는 융통성을 보일것 이란는것이 일반적인 관측이다.

보좌관들은 이러한 적응적 자세가 대외정책에서도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작년 유럽과 남미를 방문했던 레이건은 새해들어 아시아를 방문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일부 전해진 얘기로는 중공,일본,한국등이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폴란드」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현저한 사태의 발전을 보지 못하면서 워싱턴과 유럽 우방과의 관계만을 버려 놓았다는 비판을 받았던 레이건의 對소련강경자세에 현저한 변화가 있으리라고보는 것은 레이건의 성향에 비추어 생각하기 어렵다.

레이건의 對소련 접근과제는 우선 군축이다. 군축문제에 있어서 미국의 자세란 실질적 의미에서의 同水準 감축의 데드라인같은 것이다.

政策비판속 人氣 유지

중동에서의 급선무는 물론 레바논에서의 외국군의 철수실현, 요르단江서안에 대한 팔레스타인 자치령 설치협상이 다음 과제가 될것이며 유럽미사일배치, 對소경제제재를 비롯한 동서교역문제, 나아가서는 미국 경제자체에 영향을줄 세계교역의 문제등이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금년은 그에게 1984년 재출마여부를 결정해야할 해라는데 초점을맞추어 나갈것같다.

레이건은 그의 경제정책이 거의 송두리째 불신당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이상할만큼 그의 인기는 그렇게 나빴던 것은 아니다. 가장 최근의 여론조사로는 48대 45로, 아직도 지지쪽이 강하며 이것은 정책보다 개인이 풍기는 인상에 더 힘입은 바 크다.

물론 레이건은 재출마여부에관해딱부러지게 말한적은 아직없다. 하지만 레이건의 정책에 반대표를 던진 공화당의원들까지도 그가 재출마할 것이며 그럴경우 승산도 있다고 서슴지않고 말한다.

레이건은 오는 2월6일로서 72회 생일을 맞지만 아직도 매일 운동을 하고 식사나 체중에 신경을 쓰고 있으며 최근에는 그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가슴둘레가 1.5인치(3.8cm)나 늘어날 정도로 건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레이건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여건들, 개인적 인기와 비판받은 정책들을 두고 어느 칼럼니스트는 이렇게 썼다. 『레이건의 임기중간에서가장 흥미있는 현상은 그의 개인 인기가 그의 정책보다 월등하다는점이다. 그는 아주 인기있는 국가원수이자 동시에 인기없는 정부책임자다. 국가원수로서 그는 국민의 신망을 계속얻을 것이나 그의 정책들은 시정돼야 한다』

【워싱턴=李文熙특파원】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310>
부드러운 겨울 ㊳

수지에게 다시 고통스러운 혼란이 왔다. 그 다섯아이를 떠맡느니보다는 차라리 일생동안 죄의식을 걸머지고 사는게 낫다고 이미 굳힌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일남이가 혼자서 그 끔찍한 고역을 치는걸 어찌 보랴. 수지는 그 극성스러운 계집애들이 미운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남이가 사랑스러웠다.

수지는 대중식당 네모난 식탁에 나란히 둘러앉은 다섯아이를 보며 생각했다. 죄지은지는 죄의식이란 뭘까. 죄지은지는 오래고, 지금 이다지도 고통스러운 죄의식을 편안히 망각하고 지낸세월 또한 오래지 않은가. 그러나 자신의 기억이 그것을 완전히 밀어내고있는 동안도 그것은 운명의 그늘에 숨어서 쉬지 않고 사술을 잇고있었던 것이다. 도저히 빠져 나갈수도 피할수도 없는 사술을. 그리고 미움의 사술보다는 사랑의 사술이 훨씬 더 질기고 준엄하다는데 수지는 못내 치를 떨었다.

천기사의 도움으로 수지는 그날로 오목이를 Y대 부속병원에 옮길수가 있었다. 두 아이를 다 그 병원에서 분만했다는것 말고는 이렇다할연고는 없었지만 응급실을 거쳐서 일인실에 입원을 시킬수가 있었다.

『어머, 이게 언니네자가용이유? 사람 오래 살고볼거네. 나같이 박복한게 이런 호강을 다하고…』

오목이는 차속에서 순배의 시트커버를 어루만지며 이렇게 황홀해하느라 어디로 가느냐고 묻지도않았고 Y대병원에서는 다시 일인실이 과람해서 어쩔줄을 모르느라 집으로 가자고 떼쓰거나, 돈걱정을 하는것도 잊어버린것 같았다.

결핵병동이라 아이들의 출입은 엄금이었다. 환자를 돌볼사람을 따로 구하기도 쉽지않았다. 결핵병동은 다들 꺼린다는 거였다.

수지는 밖에서 별상을 하는 아이들이라도 우선그녀의 집에 가있게하려고했지만 일남이가 막무가내로 싫다고했다. 일남이의 고집을 굳이 꺾자면 못꺾을 것도 아니지만 소년의 자존심이 기특해서 그대로 내버려두었다. 그리고나서 다시 오목이가 집으로 데려다달라고 보채기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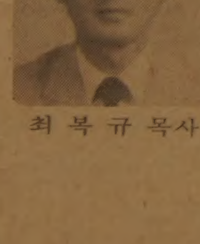
『언니, 내가 누굴 믿고 이런 호강을한대요? 이럴줄 알았으면 그 한바가지나되는 계집애들한테 밥 끓이는법, 구멍탄 가는 법이라도 가르쳐둘걸. 없이사는주제에 부자집 딸년들모양해 주는 밥죽냄 기술한가지밖에 가르쳐놓은게 없으니』

이렇게 지지궁상을 떨면서 누운 자리를 편치못해 했다. 수지는 그 꼴이 보기싫어 휘하니 산동네로 치달았다. 가면서 반찬거리와 주전부리거리 몇가지샀다. 일남이가 밥을 끓이고 아이들은 방안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일순이까지 불러내어 같이 반찬을 만들고 어린애 기저귀를 빨고 하면서도 아이가 자그마치 다섯이란 생각은 고약한 악몽처럼 그녀를 짓눌렀다.

자그마치 다섯이야. 이번에도 오목이를 모른체해야 돼. 이 만큼 봐줬으면 속죄는 충분한데 뭘 또망설이니. 오목이를 납남으로 죽게할수 밖에 없어. 오목이가 죽음으로써 일남이와 약속한 임시 친척 노릇은 자연히 소멸할텐데 뭘 두려워 하니.

이렇게 자신을 윽박지를순 있어도 자신을 속일순 없었다. 그녀가 정말로 두려워하는건 다섯아이보다도 마음속으로 오랫동안 염원해온 걸 할수있는 마지막기회를 놓치는 거였다. 마지막이라니. 그 기회가 유보되거하고 아주 가버린거 하곤 얼마나 다른가? 그녀는 그 기회를 영영 놓치고난 자신은 상상만으로 혐오스러웠다.

신년축복대성회


최 복 규 목사

금번 저희 중앙교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은혜와 능력의 종 최복규목사님을 모시고 부흥성회를 개최하고져 하오니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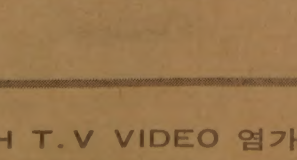
▶강사소개▶
- 세계부흥선교회 회장
- 대한신학교 교수
- 북한선교회 이사
- 한국중앙교회 담임목사
- 선교100주년기념대성회 발기및 실행위원

◇강사 : 최복규목사
◇장소 : 토론토중앙교회(502 Bathurst at College)
◇일시 : 1983년1월19일(수) —23일(주일)
매일저녁 7시30분·
새벽기도 6시(토·일)· 낮공부 10시(토)

토론토중앙교회
당회장 정관일목사및 교우일동

ZENITH HI-TECH
BETA VIDEO RECORD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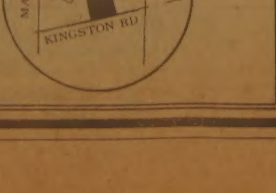
SPECIAL OFFER!



VR9760W • Clear Special Effects Playback
- Dependable electronic tuning with 14-position channel selection
- Programmable 14-day, 4-event auto record timer
- Remote Video Action Control with Slow Motion
- Superb Beta picture quality with CLEAR playback
- Picture Speed Search in forward and reverse
- Audio Dub and more!

● ZENITH T.V VIDEO 염가판매
● T.V VIDEO STEREO & RADIO 수리합니다.

Town and Country
882 KINGSTON ROAD ☎691—2000
SALES & SERVICE 김 광래



★카텐을 원하십니까?
안심하고 믿고 찾는 럭키 Drapery
◉품질 다양
◉저렴한 가격
◉성실한 써비스
4141 Dixie Rd.(딕시 × 버남돌프)
전화 : 625-0698 최 원 보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빅·세븐 선물쎈타
●중국산·한약·직수입
●인삼·녹용 :
●각종 귀국용 선물용품등.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대표 : 김 영 철

T.V 수리는 431-0102
전화 : 431-0102 Mr. 박

소 독

ZAP SUREKILLER 전화: 368-9018, 366-0960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레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시설및수리

"Kim's Installation & Repair"
설계및 실내장식, 건물구조변경, 지하실 꾸밈,
Paint, 각종유리 일체를 취급, 상·하수도 욕탕 각종타일
시멘트공사, 전기시설및 수리(전기제품 포함)
전화 : 425-8585, 535-4441(R) Mr. Kim

"집수리·신건축·목수일"합니다. 빈가게및 건물 주로 변경, 지하실 전문, 진열장 카운터 제작, 스틸 쎌링, 페인팅, 타일, 세멘트일 등, 설계, 실내장식, 신축, 상담, 허가시공, ◉전화 : 669-5784(Mr. 심)

KIMBO ELECTRIC CO.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 보수 · 가게신설 · 용량증설등 전기일 일절
전화: (B) 245-5544 (PAGING) 2790, (R) 255-2161 김 부 원

KIM ELECTRIC LTD. I.B.E.W. UNION MEMBER
MET. LIC. E1018, 전기시설·보수·경보장치 설치·Fire Alarm
전화: 438-3795 김영호

KW Electrical Services Met. L.. E-1267 Miss. Lic. 3312
◉주택, 상점, 공장의 전기시설, 보수, 증설 일체
전화: 791-1973 지경원

식 당

아 리 랑 식 당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영업시간 : 월~일요일까지=낮12시~새벽1시까지
716 BLOOR ST. W. TORONTO 전화: 532-2727

거 구 장
5 BETHRIDGE RD. 전화: 742-1618

오리엔탈팔레스·뉴서울식당
529 BLOOR ST. W. TOR.
예약 : 533-3545~6

코 리 아 하 우 스
666 BLOOR ST. W.
전화: 536-8666

한 국 관 628 BLOOR ST. W. 전화: 536-0290, 531-0277
냉면, 곰탕, 갈비및 중화요리 전문,
OPEN 11 : 00AM~1 : 00AM 대소연 200석 완비

블링톤하우스 각종모임(동창회·계등)을 위한 조용한 분위기 별실마련. 간단한 중국요리도 취급(저렴한 가격 봉사) 전화: 535-9541
693 Bloor St. W

호 심 (Korean & Japanese Restaurant)
1st Canadian Place Concourse Level in the Food Market
100 King St. at Bay(P.O.Box 329) Tel: 368-0686

Rose Garden(중국집)각종 파티, 회의실 마련.
홍콩식 중국요리전문, 각종술 취급.
538 St.Clair Ave. W.(Bathurst) 전화: 656-0456, 654-6609

서 울 집
고향의 맛, 한식·중국요리, 각종국수 전문
615 Bloor St. W. 전화 : 532-0602

그라나다(GRANADA)음식점
피로연·회갑·동창회·각종모임·계(예약환영)
920 Yonge St. 전화 : 923-3060

내고향통닭집
고향의 미각, 통닭·김밥·우동·곰탕·만두·빈대떡등…
658½ Bloor St. W. Tor. 전화 : 537-0432

KOTO 일본음식점 ◉사시미·생선초밥·덴뿌라 등…
영업시간: 수·목-5:30pm~11pm 금·토-5:30pm~12pm
5304 Yonge St.(at Finch) 전화: 221-1621 월·화는 휴업.

마쵸 레스토랑
각종한식·중국식·양식취급. 주류일체 취급.
4035 Gordon Baker Rd.(스카보로) 498-1300

식 품 점

삼복식품
★불고기·갈비는 맛좋고 기름이 적은 삼복식품으로….
★겨울김장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고 맛이 최고인 삼복김치로 대용하세요.
2437 Finch Ave. W. Weston 전화: 743-8270

제일식품
▲저렴한 가격 ▲품질보장
▲배달함 ▲파킹장준비
712 BLOOR ST. W.
전화 : 532-1054 오 석환

서 울 식 품(동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367 PITFIELD RD. 전화 : 291-8317

서울식품 (서부)
◉친절한 써비스 ◉저렴한 가격 ◉김치전문(도매가격)
1391 Weston Rd. 전화 : 243-9544

한인 식품
▲각종 한국식품 취급 ▲달걀·감자등 도매, 배달
15 West Dean Pk. Dr.(East Mall Plaza) 622-2643 손덕수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주시면 됩니다.
★한국일보 : 533-2361

실 내 장 식

Office·Store·Restaurant·Residence
Design, Permit and Construction
FINE DESIGNS 622-5328 조 덕남

액 자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32A REXDALE BLVD. REXDALE
전화 : 746-2120 조 혜 숙 조 성 호

악 기 점

피아노 수리·조율·재생·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전화 : 636-1430(R), 665-8233(B)
주소 : 855 ALNESS ST. UNIT 13 이 상 철

와그너 피아노
(B) 445-1516, 449-8644
(R) 286-1548, 박 성희

양 장 점

샘 터 의 상 실
숙녀복 · 파티드레스 · 웨딩드레스 · 단체주문환영
606 Bloor St. W. 전화 : 535-4441 디자이너 MR. 김

MIRAGE BOUTIQUE(구 코스모스숙녀복집)
각종 고급숙녀복 취급. 704 Bloor St.W. 전화: 530-1870
오전 11시~오후 6시30분, 금요일은 오후 8시30분까지.

에어콘 히팅 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 HOUR SERVICE-
전화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PALMER'S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시설 · 판매 · 수리
전화 : 494-0512(B) 493-9945(R) 김 봉 균

CENTURY
(냉동기 시설및 수리)
전화 : 221-5441 Mr. Lee

KIM 냉장고 · 에어콘
시설 · 수리 · 판매
전화 : 749-3178 김 진 환

Richvale ◉Heating, Cooling & Electrical
◉24시간 Service.
전화 : 752-0404 Mr. 오

Enco Mechanical 냉동기·히팅(전기·개스) 수리·설비.
Lic. Mechanic, Engineering Technician
전화: 769-5956 김명근.

여 행 사

신 세 계 여 행 사
712 BLOOR ST. W.
전화 : 536-2155 김 창 범

서 울 여 행 사
631A BLOOR ST. W.
전화 : 535-6004, 535-8801 최 동 주

제 일 여 행 사
649A BLOOR ST. W.(김종조종합보험 옆)
전화 : 535-2377 유 지 원, 신 용 목

북 미 여 행 사
376 QUEEN ST. E.
전화 : 368-9018, 366-0960 임 태 호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한국일보 : 533-2361

운 동 구 점

브랜든운동구점 (종합운동구점)
각종단체 유니폼및 트로피, 골프, 스키장비
일체 취급
337 BLOOR ST. W. 전화 : 598-3732 이건영

MUNAMI TROPHY & SPORT
각종단체 유니폼, 트로피, 기념타올, 각종골프채등 취급
880 Ellesmere Rd. Scarboro. 전화 : 298-3584 이기훈

운 전 학 교

아스트라운전학교
761 JANE ST.
전화 : 741-6099(B) 743-3377 Mr. Eastman

Agincourt Driving School(Eastside of Metro Toronto)
18년간의 운전교육 경험으로 성실히 모심. 스카보로(동쪽지역)은 Ride 제공함. 전화 : 291-8304 (불라도)

UNITED DRIVING SCHOOL.
특별할인 수업료 $149. 온타리오 안전 수료증을 발부합니다.
•10번 의 드라빙 수업 •25시간의 교실수업
•본 수업을 끝낸 후 41%까지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수 있음.
•인컴텍스에서 면제할수 있음. 2300 Lawrence Ave. E. #14
★이 광고를 가져오시면 $20할인 해 드림. 시간당 12불로 특별운전 교습을 할 수 있음. Tel : 431-2596

의 류 수 선

양장 맞춤·주문배수(수리는 남녀양복 모두 취급)
여성복 Design 변경 또는 재단만 원하셔도 해드림
100 Glenshields Ave. 전화 : 669-5784 Mrs. Kim

인 벤 토 리

INVENTORY - 인벤토리 -
1)STORE인수, 인계 INVENTORY
2)STORE 정기조사 INVENTORY
3)STORE 납세대비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전화 : 259-5822·255-8301(B) 252-2963(R) Mr. 오

INVENTORY - 인벤토리 -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전화 : (B) Anytime 536-6250 호 세 환

컴퓨터 식자 서비스 : 533-2361

인 쇄

비둘기사진식자인쇄소
87 Apache Trail Willowdale, Ont.
전화 : 493-8894 윤 종 대

칠성인쇄소, 칠성광고
1559A Eglinton W. TOR. ONT. M6E 2G9
전화 : (B)789-7351, 789-7352 대표 : 이 인 용

스피디인쇄소
619 BLOOR ST. W.
전화 : 535-3520 곽 호 중

ADVENT 프린팅
6028 Yonge St. (영×휜치 북쪽)
전화 : B)221-3737, R)224-1133 임 운 철

자동차매매

GRANT BROWN G.M. (폰티악, 뷰익, 캐딜락)
1575 Weston Rd.
전화 : 247 - 7161 이 한 구

MARVIN STARR G.M.(폰티악·뷰익)
3132 Eglinton Av. E. Scarboro.
전화 : 264-2311 조 의 문

North York Chev-Olds Ltd.
○. 시보레, 올스모빌, Van및 각종 중고차(lease도 취급)
○. 가장 오랜 경험의 쎄일즈맨
○. 철저한 After-Service
7200 Yonge St. (영 × 스틸)
전화 : (B) 881-5000 (R) 221-2979 김 병권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사고차량 24시간 토잉, 사고시 보험관계 처리
수리중 차대여, 페인팅 (Oven Bake Finish)
교포특별대우, 95 Portland St. Etobicoke.
전화 : 255-2111(B), 828-5001(R) 전 기 덕

ANCHO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무료견적 ▲두꺼운 페인팅
▲토잉 써비스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전화: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ALLEN AUTO SERVICE
▲GENERAL AUTO SERVICE ▲TUNE-UP
▲BRAKE JOB ▲TIRE ▲TOWING SERVICE
▲ENGINE OVERHAUL ▲ELECTRIC PROBLEM
▲AUTOMATIC TRANSMISSION ▲OIL CHANGE
주소: 521 KEELE ST. TOR. 전화: 762-3247 정 용 태

자동차 출장수리 (오전및 주말)
INTERPROVINCIAL LICENCE MECHANIC
전화: 749-9749 Mr. 박

CENTRAL AUTO SERVICE 김 창 세
▲Tune up ▲Safty Inspection Certify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532-3946

ROGERS GARAGE (자동차 수리일체)
20 Rogers Rd. 변 달 원
전화: 651-9324(B), 226-5430(R)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BLOOR & 키플링)
전화 : B) 231-6951, R) 742-5406 오 세 호

CITY WIDE RADIATOR SERVICE 김 용 환
라지에타 -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전화 : 245-1978(B), 248-6032(R)

FIRST AUTO SERVICE
1521 QUEEN ST. W. 최 이 락, 김 한 호
전화: (B) 532-0200, (R)537-5830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장 의 사

장의사(R.S.Kane Funeral Directors)
모든 장의관계 일체 취급
4812 Yonge St.E.(세파드써브웨이) 전화: 221-1159

Toronto Memorial Funeral Home
721 Bloor St. W.(at 크리스티 써브웨이)
전화 : 536-6250 호세환, 530-1222 Mr. 왕

광고문의 533-2361

카펫 · 카텐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페트·브라인드
2338 LAKESHORE BLVD. W. WINDOW SHADE
전화 : (B)252-4857 (R)252-6602 유 원 덕

카페트 크리닝 : 카페트·소파·쉐어·자동차시트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전화 : 439-6277 Mr.박

타 자 기

공병우 한영타자기 캐나다 총대리점
한글과 영문을 함께 칠수 있음.
전화 : 245-0995 김영수

태 권 도

손명수 태권 ·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8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전화 : 763-1155

완인태권도 完人跆拳道
교포 할인우대
이경태, 이현우사범 직접 책임지도
★중앙도장: 2281 YONGE ST. 전화: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E. 전화: 759-2500

치 과

Dr. Mark Kochman ◉전화: 233-9454, 233-4888
(월~토)9:00am-6:00pm, (목)9:00am-9:00pm
3101 Bloor St. W. Ste 203. "Season's Greetings"

하 드 웨 어

Bloor & Bathurst Hardware
전화 : 531-6183 변 의섭

한 방 원

동양한약상사
20여년의 경험과 연구로 귀하의 문의에 응하겠읍니다.
정확한 진맥, 한방처방조제및 치료상담, 녹용, 웅담, 인삼,
우황청심환, 전자침, 지압치료, 자외선치료, 적외선치료.
온타리오 면허소유 함병섭 M.C.I.C. R.M.
• Downtown Office : (416)537-6685 8am~6 : 30pm
621 Bloor St. W. 한국관 맞은편 Toronto
• Willowdale Office : (416)222-9485 7pm~10pm
244 Finch Ave. E. (Yonge St.에서 Bayview근처)
VISA 또는 MASTER CHARGE 환영

하르빈한약상사
20년동안 침구를 연구함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20년간 하르빈한의대학교수
중국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정확한 진단과 처방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전화 : (B)536-6854, (R)921-3382 서 춘 봉

보광한약방 (총계 김남집)
임상경력 30여년, 사암오행 침구전공
특히 만성질환, 상담환영, 보약 첩약 특선정제
627 Bloor St. W. Ste #202(외환은행 2층 한국관앞)
전화 B)(416)588-1984 (10:00a.m.-8:00p.m.)
92 Brantwood Dr. Scar. (R)(416)439-6717

아세아한약상사 (645 Bloor St. W.)
진품 웅담·녹용·인삼·우황·사향· 산삼취급
전화 : (B)530-0522, 530-4900, 968-3586(R)

침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 (내장질환) 박 영 숙
진료시간 : 매일10AM~8PM 전화 : 922-7090
700 ONTARIO ST. #517(St. Jamestown)

김명종한약방
2433 Finch Ave. W. #411
전화 : 745-2058

동방체질개선연구원 전화: 745-8899(우 봉)
◉한약과 침·뜸·특수부항료법·지압·단식료법. ◉고혈압·신경통·요통·두통·심신불안과 불면증 ◉2433 Finch W. #516

회계사무소

K.G.S.Tax Accounting
과거 수년간 캐나다정부 세무감사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갖고 회계업무와 세무감사에
대한 업무를 봐드립니다.
◉사무실 : 1454 Dundas St. E. Suite 110 Mississ.
◉전화 : 273-7300 공인회계사 이명세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onto
전화 : 960-5736(B), 844-0178(R)

정필주회계사무소
Tax Return, Tax Planning
4750 Jane St. Suite. 608 전화 : 661-1819

최태권종합회계사무소(ACCOUNTING & TAX)
개인세무및 보고서작성, 사업회계및 장부정리
637A BLOOR W. 전화 : 533-7573(B)

김명숙 회계사무소
627 Bloor St. W. #302
외환은행 블루아지점 3층 534-3760

차상범회계사무소(Cha's Accounting Service)
3305 Lakeshore Blvd. W. Toronto, Ont. M8W 1M9
전화 : (B)(416)255-8301, 259-5822 (R)(519)653-3329

공인회계사 이경복
CERTIFIED GENERAL ACCOUNTANT
3416 Dundas St. W. #206, Tor. 전화 : 766-5639

이명윤회계사무소 - 스카보로
◉1974년도 욕대학 경제과 전공 ◉1976년도 욕대학 경영관리학 회계학전공 ◉현 캐나다최대의 컴퓨터회사의 어카운터 매니져 ◉소규모사업체 회계사무 6년경험
44 Gil Roy Dr. Scar. Ont. M1P 1J9
전화 : 752-9332(R) (오후 5시30분이후)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의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아세아 한약방

◉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각종보약, 각종병약
◉ 물리치료(식이요법, 단식요법, 무료상담)
◉ 무병장수의 비법은 한약과 건강식품으로
◉ 영업시간 : 월-토: 오전 10시 - 오후 8시

645 Bloor St. W. 530-4900(B)
전화 : 968-3586(R), 530-0522(B).

한국 CLASSIFIED

한인업소 전화번호는 한국안내광고에서

BLACK SEA Fish Wholesale Ltd.
각종 생선 소·도매함.

〈영업시간〉
월 · 토: 8:00 a.m-5:00 p.m
화·수·목: 오전8시-오후6시
금 : 오전8시-오후7시
16 Osler St.
전화 762-7255,7256,2700

구 인

주방헬퍼 구함(무경험자 관계없음)
직접 내방원함. 25 The West Mall
(Sherway Garden Mall) Golden Bird B.B.Q. Chicken

Indoor골프장에서
파타임으로 일할 여자분 구함.(학생환영)
전화: 298-3584, 638-4658

입주하셔서 애기 봐주실분 구함.
2살, 5살
전화 : 447-1460

나염프린팅, Golden Creft
나염프린팅 배합사, 배색사 구함. 우대하겠음.
전화: (B)247-8870, (R)242-4319 Mr. 김

도나스 가게에서 주말에 파트타임으로
밤일 하실분 구함.(키프링 & 렉스데일)
전화 : 743-3822

한식·일식·중식 겸한 요리사 3명 구함.
초봉 : $1,400 (일식·중식은 한국스타일 원함)
전화 : (403)252-2225 (캘가리)

영주권 가지신 분으로 입주하여 애기봐주시며
가족같이 지내실분
전화 : 271-1482(낮), 274-5685(저녁)

입주하셔서 애기돌봐 주실분 구합니다.
전화: 669-6438

경험있는 키친 헬퍼 및
웨이트레스 구함.
전화 : 251-1908, 466-4578 (After 5p.m.)

경험 많은 여자캐쉬어 구함. 미시사가 지역.
오후5시~11시까지 하실분(토·일 포함)
전화 : 625-1620

카운터 헬퍼구함. 영어 잘해야 하고 적극적이고 바쁜 점심시간을 잘해내야 함.
전화 : 449-2012(7-10 pm) Mr./Mrs. Goomar

식당(32좌석) 누구든지 맡아서 운영하실분.
렌트: 월 $350. ◉527 Evans Ave.
전화: 823-5135(R) 691-6768(B) Mr. 김

맥스밀크에서 금·토·일 일할
유경험 Cashier 구함. 미시사가 지역.
전화 : 278-4867

일본음식점에서 일할 주방장과 요리사 구함.
풀타임 그리고 파트타임 원함.
전화로 예약하세요. 755-3010 or 923-6026
Koyto Japaness Restaurant

남자 풀타임 헬퍼 구함.
아침8시부터 8시간 6일 근무.
전화: 923-3939

한국안내광고는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를 제공합니다. 저의 안내광고를 많이 이용하세요. 1주에 $15로 귀하가 원하시는 바를 찾으실수 있읍니다.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구 혼

결혼상담, 전자침(한국기원내)
653A BLOOR ST. W. TORONTO.(18세부터 60세 사이)
전화 : 533-0168 매일1시-10시 Mr. 최·김

외롭고 쓸쓸한 남자(담배 안핌) 결혼대상자로 토론토나 한국에 있는 30-40대 한국미혼여성을 찾읍니다.
전화 : 653-3105

한국기관·해외지사

총영사관	598-4608
무역진흥공사	977-8784
외환은행	364-2890
외환은행 Bloor지점	533-8593
한일은행	865-0456
조흥은행	363-3448
KAL	862-8250
금호실업	224-2491

교 민 단 체

한인회	755-9288
노인회	755-8079
실업인협회	533-7923
Y.M.C.A.	536-1166
코리아타운번영회	532-2727
동우회	261-2917
호남향우회	651-8835
캐나다체육회	248-8846
한인신용조합	533-9387
천주교신용조합	363-0097
한인태권도협회	630-3095
상공인협회	421-9144
이민사자료연구실(한국일보사내)	533-2361
'88 올림픽후원회	622-3671
송공문화협회	444-3658
스키협회(박경택)	491-1931, 598-3732

개 인 지 도

피아노 교습생 모집
성심껏 지도. 초보자 환영. DIXON & KIPLING
전화: 243-7752(749-1316(낮·Answering Service) Jennifer Hong

치과기공 개인지도(Crown & Bridge)
짧은기간내 적은 경비로 많은 소득을 얻는 기술.
(낮)636-1435, (밤)635-7116 박창우

등불토요학교, ◉757-7828(김지현)
지원자격: 5학년~10학년. 영어·수학·한국어 ◉UT재학생과 졸업생 장소: Midland Ave. Collegiate Ins.(에그린톤×미드랜드)

★한국일보 안내광고 : 533-2361

매 매

Van Truck - 77년도 Dodge 흰색
6만5천 Km. Excellent Condition
전화 : 533-2363 Mrs. 김

매매(TUCK SHOP)
100% Cash Deal
전화: 242-2630 Mr. Pak(밤10시30분 이후)

스카보로에 잘 꾸며진 일본음식점 매매.
한국음식점에도 잘 어울림
전화 : 755-3010(3pm-5pm) Fumi

스카보로에 있는 Bakery 매매함.
경험없어도 할수 있음.
주매상 : $3,500 아스킹 : $59,000
가격에 모든 도구 포함돼 있음.
전화 : 881-5186

버라이어티 스토아 급매
◉주매상 : $5,500. 리스 : 4년+5년 옵션
◉주매상 : $3,500. 리스 : 4년+5년 옵션
A.E. LePage Real Estate
전화 : 741-9170 Mrs. 우

뱅쿠버에 있는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상: $5,000. 아스킹: $40,000+스탁
토론토전화 : 282-8066(Mr. 리)

가게달린 건물 매매
◉2층에 살림집(1200 sq/ft)
◉가게(1200 sq/ft) ◉지하실(1200 sq/ft)
◉가게리스는 금년 9월에 끝남.
◉현주매상 $4,000이나 더 Sale을 많이 올릴 가능성있는 가게임. 전화: 243-0233 Mr. 김

◉ZET Spray $150. ◉Pop 머신 $200.
◉Teyler Slush 머신 $6,000.(6개월 사용했음)
전화 : 282-3553(낮), 284-9325(저녁)

- Choice 레스토랑 비지네스와 부동산 매매
- Deli 커피숍. 주매상 : $3,000. 동쪽에 있는 바쁜지역. 쉽게 운영할 수 있음. 아스킹 : $72,500
- 상업용 2층 빌딩.
 1층에 레스토랑 있고, 2층엔 2 Bed Rm.아파트
 미래 년 렌트인캄 $13,800. 아스킹 : $134,500

전화 : 421-2214 Miss Cheng.
New Bliss Real Estate Co-operation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리스: 5년+5년. 아스킹: $10,000 or Best offer.
전화: 531-1023, 531-1005(Ralf)

쇼핑 Mall 속에 가게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
사람이 많이 사는 동네에 보석 가게.
특별한 리스. 새롭게 단장돼 있음.
Mall 안에 거주자들이 정해져 있음.
전화로 예약 바람. 9시~3시.
전화 : 225-0935

◉도넛숍
매상으로써 캐나다에서 최고수준의 주 $10,000
아스킹: $350,000. 년순수입: $150,000.
◉드라이크리닝 디폿(Depot)
한달순수입: $1,500보장. 혼자서 6일 오픈. 아스킹: $23,000
◉후라이드 치킨
주매상: $7,500 아스킹: 195,000 년순수입: 약 $100,000
◉미스터 씨업머린
주매상: $7,000 아스킹: 185,000
이훈모부동산 전화: 225-1204

버라이어티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아스킹: $30,000+스탁 렌트: $750
Bloor West 전화: 535-6838

나니아가라폭포 근방의 개조된 호텔에 투자하실분.
파드너 쉽 가능.
최고의 투자임.
전화: 1-416-735-9930 John Psutka
주소: 30½ Niagara St. Welland L3C 4Z5

댄 스

부루스, 지루박, 도롯도, 탱고, 월츠, 폴카, 디스코, 차차···. (출장지도및 주말지도도 함.)
◉개인·소구룹·단체. 문의: 742-4208 김유수

아파트렌트

간이모텔 단기·장기 불문. 여행자에게도 크게 편리함. 693 Bloor St. W. Clinton House(Christie 지하철정거장옆 아리랑식당 앞) 전화 : 535-9541

---

1 Bed Room 세놓습니다.
(더퍼린 써브웨이 부근)
전화 : 536-8262

방 세놓음. 조용한 가정. 댄포스와 돈랜드지하철서 도보로 5분거리. 교통편리. 화장실·취사시설 공유. 1주당 $35.00
전화 : (R)466-2455, (B)823-9040 ext. 2165 Mrs. 조

---

1 Bed Rm. 방세 놓습니다. 부엌포함.
월/$200. 653A Bloor St. W.
전화 : 533-0168 (Mr. 김) (오후 1시~밤 10시사이 전화요)

파실 물건이 있으시거나 교환하시고 싶은 물건이 있으시면 저희 안내광고를 이용해 보세요.
그 효과에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가 구 점

ecosys Ecosys Furniture
• 고급가구 전문 • 저렴한 가격 • 신용보장
2300 Yonge (영 × 에그린톤)
전화 : 486-0397 (김 만구)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 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E.
전화 : 751-9236, 757-2106 홍 진 표

J Studio Signs (각종 간판, Silk Screen, Graphic)
127 Manville Rd. at Warden & Eglinton
전화 : (B)755-9087, (R)755-5304 이종소

꽃 집

다우스 꽃집 (DAWES FLORIST)
• 각종 어렌지먼트 & 각종 플랜트 • 각처 주문배달함.
464 DAWES RD.(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전화 : 751-5851(B) 757-6711(R) 이 동환

제인·파 꽃집(Jane Park Plaza)
각종행사·생일·결혼·장례꽃 주문·배달함.
875 Jane St. Tor. 전화: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손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전화 : 622-8516(B), 279-3719(R)허소피아

한인경영 최대꽃집 Yonge Flower Shop
• 각종 플랜트, 어렌지멘트
• 화환 전문(일류 꽃전문가 고용)
• 토론토 전 지역 배달
589 Yonge St.(영×웰스리)
전화 : 960-6265 Mr. 김

도 서 판 매

자녀교육을 위한 성공의 열쇠!!
ENCYCLOPAEDIA BRITANNICA (전30권) 부리테니카
연락처 (416) 469-1350 (H), 463-7423(B) 이송원

World Book (백과사전)
전화 : 533-2364, 242-5774 (Mrs. 김)

메 리 야 스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메리야스
602 BLOOR ST. W.
전화 : 532-5394(B), 742-0737(R)

쌍방울 메리야쓰
WESTON MALL(웨스톤 × 윈치)
전화 : 746-3458

미술연구소

삼우스튜디오(SAM WOO STUDIO)
Free Workshop(성인 미술교실)
58 Wade Ave. Tel : 537-7630

미 용

킴스미용실(코리아하우스 뒤)
◉일·월요일 휴무.
전화: 532-7094(B) 138-0628(R) Mrs. Oh

스타미용실(Mrs.김) ◉남녀커트·파마전문. ＊2437 Finch Ave. W
화·토: 9am~8pm. (B)741-4410. 매주월요일만 동부영업: 10am~7pm
일요일 휴업. 전화: 267-0333(동부한국식품 플라자 내)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커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옆)
전화 : (B)759-8854. (R)755-2759 미세스 허

로마노미용실 김 조 자
330 Dixon Rd. W. (Islington 과 Kip ling 사이)
전화 : 248-2957(B) 247-6875(R)

마야미용실 632 Bloor St. W.
한국관앞 서울여행사 2층
전화 : 588-1480(B). 924-0221(R)

Annie's 미용실. ◉여드름. 주름살 치료 전문
• 남녀 파마. 커트 전문. 812 Queen St. E.
전화 : 463-9071 Mrs. 리 (퀸×브로드·뷰)

레이몬드미용실(수잔:한국인)-◉남·녀 컷, 파마전문
월-금: 오전9시-오후8시, 토: 오전9시-오후5시
2491 Lakeshore Blvd.(레이크셔×토알욕) 전화: 255-4745

빵 집

HEALTH BREAD BAKERY
결혼, 생일, 파티케익등 전문(배달가능)
534 St. Clair Ave. W. 653-1149 Mrs. 백

Honey Home Bake Shop - 결혼·회갑·생일등 각종 케익과 샌드위치 Tray·샐라드 주문배달.
전화 : 961-9780 Mrs. 장 276 Dundas St. E.

번역및통역

번역통역(통역은 월요일만 합니다.)
CHARLES YU(유좌석) 10 SUNRISE AVE UNIT 203.
전화 : 759-9505(5시 이후) M4A 2R1

변 호 사

RALPH M. LEVINE B.A., LL.B.,(Barrister & Solicitor)
627 Bloor St. W. #302(외환은행 블루어지점 3층)
전화 : 533-8539 ★ 통역 항상 가능함.

보 석

Young Cook's 보석상
★각종 보석 취급, 최저가격, 중고교환가능
215 Yonge St. (B)368-7961 (R)690-5217 민영숙

보 험

CANADA LIFE (강학수)
전화 : 868-0922

김용주 종합보험
전화 : 535-7200

임페리얼 LIFE (김홍량)
전화 : 961-3774

SUN LIFE (배용빈)
전화 : 497-3800

조규혁 종합보험
전화 : 233-6236

SUN LIFE (윤호영)
전화 : 922-3111

SUN LIFE (김신명)
전화 : 922-3111(B) 791-8196(R)

SOVEREIGN LIFE (강경범)
전화 : 233-6236(B) 279-7774(R)

부 동 산

복 덕 방 ROYAL TRUST CO.(로얄 트러스트)
곽 석 용 전화 : (B) 752-3111, (R) 298-2546

D.F.McALLISTER R.E.LTD. 김 시 성
투자전문(IC & I)
전화 : (B) 497-0600

이 훈 모 부 동 산
전화 : 225-1204

황용현부동산(주택매매, 사업체 일체.)
(B)449-8644~6 (R)286-1548 ★이헌영 (R)686-0207
★임윤식 (R)638-6919 ★강정숙 (R)244-8918 ★임분옥 246-4384

CANADA PERMANENT TRUST CO.
황 순일 전화: 481-3443(B) 745-5485(R)

SINCERE REALTY INC. (채준성 : David Chae)
주택 사업체등 모든 부동산 취급.
전화 : (R)633-7892, (B)497-8900

A.E. LEPAGE (우 덕 이)
전화 : 741-9170

이 대 환 부 동 산
전화 : 535-1251

CENTURY 21
조준상(John Cho)
전화: 743-7722(B), 742-0260(R)

사무용구및 계산기

S B S 캐쉬 레지스터 퀸스웨이×이슬링톤
각종 전자계산기 취급 (2년간 보증)
전화 : 252-7377(B) 762-4536(R) Mr. 안수일

사 진

새 한 칼 라 현 상 소(R)654-5691 전화 : 535-7772
결혼·돌사진·각종 증명사진·회갑·출장환영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630 BLOOR ST. W. TOR.

무 지 개 칼 라-촬 영 전 문
COMMERCIAL·ART PHOTOS·WEDDINGS·VIDEO촬영
36 Neapolitan Dr. 전화 : 438-4435 오후9시30분까지

상 담

김보경 박사 (심리상담, 성인및 아동)
연락처: 1-(705)-549-3454(Penetang, Ont)
" (토요일): (416)-923-3336(토론토)

생 선

K & R Sea Food "일·월요일 휴업"
▲얼리지 않은 각종생선. ▲싱싱한 횟감 주문받음
765 The Queensway & Royal York. 전화 : 259-1585

Forest Glen Sea Food.
3413 Fieldgate Dr. Missi.
(Bloor & Two Block East of Dixie) 624-3092 임호빈

선 물 센 타

거북이 선물쎈타 617 Bloor St. W.
전화 : 535-2143(B)

빅·세븐 선물쎈타 678 Bloor St. W.
전화 : 533-7966

T. V.

• 각종 비데오 테이프 대여전문
• 품질보장, 신용본위 ◉ 비데오 기계, T.V.판매
전화 : 532-0210 손 병 헌

아카데미 TV & STEREO CO.
SANSUI, BRAUN, ZENITH, TELEFUNKEN 등
• 특별대매출, • 월부판매 알선
★ 동부 255 MORNINGSIDE AV. 282-2820
★ 서부 Finch West Mall(Finch & Weston) 745-5555

STEREO KING 전화 : 766-4770
◉ 고급 라디오, 전축 전문센타
◉ 전축 스테레오 수리전문
◉ 비데오 취급
2989 DUNDAS ST. W. (킬 × 던다스)

HOME COMPUTERS
▲판매및 수리 ▲파트타임 비지네스에 관심있으신분 전화바람. 전화 : 239-1698 오후6시~9시 (MR. 이)

NIPPON VIDEO센타 ◉각종 일본테입전문(4,000개이상)
◉비데오머신 판매. 1993 Danforth Ave.(댄퍼스×우드바인)
Tel: 698-0633 Mr. 하마구찌 "일요일 Open"

최대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캐나다 생활에 동반자, 정상의 신문, 한국일보 !

신년도

—재고정리—

대세일

새해를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의 가정에
만복과 아울러, 소원성취를 기원 합니다.
저희 럭키 Drapery에서는 재고 정리차
아래와 같이 대세일을 하고자 합니다.

세일기간 : 1 월31일까지
(재고품목에 한함)

- **READY MADE**
  쎄일가격에서 15% OFF
- **STOCK BLIND**
  45%OFF
- **CUSTOM BLIND**
  30%OFF
- **CUSTOM MADE DRAPERY**
  종전과 같은 쎄일가격

4141 DIXIE RD.
ROCKWOOD MALL (딕시×버남돌프)

LUCKY DRAPERY

☎ 625-0698